2023년 주일예배

되새김의 은혜

다 시 R e

(remember, rebuild, rekindle)

신실한 청지기

2023년

기 도 문

주님께서
주일예배 때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예배시간 은혜받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언행이 성숙 되어 가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까?
두렵사오니,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 유창진 목사 (세광교회 담임목사 : 2008년 12월 13일 ~ 현재)
필자 : 윤병권 장로 (세광교회 시무장로 : 2016년 04월 23일 ~ 현재)
☞ : 필자가 첨언/편집한 글

2023년

주일 말씀 묵상의 삶

주일 말씀 요약은 이렇게
① 예배 중 말씀을 요약 메모
② 2부예배 영상자료에서 음성파일을 축출 : Clipdown 프로그램
③ 전체 음성파일 중 말씀 부분만 잘라냄 : 오디어 커터 프로그램
④ 녹취 파일을 만듦 : 클로바 노트(clovanote) 프로그램
⑤ 녹취 파일과 설교 중 메모한 내용 및 주석(만나 주석) 등 참고 자료를 비교하면서 요약, 일부 구어체는 문어체로 수정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되새김하며 묵상하며 한 주간 삶 속에서 적용하려 되새김한다.

2023년

목 차

월	일	제 목		본문	쪽
1	1	다시 집중하라 Re Focus	1.예수님께 집중하라	골1:15~23	1
	8		2.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골1:25~29	10
	15		3.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골2:1~7	19
	22		4.충만한 것에 집중하라	골2:8~15	27
	29		5.자유에 집중하라	골2:16~3.2	35
2	5		6.변화에 집중하라	골3:5~17	43
	12		7.사랑에 집중하라	골3:18~4:1	54
	19		8.복음전파에 집중하라	골4:2~6	63
	26		9.동역자에게 집중하라	골4:7~18	72
3	5	십자가	1.은혜의 말씀	눅23:33~34 요19:25~27	82
	12		2.약속의 말씀	눅23:39~43	91
	19		3.고통의 말씀	막15:33~36 요19:28~30	101
	26		4.승리의 말씀	요19:28~30 눅23:44~47	112
4	2		5.종려주일에 답해야 할 질문	요12:12~16	121
	9		6.부활주일에 답해야 할 질문	요20:11~18	131
	16	믿음을 세우라	1.산을 옮기는 믿음	마17:14~20	140
	23		2.믿음은 삶의 기초입니다.	합2:4	151
	30		3.내일을 준비하는 믿음	약4:13~17	161
5	7		4.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히11:8~12 히17~19	170
	14		5.가정을 세우는 믿음	수24:14~15	179
	21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현식 목사>	마16:13~20	189
	28		6.두려움 없는 믿음	고후5:7 민13,14장	197
6	4		7.믿음과 의심	고전2:2	207
	11	담임목사 출국	예배자입니까? <김황호 목사>	시50:7~15 시51:16~17	216
	18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김희성 목사>	잠22:4	225
	25		나라를 위한 기도 <김용찬 목사>	렘14:7~18	234

2023년

월	일	제 목		본문	쪽
7	2		신실하신 하나님 <조현식 목사>	출32:1~14	242
	9	믿음을 세우라	8.참된 믿음 Real Faith	약2:14~20	252
	16		9.개천을 파는 믿음	왕하3:9~20	262
	23		10.인내하는 믿음	히12:1~2	271
	30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1.혼돈을 뛰어넘는 소망	삼상2:1~10	280
8	6		2.거절당함을 뛰어넘는 확신	삼상16:1, 6~7	290
	13		3.거인을 뛰어넘는 용기	삼상17:45~47	300
	20		4.어둠을 뛰어넘는 빛	삼상22:1~2, 22~23	310
	27		5.복수를 뛰어넘는 용기	삼상24:1~4	320
9	3		6.거절을 뛰어넘는 소망	삼하7:18~29	330
	10		7.실패를 뛰어넘는 은혜	삼하11:1~4 시51:1	340
	17		8.분노를 뛰어넘는 힘	삼하16:5~14	350
	24		9.혼돈을 뛰어넘는 관점	삼하22:1~3	362
10	1		10.인생의 기복을 뛰어넘는 은혜	사55:3~4	371
	8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1.겨자씨 믿음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마17:14~20	383
	15		2.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삿6:11~12	394
	22		3.모세의 변명	출3:11~12	405
	29		4.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다.	히11:8~12,17	417
11	5		5.적은 것이 많게 되다.	눅9:12~17	429
	12		6.빠질 것인가? 걸을 것인가?	마14:22~33	441
	19		7.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	눅17:11~19	453
	26		8.작은 사람의 큰 변화	눅19:1~10	465
12	3	성탄절 노래	1.소망의 노래	사40:1~11	477
	10		2.마리아의 노래	눅1:46~56	489
	17		3.사가랴의 노래	눅1:68~79	501
	24		4.시므온의 노래	눅2:25~35	513
	31		5.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눅2:41~52	524

1월 1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1 : 예수님께 집중하라 (골1:15~23)

❍ 시작하며

2023년 주제는 "다시"입니다. Re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rebuild 다시 세우라
rekindle 다시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무너졌고 지쳤습니다. 다시 세우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집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 본질을 잃어버린 어떤 성 건축 이야기

어느 왕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시신을 담은 관을 중앙에 묻고 궁전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워낙 웅장하게 건축하다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다. 궁전은 점점 더 화려하고 웅장해 지나 보니 건축을 시작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왕이 건축 현장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하고 화려한 궁전과 어울리지 않고 지저분하니 버려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는 아내의 시신이 담겨 있는 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 궁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정작 아내의 관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본말전도, 주객전도라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 같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 본 론

1. 골로새 교회의 문제와 해결책

- 문제 : 예수님 +
- 해결책 : 예수님은 충분하시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에 빠졌을까?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교회 내부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 결과 그리스도인의 80% 이상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집중하는 삶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이며 자기들의 윤리와 규칙을 강요하고 교회 건물은 점점 mega church를 향해 가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정치성, 그들의 교리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는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몇십 년도 안 된 AD 60년

경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지! 믿어야 돼!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교리를 만들고,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확장시키고, 영적인 것을 더 경험하면 좋겠다. 음식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에 더하기였습니다.
예수님 Plus였습니다.

예수님 더하기가 무엇인가?
금식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신령한 경험이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답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Jesus Plus는 필요 없습니다.
Jesus enough 예수님은 충분하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 쉬운 성경)
6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하십니다.

2.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충분한가?

S.M Lockridge 목사의 예수님에 대한 노래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갈보리 침례교회 목사>를 먼저 읽어 보세요
(8쪽 첨부 자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2.1.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형상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상은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아이콘의 어원입니다.
아이콘 바로 그 형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오셔서 함께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우시고, 아픈 자들을 만지시고, 특히 종교가 만지면 안 된다고 거부했던 사람들까지 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2.2.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인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소망도 희망도 삶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2.3. 예수님은 나의 붙드시는 분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NIV 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건 기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합니다.
우주가 멋대로 흩어지지 않고 붙들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산산이 깨진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하나로 묶으시고, 가정을 하나로 묶으시고, 교회를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2.4.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조하셨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각각 문화도 인종도 수준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동일한 교회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통치하시고 질병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2.5. 예수님은 나의 화목자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나의 화목자이십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예술품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자십니다.

❍ 마무리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붙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자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붙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화목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속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는 무한합니다. 그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의 자비는 충분합니다.
그의 용서는 충분합니다.
그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참고>
S.M Lockridge 목사의 예수님에 대한 노래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갈보리 침례교회 목사>

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의의 왕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영광의 왕입니다.
그는 왕중의 왕입니다.
그는 주의 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를 알고 있습니까?

나의 왕은 주권적인 왕입니다.
어떤 측량도 그의 무한한 사랑을 못정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합니다.
그는 완전히 진실합니다.
그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당신은 그를 아십니까?

그는 세상의 지평을 넘어선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죄인들의 구주입니다.
오늘 그를 아시나요?

그는 약한 자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그는 시험당하는 자에게 유용합니다.
그는 동정하고 구원합니다.
그는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는 병든 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는 나병자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빚진자들의 빚을 청산합니다.
그는 포로된 자들을 해방합니다.
그는 약한자들을 방어합니다.

그는 젊은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불행한 자들을 섬깁니다.
그는 노인들을 보살핍니다.
당신은 그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그를 아시나요?

그의 삶은 비길 수 없습니다.
그의 선은 무한합니다.
그의 자비는 영구합니다.
그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를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적입니다.
그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를 당신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당신의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막을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그를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1월 8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2 :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골1:25~29)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두 번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있다.
크리스천은 선동적이다.
선전가다.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들은 판단하고 비판한다.
엄격하고 경직되며 융통성이 없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교회 건물은 위선자로 가득 차 있다.

다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도덕적이고 선하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이처럼 교회와 크리스천들에 대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가?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나의 삶과 교회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교인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입니다. 이 말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다. 우리들의 삶이 교회로서의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삶, 우리 세광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집중하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골로새서를 통해 정말 집중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 **Tip :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지중해가 서쪽에 있는 현재 터키 서남부에 있는 기후가 아주 좋은 휴양 도시로 교역이 발전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집결되는 장소였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고 사도 바울은 직접 방문하지는 않은 곳인데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 편에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이다.

❍ 본 론

1. 골로새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Jesus Plus였습니다. 예수님 더하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세상 학문과 철학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 세상 학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신비주의입니다.
영적 경험, 신비한 경험,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적으로 경험 즉 방언, 신비한 것을 보고 이것이 필요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 외에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Tip :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 두목인데 그 부하 악마에게 가르치는 역설적 내용의 책입니다. 부하 악마 중에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크리스천을 환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절대 원수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라”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약점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막 사랑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전략 중 하나입니다.

◆ **25번째 편지 내용 일부** (스쿠르테이프가 보낸 25번째 편지)
이 땅에 그들의 진짜 문제는 순전한 기독교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면 사탄은 비상이 걸립니다. 악마는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가 순전한 크리스천으로 묶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바람은 환자들이 기왕 크리스천이 된다면 예수와 그리고 무엇무엇 더하기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마귀)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심리학, 기독교와 나치 독일의 신질서 이런 당시의 상황이 배경입니다.
기독교 + 신유의 역사, 기독교 + 신령한 경험, 기독교 + 심령 연구, 기독교 + 무슨 주의 즉 채식주의 등, 기독교 + 개혁 사회 같은 것을 찾게 하라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뭔가 좀 변질된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기독교적 색채를 띤 세상의 유행을 거기다 앉혀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과 같고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더하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더하고 율법주의를 더하고, 번성을 더하고, 신령한 것을 더하라. 그래서 방언을 못하고,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전략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마침표입니다.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교회의 목적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 이것에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의 삶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역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 역할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유대인)에게 나타났고 이제 곧 이방인들에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 새번역)
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29.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골로새서 말씀은 다섯 가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1.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골1:28)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답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철학이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걸로는 부족하니 뭔가 더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방언을 못 하면 크리스천이 아니고 지옥에 간다고 하던 큰 흐름이 한국 교회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2.2. 우리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을 ~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골1:28)

둘째, 우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민주적인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생각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은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주인과 노예가 똑같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생각은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혐오 문화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빈부차별, 정치적 차별 등입니다.
아마 그중에도 제일 큰 혐오가 정치적 차이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피부 색깔이나, 머리 색깔이나 남루한 옷차림이나 모두 다 괜찮은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쉬운성경)
2.열두 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출신인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4.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12명 중 정치적 성향이 완전 극과 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 열심당원은 로마에 대해 정치 폭력적 방법으로 대항하던 사람들로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였고 이들은 로마에 협력하여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면서 로마에서 할당된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받치고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유대 입장에서는 반역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복음을 전할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차이와 혐오를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서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정치적 문제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3. 우리 목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 새번역)
28. ~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골로새서 1장 / 쉬운성경)
28.~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목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두 가지 번역으로 보면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숙되는 것입니다. 성숙된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변화는 이 시대 세상 문화와는 충돌합니다.
어느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종교를 맞춤화했습니다. 옷을 맞춰 입는 것처럼 종교를 자기에게 맞춤화했다. 종교를 자기에게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지는 마시고 기도할 때는 들어주세요.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종교 또는 영성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제목 :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소제목 : 그런데 나하고 내 친구하고 쇼핑몰에는 좀 데려다 주세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종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회입니다.

2.4. 누가 이 일을 하는가?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가=you)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

넷째,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합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대명사가 없지만 NIV 버전에는 you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골로새서 1장 / 쉬운성경)
29.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다섯째,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사역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 마무리

(골로새서 1장 27~29절 / 메시지 성경)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서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엇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1월 15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3 : 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골2:1~7)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주제입니다.

☞ 예화 : 잠 못 자는 사람 이야기 ^0^

불면증으로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 아내에게 “내가 지금 5분 넘게 휴대폰을 찾고 있다.”라며 휴대폰을 통해서 말을 했다.
잠시 후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지금 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잠을 못 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 본 론

1. 바울의 잠 못 이루는 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바울이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염려는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의 “힘쓰라”라는 단어는 “아고나”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agony(고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통 고뇌 투쟁 갈등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Tip : 용어해설

◆ 아고나 (힘쓰라) ἀγωνα
믿음과 복음을 위한 투쟁의 의미이다. <pfitzner> (만나주석)

◆ agony :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고 염려되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했던 상황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같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지만, 이런 육신이 받은 염려보다 더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1.1. 골로새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실 성도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육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가르쳤는데 특히 누란노 학교를 세워 2년 동안이나 가르쳤다.
그때 에베소 사람 에바브라와 골로새 사람 빌레몬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골로새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이고, 빌레몬은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잘 세웠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자기에게 교육받은 제자가 개척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급한 문제였는지는 골로새로부터 2천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까지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헬라 로마 문화 즉 철학과 신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긴 한데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 학문적으로 좀 뒷받침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령한 것 영적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

서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Jesus Plus였습니다. 예수님 더하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2. 골로새 교회 문제의 해답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골로새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자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학문이나 철학이나 신령한 다른 경험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왜? 너무 좋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예수님 더하기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한 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스럽다고 말한 것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플러스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너희들 모습이 너무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히 서 있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 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의 세 가지 그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2:6 / 개정개역)

2.1. 걷는 사람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 걷는 것입니다.
"행하되"라는 단어는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o walk in Him" 그 분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걷는 길이 좁은 길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계속 걸으라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또 걷기 시작하고 하지 말고 계속 걸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다 안 믿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신앙이 좋았고 말씀에 열광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다 멈춰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음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위로 미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멈추기만 하면 미끄러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멈추고 말씀 듣는 것을 멈추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도 행하다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으라라고 합니다.
걷는데 주님께 합당하게 걸어라.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다는 뜻은 가치 또는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는 말은 주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걸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께 합당하게 사는지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걸로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앞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2.2. 나무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

두 번째, 나무입니다.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 짝 밭에 뿌려진 씨앗은 해가 뜨니 말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어서 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십니다.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예수 안에 심겼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깊이깊이 박는 일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박는 삶이 위로 높이 자라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위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뿌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높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여 높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박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전초라는 텀블위드(tumbleweed) 식물은 뿌리가 약하기에 바람에 굴러다니다 말라 죽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2.3. 샘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7. ~~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 샘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입니다.
샘은 그 밑에 있는 것이 나오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샘솟듯 올라오게 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삶이 좋은 일이 막 생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은 힘들 때, 괴로울 때, 모든 일이 잘 안될 때 그때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 개역개정)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무슨 좋은 일이 생겼기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 4권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가 샘솟듯 올라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항공기 일등석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일등석을 탔다면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여 감사보다는 이것저것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석을 끊었는데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해주어 탔다면 그냥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2023년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삶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충분한 분이 계십니다. 삶에 아무리 힘들어도 결핍되어도 그분의 사랑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차 안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십니까?
짐은 트렁크에 싣고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깊이 뿌리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월 22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4 : 충만에 집중하라 (골2:8~15)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만에 집중해야 합니다.

◆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접근이라면?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접근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연결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경고하고 그리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로잡을까? 라는 단어는 헬라어 쉴라고게오(συλαγωγῶν) 단어인데 납치 약탈 이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폭력으로 빼앗아 가는 강도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빼앗아 갈까?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철학은 헬라어 필레소피아(φιλοσοφίας)인데 사랑한다는 필레오와 지혜라는 소피아의 합성어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은 이처럼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조심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철학의 정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을 철학과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왜곡하며 잘못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른 상표를 붙이고, 또 다른 것에 예수님의 상표를 붙이며 예수님을 거짓 잘못 속임수로 가르치는 현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과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는 인정하면서도 충만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속성인 육체의 속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다 있다는 의미인데 헬라 철학이 가르치는 플레로마 충만이란 좀 달랐습니다.
가장 최고의 신이 충만함으로 그 신의 속성을 발산하여 그 하위의 신들을 만들어 내어 천상의 신들을 만들고 또 지상의 신을 만들고 조금씩 열등하고 모자란 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것을 충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천사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데 너희들이 말하는 플레로마 좀 열등한 발산된 충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또한 사람의 속성이 완벽하게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간의 속성이 모두 충만하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 본 론

1.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의 다른 번역을 보면 세상 기본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를 확인해 보고 나 자신은 어떤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신께 예배를 드리면 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주고받는 그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헬라어로 키드 프로 코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hat's for this, this for that's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너는 나에게 이것을 준다는 주고받는 대가성의 삶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성취한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성취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가성의 원리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세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침투하여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봉사해야 하고 더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를 비교해 봅니다.

세상의 원리는 행위에 기초한다.
복음의 원리는 은혜에 기초한다.

세상의 원리는 인간의 능력에 기초한다.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이다.
복음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이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복음의 원리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사람이 중심이다.
복음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신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주셨다.

세상의 원리는 교만이나 절망으로 이끈다.
복음의 원리는 겸손과 감사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 놀라운 능력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해 더 회개해야 해 이런 끊임없이 자기가 할 일에 집중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충만하다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는다, 모자라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추구해야 하고 또 더 해야 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

에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는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충만하다고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천국을 못 갈지도 몰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소속한 그곳에서 뺏을지도 몰라 하며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그 안으로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위 본문 말씀에 “그 안에서와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받았습니다.
할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일을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2.2. 용서받음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음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은 헬라어로 파스(πάντα) 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모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나 하고 시간의 통제 안에 있는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책감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다고 말씀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값이 있을까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

신하여 그것을 갚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용서 더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모자람이 없는 용서 완벽한 용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2.3. 승리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 번째, 승리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 때문에 내 삶에는 전혀 절대로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패배가 없고 어떤 절망과의 싸움에서도 패배가 없는 승리의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들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대한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완벽한 승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영혼의 저주, 악한 세력들의 악한 영들에 대한 주술, 이런 귀신 들리는 것 저주받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죽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악한 영에 눌려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권세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 마무리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통치자들과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승리하였기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화>
예술적 가치가 별로 없는 아들의 초상화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신의 진귀한 모든 소장품을 주겠다는 유언 이야기

1월 29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5 : 자유에 집중하라 (골2:16~3:2)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굉장히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자유에 집중하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Tip : 미국 노예 해방과 관련 예화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쯤 전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다.
그런데 앤더슨이란 옛날 노예 주인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해방된 조던이라는 노예에게 돌아올 수 없냐고 편지를 썼다.
(물론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조던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지를 받은 노예였던 조던은 답장을 썼다.
“저는 주인님께서 북군에게 잡혀 교수형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나에게 총을 두 번이나 쏘았을 때 그것을 피해 이곳까지 왔는데 하면서 혹독했던 노예 시절 이야기를 쓰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답장을 했다.
(조금은 조소가 담기고 그동안 억울하게 학대받았던 기억들을 담아 편지를 썼다.)

혹시 여러분은 옛 주인에게서 다시 와 내 노예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기 전 우리를 지배했던 세력에게 다시 들어가서 예수 믿는 기쁨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자유를 속박하는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건 되

고 저건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 개역개정)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 개역개정)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후서 3장 / 개역개정)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 개역개정)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 세광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제도와 관계를 맺고 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쳤지만, 어느덧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규칙에 빠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로잡는다’는 ‘쉴라고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약탈한다. 납치한다. 강도질한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빼앗아 가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본 론

1. 골로새 교회의 문제와 해답

골로새 교회에 이단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세상의 철학과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Jesus plus였음을 이미 몇 주간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에 더하여 철학이 필요하고, 영적 체험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아니라 Plus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철학과 신비한 영적 경험 그리고 더 율법을 지켜야 한다며 자기 자신을 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죽이는 세 가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는 도둑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 전통주의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첫째, 전통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죽이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전통주의입니다.
전통과 전통주의는 다릅니다. 전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전통이 큰 기쁨이 되고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이 전통에 집중하게 되고 전통을 위해 규례를 만들고 본질은 사라지고 전통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 속박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통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좋은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의 전통은 무엇일까?
그 전통은 율법적인 전통인데 이 전통에 대해서 안식일을 이유로 또는 마시거나 절기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안식일의 전통이나 이 모든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통주의에 대한 해답은 전통 뒤에 있는 진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 신비주의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두 번째, 우리들의 자유를 죽이는 killer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도 전통과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경험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던 경험은 정말 복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주의로 변하면 영적 경험이 나의 모든 초점을 사로잡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비한 체험을 강요하게 되고 사람들은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중하면서 신비주의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비판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자유를 죽이는 킬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헛되이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들이 경험했던 신령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사 숭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헬라 철학과 신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신화 속의 신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신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상의 신과 지상의 신으로 나누고 조금 열등한 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그런 천사와 같은 그룹의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각각 등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숭배하고 천사에게 예배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믿고 천사를 섬기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를 섬기는 일들이 신비주의이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비한 경험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끊어진 사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비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에 대한 해답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을 예배하라입니다. 그림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 그리스도 은사를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3. 도덕주의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우리의 자유를 죽이는 killer는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의 특징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입니다. 얼마나 좋은 출발입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 죄지으면 안 돼,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덕주의는 금욕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학대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주의고 금욕주의 삶이었습니다.

위 본문에서 초등학문은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줘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That's for This, This for That's
헬라어로 키드 프로 코어로 세상의 기본원리 즉 대가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규례를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규례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나 이런 도덕주의는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집니다.
19세기 캐나다에 있는 큰 기독교 교단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옷을 입는데 지퍼로 된 옷을 입어야 하나, 단추로 된 옷을 입어야 하나였답니다. 결국 갈라져 하나는 지퍼 교단, 하나는 단추 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하나 오른발을 먼저 하나 하고 논쟁하다 갈라져 결국 한쪽은 왼발 교단 다른 한쪽은 오른발 교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시각으로 두 경우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논쟁이고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 그들은 아마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교단이 갈라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문제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의 해답은 죄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집중하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에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 마무리

(골로새서 3장 / 쉬운성경)
1.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이기에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 록펠러 공원 이야기

록펠러는 르네 드보아의 말에 착안하여 특별한 공원을 만들어 기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 가면 무엇무엇을 금지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 기증한 공원에는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디오에서 자연의 소리만 들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립니다.
어떤 경고문도 없고 숲속에서 숲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경고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르네 드보아가 한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만 미래를 선택한다면 점점 지루하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였습니다.

르네 드보아의 말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부정적인 문제 부도덕 두려움만 반응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우울해질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긍정적인 것에 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감격스러운 그 사랑을 바라보고 마음에 닿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2월 5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6 : 변화에 집중하라 (골3:5~17)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무엇에 다시 집중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집중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중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에 집중하라 하면서 변화를 옷 입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한 20kg쯤 뺐다면 변화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빼기 전에 입던 옷을 입는다면 어울리지도 맞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옷 입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9.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
12.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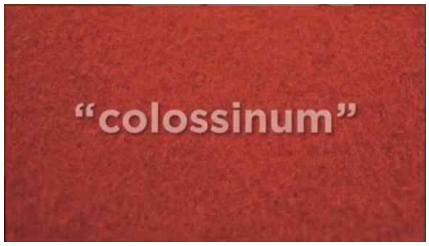
(골로새서 3장 / 킹 제임스 버전)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고 옷 입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kg 빠진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옷 입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은 골로새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Tip 골로새 의류 산업 발달

골로새는 당시 의류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다. 옷을 잘 만들고 잘 입는 사람이

많았다.
그곳은 목초지가 많아서 양 떼가 많았고 당연히 양모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골로새에서 유명한 콜로시늄(colossinum)이라고 하는 양털로 만든 붉은색 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옷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영적 변화에 따른 그들이 입어야 할 옷 영적 진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 **Tip 로마시대 옷 입는 관습**

당시 패션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패션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① 튜닉 : 안에 셔츠처럼 입었다.
② 토가 : 반달 모양의 긴 천으로 외투처럼 입었는데 왼쪽 어깨를 두르고 온몸을 감쌌다.
③ 인장 : 특별한 문양을 새긴 도장으로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었으며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옷 입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다. 어떤 사람은 원로원 의원, 어떤 사람은 노예, 어떤 사람은 지주 등의 옷을 입었다. 이처럼 옷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신분과 정체성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니 옛날 신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의 세 가지입니다.

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 새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②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③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울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우리를 함께 보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변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 본 론

오늘 주제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벗는 것과 입는 것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이 벗는 삶입니다. 그러나 입지 않는다면 벌거벗고 다닌다는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1.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의 뿌리들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먼저 벗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6절 말씀처럼 이것들로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7~9절에서는 이로 인한 분함과 노여움, 거짓말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따라오는 분냄과 노여움, 비방과 거짓말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나누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뿌리가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 잘못된 자기 인식

첫 번째, 잘못된 자기 인식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나를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1.2. 분노

두 번째, 분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며 분노 분괴 원한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 Tip 원한의 아파트 실화 (뉴욕타임즈, 2001년 기사)

어떤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폭 1.5m 길이 30m로 4층 건물을 짓고 무려 14년을 살았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아파트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원한 때문에…
원한의 집을 짓고 분노의 집을 지어 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14년을 사는 사람 그것이 삶을 망치는 뿌리입니다.

1.3. 고통

세 번째,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 고통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삶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뿌리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4. 부정적인 영향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극우 극좌 등)
어떤 사람은 음악의 영향, 어떤 사람은 다른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자기를 파괴해 갑니다.

2.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삶을 파괴하는 뿌리들로부터 변화될 수 있을까?

2.1. 신분증을 착용하라

첫째는 신분증을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증 내가 누구인지 하는 그 신분증을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깨끗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평등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야만인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지 못했던 더 야만인인 스구디아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졌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졌는가?
12절에서 세 가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①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②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본래 죄가 많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③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용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된 정체성을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감동과 기쁨이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오히려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Tip 영국 드라마 이야기 (1960년)**

거리의 여성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 남자는 큰 저택을 소유한 부호였다. 남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여자는 그 집의 안주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달라진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변화된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며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 잘못된 자기 인식에 대한 치료입니다.
나는 패배자야, 나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인식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나를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2.2. 옷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벗은 대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옷을 입으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 개역개정)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입어야 합니다. 강남 스타일 강북 스타일 갈현동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로 입어야 합니다.

①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셔츠)
긍휼의 마음은 심장에서 나옵니다. mercy 자비의 옷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bowels of merc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의 자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심장일 것입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옷은 셔츠일 것입니다.
내의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과 제일 가까운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긍휼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소매)
자비는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셔츠의 심장에서 온 자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손으로 가야 하는데 소매일 것입니다.
긍휼의 심장에서 뛰는 마음이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소매입니다.

③ 겸손의 옷입니다. (구두)
구두를 신고 끈을 묶기 위해서는 숙여야 합니다. 구두를 신으면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④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혁대)
온유는 약해 보이지만 약하고 무능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meek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사람들은 meek는 weak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weak는 약한 것입니다.
온유는 약해 보이지만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워를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말이 자기의 힘을 절제하면서 기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리띠 혁대일 것입니다.
당시는 혁대를 사용해서 훈련도 시켰다고 합니다. 온유는 절제입니다.
혁대를 생각할 때마다 온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⑤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넥타이)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은 넥타이입니다. 넥타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종일 넥타이를 매고 돌아와서 넥타이를 벗으면 이제 일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 넥타이처럼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싶을 때 그러나 넥타이를 꼭 매시고 인내하고 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⑥ 용서의 옷입니다. (자켓)
셔츠를 입고 벨트를 매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넥타이를 다 맸습니다. 그렇다고 와이셔스 바람으로 밖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켓을 입어야 합니다. 자켓은 용서입니다. 자켓이 왜 용서일까?
용서는 밖에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자켓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나와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친 말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⑦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바 코트)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입어야 할 것은 사랑의 옷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션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옷은 무엇일까?
사랑은 오버 코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용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리고 자비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2.3. 감사로 자신을 두르라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5.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용서가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분노를 이길 수가 있고 감사가 고통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통을 감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고통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4. 말씀에 흠뻑 적셔지라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교회 근처에 유명한 온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파묵칼레라는 온천입니다.
온천 물속으로 들어갈 때 향수를 가지고 들어가 물속에서 미네랄과 향수를 온몸으로 흡수되는 것 그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도록 하라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한다면 미디어일 것입니다.
노래 방송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꼭 잠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가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네 번째가 부정적인 영향들인데 우리는 미디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것을 듣고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잘못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와 찬미와 예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① 정체성에 맞는 신분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십시오.
②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③ 감사로 자기의 분위기와 자기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④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내 정체성을 가집니다.

2월 12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7 : 사랑에 집중하라 (골3:18~4:1, 찬 220장)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삶 속에서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사랑에 집중하라” 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며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관계를 맺는 것에 중요한 요소이며 게임 체인지처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관계를 바람직하고 행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본 론

(요한복음 13장 / 개역개정)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앞에 나오는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고 율법은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선민사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주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기절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새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새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두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②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셨는데 또 다른 새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백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새로운 삶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중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사람으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받았다.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폭력으로 대항했던 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즉 현대적 개념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1.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인 우리 교회 그 몸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집과 가정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집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이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집이 없어도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가정들이 세상에 참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람직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네 가정에 마치 다리와 같은 대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있는 의자와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는 가정의 네 가지 역할입니다.
오래전에는 네 발을 가진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불안전한 세 발 의자처럼 가정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40%가 세 발의 의자와 같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도 이렇다면 불안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불안정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세 발 의자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서서 굳건하게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한다면 정말 좋지만 불안하다면 누가 도와야 할까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책임지고 도와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들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가정들은 지금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의 관계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의 권위가 지배적인 통치하는 권위였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물건 취급하고 무시하고 종처럼 취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1.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먼저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첫째, 아내와 남편은 서로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서로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야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 될 사람에게 내가 완벽한 남편이 될 거야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자기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결혼 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고 협상이 벌어집니다.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① 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를 대상으로 연설하고 무언가 글을 쓰고 공개적으로 뭔가 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철학자들도 아내에게 직접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이렇게 훈련시키시오 아내를 이렇게 하게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세요. 다시 말해 남편을 통해서 말해야 하는데 아내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복종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복종하라는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submit이고 헬라어 휘포탓세스테 (ὑποτάσσεσθε)로 자발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정돈하는 것 즉 자발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만나 주석 참고>
인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의 순종입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 개역개정)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합니다.
아내에게 아내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혁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Tip 로마시대 당시 두 사람의 연설

◆ 데모스테네스
“우리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합법적으로 후손을 우리에게 낳아주고 가정을 운영할 아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창녀가 있고 첩이 있습니다.”

◆ **로마 작가 카트**
“로마 남편은 아내를 죽일 수 있어 죽이는 것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내가 이 요구를 들어줄 때 아내가 내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경기가 벌어진다면 경쟁으로 서로 복종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2.2.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둘째,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이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일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위선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 비판의식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노엽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엽게 되면 낙심하고 낙심하면 실망하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낙심할 상태가 되면 자녀들은 내 하나님도 저런가보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며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든 자녀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프고 또 부모들이 아픕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상처 입은 부모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녀들이 가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라
종과 상전들(고용인과 고용주)은 자신이 누구를 섬기시는지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이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노예는 미국의 흑인 노예처럼 부리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 40% 정도가 노예였고 노예 교수, 노예 의사, 노예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같이 예배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들(고용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울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어려움들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과 상전들은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 생각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 마무리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척력이 강력한 세제로 더럽던 카펫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데 정작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2월 19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8 : 복음전파에 집중하라 (골4:2~6. 찬 497장)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전파에 집중하라 입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튀르기예(터키) 서남쪽 해안에 있는 도시로 에베소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① 1장과 2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 Plus가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② 3장과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한 사람은 변화한다고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종교와 세상과의 관계는 극단적인 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역사에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한쪽 끝은 싱크로티즘 (Syncretis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융합이고 통합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양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쪽 끝은 섹테리아즘(Sectarianism)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극단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고, In the worl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Out the world(세상 밖)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닌 존재 그렇다면 타협하지 않고 담을 쌓지도 않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Impact를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Impact는 우리 세광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참고>
I : Instructing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M : Mobilizing for Ministry
사역합니다.
P : Praying with Faith
기도합니다.
A : Adoring God in Worship
예배합니다.
C : Caring Community
돌봅니다.
T : Telling Others the Gospel
복음을 전합니다.

❍ 본 론

1.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 운동을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의를 세우

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 골로새 도시 문제

골로새와 인접해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좀 멀리 떨어진 에베소가 있었는데 상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
그런데 도시 계획이 생기면서 골로새를 제외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를 연결하는 도로가 생기면서 모든 무역에서 골로새는 폐쇄하게 되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살길을 찾아보라 편지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고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해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 Tip : FOMO Generation (포모 세대)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고립 공포감으로 마케팅 용어였으나 사회병리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로도 사용된다. 놓칠 것 같은 것에 대한 조바심,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것에 두려움 등을 말합니다.
Fear Of Missing Out Generation이라고 다음 세대를 포모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Missing Out, 잃어버린 세대 다음 세대는 매우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1. 내부 안으로 향하는 기도

첫째, 내부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안을 향하여 내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에는 기도에 헌신하고 전념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 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 **Tip : 아빠 스웨터 예화**
엄마의 스웨터를 입고 아버지 스웨터를 입은 것으로 착각하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했다는 아들이야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깊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엄마 옷을 입고 아빠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까요?

① 내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회 일원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 옷을 입고 아빠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② 또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등 중요한 위치와 지위의 사역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엄마 옷을 입고 아빠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고 있는가?
대표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모든 요소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요소들을 포함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시간도 안배하여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아직 제대로 못 하는 어린아이와 아빠의 관계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아빠는 아이의 생각을 알고 더듬더듬 꼬불꼬불 글씨에도 아빠는 그것을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1.2. 위를 향하여 기도하라

둘째, 위를 향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위를 향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배가 파손되어 침몰 직전인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들의 삶의 맛을 바꾸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하시지 않은 일에 감사하면 그것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1.3. 밖을 향하여 기도하라

밖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면한 삶의 문제(감옥에 투옥) 해결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문이 열리는지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사도행전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열린 문 찾는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 전도의 문 ⇨ 세계사의 역사가 바뀌다.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음을 발견했다.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언제? 열린 문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① 감옥에서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②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일 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③ 사도 바울은 왕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때 최고 엘리트 군인들이 감시했고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엘리트 군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막혔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 행동하라

골로새서 4장 5절 (쉬운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담을 쌓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데 세월을 이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회를 최대로 잘 활용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가 오는 것을 감지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3. 말하라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 번째,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도 있고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말은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 개역개정)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Tip : 그루스 두루미 예화 (검은 목 두루미)**

그루스 두루미는 튀르기예(터키) 토로스(Toros)산맥에 주로 서식하는데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그런데 날아가면서 매우 시끄럽게 말을 하면서 날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검은 독수리들에게 잡아 먹힙니다.
그래서 노련한 두루미들은 입에 돌멩이를 가득 채워 물고 소리(말)를 내지 않도록 하고 난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은혜 가운데서”는 은혜로 가득 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미가 돌을 물고 날듯 우리의 말에는 은혜가 가득 차야 합니다. 은혜가 가득 차지 않을 때 분노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의 말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판단과 비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찬 말을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 때도 소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을 적당량을 살살 뿌리면서 맛을 내야 하는데 과도하게 많은 양을 쏟아부으면 짜서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초콜릿이 달콤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미로운 말, 하나님의 음성들 이것이 흘러 퍼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 개역개정)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 마무리

골로새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랍니다.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골로새서의 결론입니다.

☞ Tip : 세 의자의 비유

가운데 의자 : 내가 앉는 의자
우편 의자 : 내가 여기 있게 한 분의 의자
좌편 의자 : 내가 전해서 앉게 할 사람의 의자

오늘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있게 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우편 의자의 그 사람은 부모님일 수도 친구일 수도 교사일 수도 사람마다 다양한 경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좌편 의자에 앉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좌편 의자에 앉게 해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우리가 먼저 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편 의자의 사람을 기억하고 이제 비어 있는 좌편 의자에 앉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월 26일 주일

❑ 다시 집중하라 Re-Focus 9 : 동역자에 집중하라 (골4:7~18. 찬 434장)

❍ 시작하며

다시 집중하라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동역자(친구)에게 집중하라 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 외에 벤치에 있는 감독 코치 그리고 교대 선수를 포함하여 팀을 이루고 그 팀이 활성화되고 그 팀이 강력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팀들이 누구였는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룸에 있어서 나 혼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가 우리들 곁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많은 이름 중 대표적으로 6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현대는 소셜 미디어가 발전되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진짜 친구는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동역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 본 론

1. 도와주는 동역자(친구) : 두기고 ⇨ 항상 거기에 있는 친구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유형은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도움 주는 친구, 항상 거기에 있는 친구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다섯 번 정도 등장합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 기록#1 사도행전 20장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데살로니기아 지역 교회 중 몇 교회가 예루살렘에 성금을 모아 보내기로 하고 모금한 헌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일곱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돈을 맡길만큼 믿을만한 사람이었다.

◆ 기록#2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 듣고 편지를 써서 두기고편에 보낸 것입니다.
그 거리는 무려 1300km가 되는 멀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 기록#3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두기고에 맡겨 전달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 두루마리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와 에베소로 간 사람입니다.
힘든 여정을 다 감당해 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신뢰를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 기록#4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은 사기꾼에다 악한 지역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섬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디도는 나에게 보내고 두기고 네가 좀 책임을 맡아 사역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 기록#5 디모데후서 4장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냅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일을 좀해야 하는데 주위를 돌어보면 두기고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친구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헌신적인 도움을 주는 동역자 친구가 두기고였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한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돕는 일이나 하지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두기고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했고 중요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룩했던 제국은 사라졌고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갔던 교회는 다 없어졌지만 두기고가 배달했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레몬서는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며 그것이 교회를 세웠고 변화시켰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한 가운데 두기고가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고 서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작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약한 동역자(친구) : 오네시모 ⇨ 짐이 되는 친구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두 번째, 약한 친구 도와야 할 친구입니다.
우리는 통상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요. 나를 도와줄 친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친구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 **Tip :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인 중의 한 사람인 빌레몬의 노예였다. 그런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로마까지 갔고 사도 바울을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처형당하는 것이 관례였고 처형도 십자가 형같은 무서운 처형을 당했다.♥

이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한 친구이니 나와 같이 동역하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야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 즉 빌레몬서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엄청난 권위로 하지 않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입장 즉 나이도 많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읍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동역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 빌레몬의 조치와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은 없으나 초대 기독교 역사에 오네시모 이름이 나옵니다.

☞ **Tip : 초대 교부 익나티우스(사도 요한의 제자)의 편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초대 교부였고 큰 지도자였던 익나티우스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전해진다.
“그 이후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자 당신의 목사인 오네시모의 인격으로 당신의 온 회중을 공식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했습니다.”
공식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 담임목사였던 오네시모의 인격과 신앙을 보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도망갔던 오네시모,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모 이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 자비로운 동역자(친구) : 아리스다고 ⇨ 어려운 순간 함께 하는 친구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세 번째, 자비로운 친구입니다.
동정심이 많은 친구로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해 설명이 별로 없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혔습니다. 아마 무죄하지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면서 다른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울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실패의 감옥, 육신의 질병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런 감옥 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옆에 아리스다고같은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설교를 잘했다는 말도 없고 두기고처럼 심부름을 잘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함께 있었던 친구입니다. 바로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잠언 17장 / 개역개정)
17.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나는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항상 아리스다고처럼 곁에 있을께 이런 귀한 친구가 성경에 나타난 동역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동역자입니다.

4. 회복된 동역자(친구) : 마가 ⇨ 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친구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번째, 회복된 친구입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친구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마가가 등장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 **Tip : 사도 바울과 마가**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함께 시작했는데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처음에 동행했다.
(마가는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어 밤빌리아에서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때 돌아봤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다.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다시 동행하고자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서로 심히 다투어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전도여행을 하게 된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블로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여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악연이 있던 사이였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마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가가 회복되었습니다. 마가가 회복되도록 도와준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회복된 베드로 그가 마가를 다시 일으켜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 개역개정)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골로새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쓸 때 분명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썼다고 믿어집니다. 이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마가처럼 일어나라 일어나서 달려가라 그렇다며 너를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5. 기도하는 동역자(친구) : 에바브라 ⇨ 나의 필요를 기억하는 친구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다섯 번째,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기도하는 친구가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그는 아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에바브라는 1300km나 떨어진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갔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애써 기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써는 fight로 고민하고 싸우고 또 싸우는 기도하면서 싸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기도의 전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6. 격려하는 동역자(친구) : 누가 ⇨ 성공하도록 돕는 친구

(골로새서 4장 / 개역개정)
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섯 번째, 영감을 주는 친구, 성공하도록 돕는 친구입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눈을 돌봐주고 치료했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 버금가는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 13권을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지만, 전체 신약 성경의 분량 비중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23%, 누가가 27%라고 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을 앞세우며 바울의 성공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 마무리

여섯 종류의 친구를 살펴봤습니다.
① 도움을 주는 친구 (두기고 style)
② 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친구 (오네시모 style)
③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 친구 (아리스다고 style)
④ 회복된 친구 그리고 회복되고 있는 친구 (마가 style)
⑤ 기도하는 친구 (에바브라 style)
⑥ 성공하도록 나에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친구 (누가 style)

이와같은 여섯 종류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친구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전폭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곁에 있게 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의 그 팀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 곁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없을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세광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때때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유명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칭찬합시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 개역개정)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역자, 완벽한 동반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됩니다. 여섯 사람 친구의 특징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참된 친구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1장 시작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끝났읍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 개역개정)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시작한 삶 은혜로 끝내는 삶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3월 5일 주일

❑ Re-십자가 1 : 은혜의 말씀 (눅23:33~34, 요19:25~27. 찬 439장)

❍ 시작하며

지난 주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 Tip : 미국 캘리포니아 신문에 실린 보물 발견 기사

2014년 부활주일 시즌에 발견한 행운
노부부가 넓은 부지의 집에서 매일같이 산책하다 나무 곁에 침식되어 다 삭은 깡통을 하나 발견했다.

깡통 속에는 금화가 가득 차 있었고 그런데 깡통이 5개나 더 있었다. <그림 참고>
그 동전은 1800년대에 지폐가 불법이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주조되어 150년 정도 그 땅에 묻혀 있었던 귀한 보물이었다.
5불 10불 20불짜리 동전으로 액면가 27,000불 한화 3500만원 정도 되었으나 전문가들은 13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신문에 실린 뒤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집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보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의 황금 맥과 같은 곳입니다.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곁을 많은 사람이 150년 동안 지나갔지만,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알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은 너무나 친숙하게 귀한 보배가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위로 지나다니기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50년 동안 거기에 금화가 묻혀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다녔던 것처럼 매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지나갑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그 보배 위를 그냥 지나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보화를 파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기억하면서 황금보다 더 귀한 보배를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배가 터지도록 힘들게 만드는 형틀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 보석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②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23:43)
③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19:26~27)
④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27:46)
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19:28)
⑥ 다 이루었다 (요19:30)
⑦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23:46)

이 중 세 마디 말씀을 살펴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사람들은 마지막 말 유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 **Tip : 유명인사의 마지막 말**

① 시저 : 부르투수 너마저
② 도미니크(문법학자) : I'm about to die와 I'm going to die는 서로 차이가 없다.
③ 콘래드 힐튼(호텔 왕) : 얘들아, 샤워할 때는 샤워 커튼을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밖으로 튄다.
④ 아이젠하워(미국 대통령) : 나는 언제나 내 아내를 사랑했다. 내 아들들을

그리고 내 손자들을 그리고 내 조국을 사랑했다. 이제 나는 간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죽으면서 남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본 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용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 요한을 보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1. 용서의 은혜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는 몇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①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기도하실 것은 그때로부터 700여년 전에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 개역개정)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똑같은 모습을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사실 십자가 형벌은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두 행악자와 함께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찔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700년 전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②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눅3:21)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③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들을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저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 개역개정)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용서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 개역개정)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전혀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2천 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저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겠지요. 그러나 그들뿐 아닙니다.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불과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종교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성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 개역개정)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 개역개정)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2천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돌보심의 은혜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두 번째,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 여자 4명 :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머니에게 ‘보소서’,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NIV)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saw로 번역되어 나오고, 다른 두 번의 보소서와 보라는 behold로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그리고 나머지는 ‘이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데’도 ‘호라오’에서 유례<만나 주석>

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보시고는 ‘호라오’라는 단어로 관찰하다 분별하다 의식하다 그리고 경험하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세 번이나 말씀하신 의미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시고 경험하시고 구별하면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이 절정에 다다라 보는 것은 고사하고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신 것입니다.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내 고통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통 한 가운데 있느냐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니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습니다.

② 두 번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어법상 굉장히 큰 존경과 존경을 담은 공식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절망과 절망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을 보세요. 지금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3. 회복의 은혜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 번째, 이제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네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 패밀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패밀리는 인적 관계가 제일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있고, 조금 넓은 의미의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먼저는 혈육의 관계,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영적인 한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라 네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족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굉장히 요한에게는 컸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이 시작되자마자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가 요한은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요한이 걱정이 있었다면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군인들한테 잡히면 어떡할까?
하나는 예수님에게 욕먹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돌봤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60년경에 대부분 쓰여졌지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만 늦게 기록됩니다. 아마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봉양하느라 시간이 없다 마리아가 소천한 후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제 십자가 가까이 와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갈 때 십자가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께서 더 빨리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마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보물 중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가상칠언(架上七言)을 남기셨습니다. 이 중 세 마디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님을 집중해서 보시고 돌보셨습니다. 고통 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고통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이 시작되자 모두 뿔뿔이 도망갔고 요한도 마찬가지였는데 요한은 십자가 곁에 돌아왔습니다.
그 요한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고 늦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3월 12일 주일

❑ Re-십자가 2 : 약속의 말씀 (눅23:39~43, 찬 258장)

❍ 시작하며

다시 십자가에 집중합시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은혜의 세 마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Dying well (잘 죽는 것)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실한 교회 일꾼이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초대하셔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 갈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실 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충분할까요?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할까요?
내가 더 충성해야 할까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

는 문제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 한 사람도 임종을 앞둔 그분이 했던 말을 하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더 해야 할까요?
충분한가요? 무엇인가 부족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본 론

1. 세 십자가

본문의 배경은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두 개의 또 다른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개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 개역개정)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무장 강도라는 헬라어 '레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 **레스타스** : 강도, 노상강도, 산적, 혁명가로 신약성경에 15회 나옴 <만나주석>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강도들이었는데 소매치기 정도가 아니라 악행을 저지른 강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카쿠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 **카쿠르고스** : 잘못을 행하는 자, 범죄인, 악인, 악한으로 신약성경에 4번 나옴 <만나주석>

아주 나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 개역개정)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비웃는데 이 두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다 함께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한 강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180도 그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왜 차이가 날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쓰도록 자료를 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가에게 베드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해 주고 마태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봤지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 군중들과 큰 소리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 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는 그 장면을 봤고 그것만 전해주었고 그래서 그것만 썼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기록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 마리아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개인적인 경험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베드로가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 곁에서 대화를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하신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곳 예수님 발밑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강도들이 나눈 이야기를(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 들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누가에게 전해주어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 양 곁에 있는 십자가는 완전히 서로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한편 십자가는 멸망의 또는 절망의 거절의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한 정확한 번역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명해 봐라!
우리와 너를 구원하는 것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 이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편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여기에서 좀 구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로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한편 강도의 입장이었고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차 트렁크 아래 있는 카 작키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어 쓰고 평상시는 귀찮고 보관하기 힘든 존재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2. 구원받은 한 강도가 알았던 것

이렇게 주님을 욕하다가 180도로 변한 한 편의 강도와 또 다른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번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 죽는 그 순간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나쁜 짓만 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

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알았던 것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2.1.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이 강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말이 덧붙여서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피하거나 면제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일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두려워했습니다.

2.2.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

두 번째, 이 강도가 알았던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일 악한 일이었고 죄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해왔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보응을 받을 거야 이 말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되기 위해 죄를 몇 가지나 지어야 할까요? 죄를 하나만 지어도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상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밖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3. 예수님은 다르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1. ~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세 번째, 그가 알았던 것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거룩하다. 이 사람은 완벽하다.
지금 이 강도가 말하는 것은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중한 죄를 짓지는 않은 분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날 하신 말씀만 듣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알려졌는지는 예수님이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호산나 찬양을 외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자료를 보면 100만 명 이상 200만 명까지도 모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분이다. 이 강도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순간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2. 이르되 예수여 ~ 나를 기억하소서 ~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의 강도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야 하는데 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느냐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강도만 이 단어 remember me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사용한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단어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마다 remember me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 잃고 눈이 뽑힌 채로 연자멧돌을 돌릴 때 remember me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세요. 이것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삿 16:28)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remember me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삼상 1:11)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실제로 그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있고 금방 죽을 겁니다. 기회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한 편 강도의 고백이었고 주님께서 이 고백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기도는 단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그 예언의 말씀 그 비밀을 모르면 천국 못 가, 방언을 못 하면 천국 못 가 등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2.5. 예수님은 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

다섯 번째, 그가 알았던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강도의 고백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가 있었는데 그 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의미에서 기록했지만, 사실은 모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 강도가 볼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그분이 왕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분이 왕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십자가 그 곁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절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천국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십자가는 같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한 사람은 거절했고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다른 한편 강도처럼 증거를 보여봐 증명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편을 택했습니다.

3.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 눅2343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은 그 강도에게 있어 확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의 말씀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첫 번째, 확실하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있으리라~”**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오늘~”**
세 번째, 관계입니다. **“~나와 함께~”**
네 번째, 천국은 장소입니다. **“~낙원에~”**

❍ 마무리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천국 예약번호 잘 가지고 계십시오.
눅2343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룩한 분인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내가 그분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신데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확실하고 즉각적이며 주님과 관계이고 이제 우리가 갈 장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월 19일 주일

❑ Re-십자가 3 : 고통의 말씀 (막15:33~36, 요19:28~30, 찬 146장)

❍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고통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드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모루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3부작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3편 24편입니다.
이 중 22편은 이 고통의 메시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 본 론

1. 시 22편(1000 B.C.)과 예수님의 십자가(33 A.D.) 비교

먼저 시편 22편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 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천 년 전에 십자가 처형제도가 있지도 않은 시대에 다윗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

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은 십자가에 무기력한 한 죄수가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순한 양 같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은 다윗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문제와 위기가 많았지만 늘 적절하게 대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나온 이 어떤 한 사람 이야기는 다윗과 별로 관계가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시 시편은 1절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2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목만 들어도 22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 시편 22편이 생각났을 것이고 시편 22편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과 목적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같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시편 22편과 7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과 십자가 상황)

1.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 개역개정)
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

(마가복음 15장 / 개역개정)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시편 22편 / 개역개정)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십자가형 주변에는 들개와 독수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시신이 그것들로 인해 훼손되어 온전하게 발굴된 시신이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1.3. 머리를 흔들며~

(시편 22편 / 개역개정)
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 개역개정)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시편에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마태복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구원하실 것, 이처럼 똑같은 단어와 문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 목마르다.

(시편 22편 / 개역개정)
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은 갈증으로 입이 질그릇처럼 말라버렸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라며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시편에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 개역개정)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 개역개정)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1.6.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시편 22편 / 개역개정)
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시편 22편의 내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심장이 물같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려 심장이 터졌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럼, 시편 22편은 어떻게 이처럼 십자가 옆에서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 25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 개역개정)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

황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 다 이루었다.

(시편 22편 / 개역개정)
31.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It is finished <Amplified Bible>)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It is finished)

시편 22편 31절 “행하셨다.”라는 It is finished로 번역하여 “다 이루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It is finished와 똑같습니다.

2.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럼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2.1.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하신 세부 사항이 너무너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의미가 다 부서져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32번 이상 나오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확률을 계산해 보니 84에 9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확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 그 이전에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2.2.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디어 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겨내셨을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는 100퍼센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100퍼센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처럼 아프고 괴롭고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이 우리를 위한 고통으로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고통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런 아픔을 견뎌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 모든 죄는 다 비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3. 십자가 고통은 끝이 아니다. 놀라운 것이 기다린다.

세 번째, 십자가의 고통, 형벌이 끝이 아니고 놀라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듣는 순간 시편 22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처음 시작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중간쯤 가서 변

합니다. 분위기와 방향이 변화고 마지막쯤 가면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배부르며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족속이 다 그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22편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이며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을 떠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3. 내가 목마르다.

3.1.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첫 번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고통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요한이 공관복음을 보고 보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과 예수님이 생수 되심과 예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요한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퍼센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원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 자원이 무엇인가?
우리도 가진 자원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이기게 하신 그 힘은 기도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는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참고 이길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 떨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힘들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3.2. 나는 주님께 물을 드리는가?

(요한복음 4장 / 개역개정)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번째, 나는 주님께 물을 드리는가?

☞ **Tip : 요한복음에 나타난 생수 이야기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해답이 남편이라 생각하고 다섯 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증과 욕망은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 개역개정)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로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성전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생명의 근원이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 물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멈추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의 뜻입니다.♥

그럼, 나는 주님께 물을 드리는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음료수를 드렸습니다. <요19:29 참조>
이것은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드렸을까요.
혹시 이젠 지난 과거이니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 개역개정)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모스 8장 / 개역개정)
1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어린 소자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 물을 드려야 합니다.

3.3. 나는 주님으로부터 물을 받는가?

(이사야 55장 / 개역개정)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 번째, 나는 주님으로부터 물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갈증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에게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목마름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수를 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말씀을 두 번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구약을 통해 수없이 많이 예언하였으며 그 예언이 성취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끝이 아니고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목마른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3월 26일 주일

❑ Re-십자가 4 : 승리의 말씀 (요19:28~30, 눅23:44~47, 찬 146장)

❍ 시작하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일곱마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①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② 마리아를 돌보시는 말씀과 요한의 회복의 말씀을 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다"

◆ 약속의 말씀

③ 강도(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고통의 말씀

④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⑤ "목마르다"

◆ 승리의 말씀

⑥ "다 이루었다."

⑦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 Tip : Do와 Done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한 말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Q :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A : Do와 Done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하고 해야 할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Do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 했다. Done입니다. 끝났다. 완성 시켰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 본 론

1.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 개역개정)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완성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끝났다” “너는 끝났어”라는 말은 모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는” 끝났다. 라고 하지 않고 It is finished 즉, 그것이 끝났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1. 예수님의 사역(사명)이 끝났다.

(요한복음 4장 / 개역개정)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첫째,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마지막 결승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양식이 그에게 들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생명을 얻게 하고, 힘을 더 얻게 하며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사명은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고, 생명력이 없어 탈진했을 때 이것만 생각하면 양식이 공급되는 것처럼 힘이 생겨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일은 이미 예언된 그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성취는 우리로 의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열심히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한 사람 등이 아니라 단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급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는 이것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1.2.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 당하는 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도록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동원된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완벽하지 못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인데 at one ment의 합성어입니다. one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가 되는 것이 속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 개역개정)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매번 반복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3. 적용

(요한복음 6장 / 개역개정)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다 이루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힘들지만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갚는 의미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보람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2.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Tip : 성전의 휘장

성전의 휘장은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지성소를 막는 휘장인데 가로와 세로 5미터, 두께는 10cm가 넘었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천지가 3시간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어두움이지만 심리적, 영적인 어두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두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덧붙이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의 배경과 분위기는 어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셨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① 아버지 ② 손 ③ 부탁하나이다 ④ 내 영혼을 이 네 마디 말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2.1. 아버지 : 나는 아버지가 있다.

첫째,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2.2. 손 : 아버지는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다.

둘째, 하늘의 아버지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손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 개역개정)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 자체입니다.

(이사야 49장 / 개역개정)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사랑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항상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못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 개역개정)
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가 도망간다 해도 우리는 그 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 부탁하나이다 : 아버지는 우리가 의탁한 것을 지킬 수 있다.

셋째, 부탁한다는 영어 commit 헌신한다는 단어로 자칫 내가 하나님께 무언인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완전히 반대의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의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의사에게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탁합니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 개역개정)
12.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의탁했습니까?

2.4. 내 영혼을 :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

넷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5. 적용

우리의 모든 것들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 내 손에 부탁하라 말씀하십니다.

❍ 마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은
① 예수님의 사명을 끝마친 것입니다.
②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②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③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의탁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④ 내 영혼을 맡길 때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4월 2일 주일

❑ Re-십자가 : 종려주일에 답해야 할 질문 (요12:12~16, 찬 141장)

○ 시작하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호하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그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 본 론

1. 예루살렘 입성

먼저 종려주일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봅니다.
생각해야 할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 개역개정)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큰 무리, 명절(유월절), 종려나무 가지, 어린 나귀입니다.

1.1. 큰 무리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속으로 나왔습니다.
큰 무리는 얼마나 될까?
역사적 사건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 Tip : 역사적 기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5년 전 유월절에 양 20만 마리를 희생 제물로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양은 12사람당 한 마리 정도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 모인 사람은 240만 명 정도 된다.♥

이 역사의 기록으로 추정해 보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과 근처에 사는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였답니다. 그렇다며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왔다는 사실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큰 무리는 100만이 훨씬 넘고 2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2. 명절

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해방일입니다.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 Tip : 유월절 유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유월절을 정하시고 그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 문 가로와 세로 기둥에 발라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즉 유월하게 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여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 오고 있었다.♥

유월절은 해방의 날입니다. 그날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해방을 주세요. 독립을 주세요. 이런 염원을 이 명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1.3. 종려나무 가지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
유대민족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큰 의미가 있는데 마치 국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200년 전에 일어났던 유다 마카비 혁명과 비교가 됩니다.

☛ Tip : 유다 마카비 혁명

BC 164년 유다 마카비가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리아군과 싸워 승리했고 독립을 이루게 된다.
그때 유다 마카비가 승전 후 유대인들과 함께 사용할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그림이 종려나무 그림이었다.
<그림 위>♥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이들에게는 국기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 잠시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도 또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세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를 인용하여 환호를 질렀습니다.

1.4. 어린 나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200년 전 유다 마카비는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 개역개정)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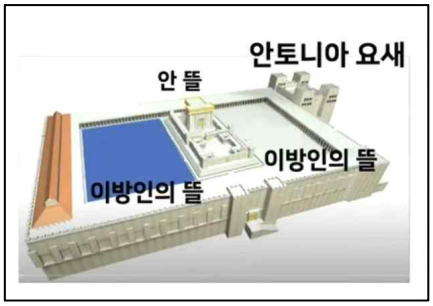
2. 그 후에 일어난 일

(마태복음 21장 / 개역개정)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모든 사실을 다 합한다면 유월절 날 수백만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 전 유다 마카비 혁명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2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시리아군과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로마군과 싸워서 로마군을 물리쳐 자신들의 왕이 되어 해방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마카비와 마찬가지로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마카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갈릴리 출신이고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경우라면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이방인의 뜰로 가셨습니다. <그림 참조>



당시 이방인의 뜰에는 장사꾼과 환전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 Tip : 이방인의 뜰에 무슨 일이?

◆ 장사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희생할 짐승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으로는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검사관이 사전에 검사했는데 고의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하고 자신들이 준비해 두었던 흠이 없는 제물을 비싼 가격에 매매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 환전상
멀리 있는 사람은 짐승을 가져오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돈으로 가져와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구매했다. 그런데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불결한 화폐로 여겼기에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어 정결한 화폐로 환전해서 제물을 사야 했다.
이때 환전 비율이 엄청 비쌌다고 한다.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은 교회 관계자 즉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 뒤집어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상황이 뒤따르던 사람들의 예상과는 완전 다르게 전개되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몹시 불쾌해졌을 겁니다. 이방인을 쫓아내고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쫓아내기는커녕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종교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할 때 모습은 헤롯과 로마 당국이 봤을 때는 반역의 무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군중들 입장에선 큰일이 난 것입니다.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고 자기들은 반역자로 낙인찍힌 상태로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자신들의 무제를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 개역개정)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해방해 왕이 되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불과 5일도 되지 않아 정반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의외로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3. 종려주일 세 가지 교훈

3.1. 예수님은 쉽게 깨닫기 힘들다.

(요한복음 12장 / 개역개정)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

첫째, 예수님은 쉽게 깨닫기 힘듭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주님 왜 저렇게 하시지? 끊임없이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장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뜻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기 때문입니다.

3.2.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12장 / 개역개정)

16.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둘째,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과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하시려고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들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신비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거라 믿고 따랐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실패라며 좌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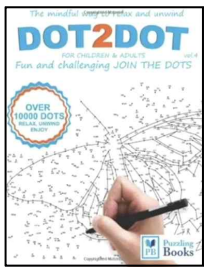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날이 유월절 희생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선택된 양은 그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잡힙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희생양으로 선택되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뿐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실패가 되풀이되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3.3. 우리는 큰 그림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7장 / 개역개정)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셋째, 주님의 계획은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종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 상상 못했던 그림이 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연결할 때는 그것이 무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다음 일을 하시면서 연결하게 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연결해 보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점들이 내가 원하는 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점인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때때로 천년 후로 하나님의 계획이 옮겨집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의 관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도 못사는 우리의 관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큰 그림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봤던 그 종려주일 날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천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2천 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곳에서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주일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7장 13~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 마무리

1. 질문 :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종려주일 모습은 같은 요한이 봤습니다.
종려주일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던 사람과 천성에서 종려주일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했지만 따르지는 않던 사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려주일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직 그 사이에 있다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 믿음의 세 단계

제자가 되는데 세 단계 정도를 거쳐 간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종려나무 가지 단계입니다.
흥분의 단계로 기쁨과 환호성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단계입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구원해 주세요.
내 방법으로 복을 주세요.
내 일정에 맞추어 주세요.
이 단계 사람은 기도에 즉각 응답이 없거나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오면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둘째, 십자가의 단계로 절망의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더 아프게 하시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며 혼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셋째, 빈 무덤의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월 9일 주일

❑ Re-십자가 6 : 부활주일에 답해야 할 질문 (요20:11~18, 찬 171장)

○ 시작하며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시간표>
①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고 기도하셨다.
② 금요일 새벽 1시쯤 예수님 체포되심
③ 새벽 2시경 가야바 집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3시쯤 사형 선고받으심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집행은 로마에 있었음)
④ 예수님은 로마 총독 앞에 재판
⑤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심
⑥ 12시쯤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짐
⑦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심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장례를 급히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되시고 밤낮 사흘을 그곳에 계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인들은 무덤을 큰 돌로 막아 인봉하고 16명의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던 사람이고, 부활하실 때 최초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믿었지만 돌아갔던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질문인데 오늘 마리아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 본 론

1. 어찌하여 우느냐? : 슬픔

(시편 30편 / 개역개정)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첫 번째 질문,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제일 금기해야 할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협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

문에도 마리아는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진짜 왜 슬퍼하는지가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질문은 “왜”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여자여”라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슬퍼하는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리아의 문제 속으로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Simpatty라는 영어 단어로 sim(같다)과 pathos(마음)의 합성어로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환자들을 고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병환자를 만지면 똑같이 부정하게 됨에도 나병환자를 고치실 때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마음의 아픔을 다 안다. 이것이 예수님 행동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말을 합니다. 동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 묻히셨고 동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동산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죽음의 시작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에덴동산이지요. 죄의 문제가 동산에서 시작했으니 동산에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을 하실까?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

을 부르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대답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다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고 슬픔이 하나님의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많습니다.

☛ Tip : 스패포드 (1828~1888)의 찬송가 413장 이야기

성공한 뉴욕의 변호사로 무디 목사 복음 운동이 함께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온 가정이 프랑스로 여행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일이 생겨 아내와 딸만 먼저 보낸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하여 딸들은 죽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구조된다.
소식을 듣고 아내가 있는 프랑스로 가던 중 침몰한 지점에 왔을 때 선장이 당신 딸이 죽은 자리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때 선실로 들어가서 울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작사한 노래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슬픔이 너무커서 바다처럼 나에게 밀려오는구나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슬픔 괴로움 눈물이었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고통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공동묘지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슬픔 속에 울면서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것을 나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변화시켜 줄께 내 손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스패포드가 그 슬픔에서 “평안해”라고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

게 된 곳처럼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가 왜 슬프냐 왜 우느냐라고 묻는 주님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누구를 / 무엇을 찾느냐? : 찾음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으면 삽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투자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 Tip : 마리아와 예수님 몸무게 추정

남녀의 평균적인 몸무게를 고려하고 예수님 시신에 넣은 리트(몰약과 침향)의 양을 볼 때
마리아 55kg 정도의 몸무게로 예상
예수님 75kg 정도의 예수님 몸에 넣은 리트가 약 35kg를 합하면 110kg로 추정❤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업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왜 슬프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모두는 무언가 찾고 있습니다.
돈, 명예, 쾌락,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쑥 올라가 보니 내가 잘못된 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 늦은 순간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사다리를 더 올라갈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생각해 봅니다.

(잠언 14장 / 개역개정)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길 같지만,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 쉬운성경
42.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여 정신이 없으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투덜대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순탄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나기 전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고 무덤을 지켰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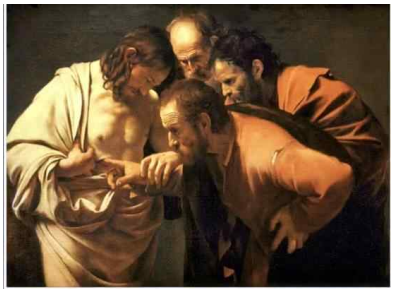
☛ Tip :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 옥합
성경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발을 닦았다는 내용은 기록상 5번 나오고 각각 다른 두 개의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우리를 다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건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한 사건으로 누가복음에 나오고,(한 번 나옴)
다른 한 사건은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나사로의 누이)가 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4번 나옴)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발을 닦았다는 기록은 없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후 시신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기록도 거짓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나가고 <눅8:2>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비밀 제자(?)로 추정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인물이다.
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오해하게 된 것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잘못 말한대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3.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느냐? : 결단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느냐? 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마리아는 “랍오니”하니 이는 선생이라고 번역했지만, master입니다. 선생으로도 번역되지만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주로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심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의심하면 도마처럼 예수님이 그 상처에다가 손을 넣게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넣고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넣어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도마와 마리아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관련 참고 말씀>
(마태복음 28장 / 개역개정)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 마무리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질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서 슬픔에 잠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사라지는 것이 진정 슬픔입니다.

①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없어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의 슬픔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② "무엇을 찾느냐?"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등 인생을 위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③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경배할 수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서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스패포드의 슬픔을 만지셔서 "평안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져 주실 것입니다.

4월 16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1 : 산을 옮기는 믿음 (마17:14~20, 찬 383장)

○ 시작하며

새 시리즈 믿음을 세우라 입니다.
첫 번째 시간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살아계심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사회나 세상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며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본 론

1. 삶의 두 가지 접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법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치 임팔라라는 동물과 같습니다.

☛ **Tip : 임팔라 특징**
임팔라는 3m 이상 높이 뛰고 10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동물이다. 그런데 동물원에 가두어 두면 1m가 채 되지 않는 담을 넘지 못하고 갇혀 산다고 한다. 그것은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뛸 수 없는 임팔라의 특징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발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난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그 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지 않고, 한 걸음을 걸어가지 않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뛰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들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삶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뛰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영적으로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로켓 전문가로 우주 시대 아버지로 불리는 폰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중요한 성취는 없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발전했고 세상은 발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월트 디지니와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상가, 망상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발전한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믿음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에 견고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감격적이고, exciting하고, 기쁨과 감사로 삶에 좋은 일만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삶은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 산을 옮기는 믿음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있습니다. 거대한 옮겨야 할 산이 있습니다. 큰 고통의 산, 아픔이 있는 산입니다. 질병,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어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산들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낙담인데 이런 우리들 곁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 개역개정)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것을 아시고, 부르시고, 마음을 열어 젖히고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겨자씨 한 알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 살아가면서 시도했는데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 개역개정)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뽑는 능력입니다.
산을 뽑아서 옮기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 개역개정)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 개역개정)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반복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뽑힐 것이고, 나무가 뽑힐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에 심길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 Tip : 산을 옮긴 사건, 헤로디움 산

2천 년 전 헤롯(B.C. 74~4)이 산이 없던 벌판에 산을 만들었습니다. 헤로디움이라는 산이다. 그곳에 궁전을 짓고 싶어 산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었다고 한다. 나중에 헤롯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치루었고 헤롯의 무덤이 되었다. 수십만 명의 노예들을 동원해서 산을 만들고 그 위에 10층 높이의 왕궁을 지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으로 유대 왕이 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졌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힘을 가지고 산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면 산을 만들 수 있고 헤로디움 산을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문학에서도 산을 움직이는 사람,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산을 뽑는 사람 영어로 rooter up of mountains 라고 표현합니다.
산을 뽑는 사람, 너는 산을 뽑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산을 뽑고 옮기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산을 옮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린이 장난과 같은 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헤롯 같은 힘과 권모술수를 가져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다. 헤롯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산을 옮길 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 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 아이는 절망 그 자체였다. 귀신이 들려 간질에 걸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다. 불과 물에 넘어져 화상을 입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 개역개정)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집은 가난했을 것이다. 불에 넘어졌다는 것은 난로가 아니라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부자들은 난로를 피웠기 때문입니다. 모닥불을 피웠다는 것은 가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가난했고, 병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몸에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다.
절망의 큰 산 때문에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뭐 좀 해주세요.
<마가복음 9장 22~24절 참고>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할 때 예 100% 믿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는 100%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심도 섞여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산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 개역개정)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의 일을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관계, 질병, 물질,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내가 그 산을 옮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큰 산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2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삶

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네 삶에도 똑같이 하기를 원한다.
절실한 믿음으로 왔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이 산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 가지 질문

2.1.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실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산을 옮기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목록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하는 예배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산을 옮기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드는 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의심과 함께 있는 믿음이고, 그러나 순종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가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 개역개정)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믿지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웬만하면 안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술 궂은 할아버지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 개역개정)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시면서 산을 옮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 개역개정)
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완벽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①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②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③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산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④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산을 옮기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징인 십자가를 소망과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 도구인데 지금 우리는 기쁨과 감사하게 목걸이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시고, 나와 상관없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큰 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산을 옮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들 주님께서 우리의 산을 옮기시면서 교환해 주십니다. 거룩한 교환입니다. Holy trade입니다. 우리의 산을 기쁨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잔을 옮겨주세요. 내 산을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2. 나의 잔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래 옮겨줄게, 네 산이 뭐냐고 물의십니다.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옮겨줘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한 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까?
어떤 질병입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우리 세광교회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에 견고히 세우는 큰 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절로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히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보다 더 왕성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산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산이고, 우리의 죄와 교만과 나쁜 습관들이 산입니다. 각자의 산이 무엇인지 규명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3.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산에 집중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계속 문제에만 집중하다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들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함께 있는 것 그러나 믿음을 향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 모아 한 걸음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면 충분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교회 안 나갈 것이다. 그러니 100%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100% 확신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 우리들의 삶에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원하시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 + 크신 하나님 = 산이 옮겨집니다. <카드 참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산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 **마무리**

결론을 각자가 정리해 보세요.^^

☛ **목사님의 당부**

오늘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생활의 현장에서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입니다.
sekwang1970@gmail.com입니다.
개인적인 이메일이고 담당교역자와 담임목사님만 볼 수 있습니다.
보내준 내용 중 필요할 경우 여러분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2 : 믿음이 삶의 기초입니다. (합2:4, 찬 342장)

○ 시작하며

믿음을 다시 세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세워질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왜 다시 세워야 할까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옳고 바른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도 없이 많은 사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은 지금 우리들만이 한 질문이 아니라 2600년쯤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쯤 전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대답하십니다.
해답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의로운 행위나 자기 노력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와 신약 성경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환경 다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에 관한 생각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① 세상이 말하는 믿음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라 너 자신에 관한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마치 믿음이 기관차의 엔진차처럼 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 무엇인가 성취해 가려는 것 그림으로 보는 저 기관차가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이 세상이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영화 Sounds of music의 주인공 마리아가 기타를 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나에게 확신이 있어요.

세상은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깊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강요하고 주지시키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무기력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모든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②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 Tip : 하박국서 이해

하박국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쯤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것으로 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유일한 특징이 있음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선지서다.
사람들의 생각 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특징이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고 죄가 많은 부패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불확실성 한가운데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했고 안전이 불확실해 성 밖에는 바벨론이 공격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embrace와 wrestl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껴안다 포옹한다는 뜻과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씨름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고 포옹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우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은 정말 불평을 있는 대로 다 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 본 론

1. 하박국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1.1.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첫 불평 (합1:1~4)

하나님은 계획을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에 빠졌고, 부패하며 죄가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1.1.1. 하나님의 응답 (합1:5~11)

이것이 계획이다. 그런데 그 계획은 네가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겠다. 그런데 그 벌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1.2.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 (합1:12~2.1)

나는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주시는데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벌을 주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2.1. 하나님의 응답 (합2:2~20)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놓고 뭐라고 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나를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2장에서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화 있을지어다”를 다섯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 하박국의 결론 (합3:1~19)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입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박국은 내가 이제 입 다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입니다. 특히 17~1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 하박국서 주제

(하박국 2장 / 개역개정)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 NLT 버전)
4.Look at the proud!
They trust in themselves, and their lives are crooked.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their faithfulness to God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입니다.
영어 성경 NLT 버전을 보면 교만한 사람을 보라고 말하면서
The trust in themselves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He righteous 의로운 사람은 will live 이렇게 살 것인데 by their faithfulness to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극명하게 다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또 한 사람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울림이 계속되어 600년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로 불리우던 바울은 본래 종교성과 도덕성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한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힘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 주고 의롭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 일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이며 도덕적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누구도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을 믿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여러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고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믿음은 삶의 기초다.

2.1.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3장 / 개역개정)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명령이요 도덕적 기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 정말 귀한 내용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좋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나요? 완벽하게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두 가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킬 때 그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큰 죄가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을 잘 못 지킬 때 점점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양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는 내가 정말 잘해! 하다가 언제는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힘으로 살고 있느냐? 네 힘으로 살지 말라 내가 이미 다 했다. 나를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내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믿음의 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은 조종사와 비행기를 100% 신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겨우 비행기에 올라탈 만큼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온 두 사람은 내내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00% 신뢰한 사람은 여유롭게 즐기며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신뢰가 부족했던 사람은 떨어질까 불안한 마음으로 즐기지 못하고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냥 비행기에 탈 만한 믿음, 천국에 갈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2.2.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

(로마서 1장 / 개역개정)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0년쯤 지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인용합니다.

마틴 루터는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수도사가 되었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항상 회개하며 살았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했다.
편안한 잠자리도 거부하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웃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수록 슬프고 우울증에 빠져 더 슬퍼졌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전에도 읽었는데 놀라운 구절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다음에 우리들의 노력과 죄를 고백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 수 있다라는 진리를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루터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완전히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 자체에 들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낙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3.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한다.

(히브리서 10장 / 개역개정)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셋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는 건 네가 알아서 견뎌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견디는 것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스러운 상황,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불평하며 부르짖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에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고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하박국이 질문한 그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연속극처럼 되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영화는 보기 싫으면 중간에 나가면 되지만 우리 삶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끝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것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 마무리

(하박국 3장 / 개역개정)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하박국의 입에서 터져 나온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을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기쁨을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나의 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하박국의 고백 중 “사슴과 같게 하사”에 대해 마지막 살펴봅니다.

☛ Tip : 아이백스 사슴 (그림)

하박국이 보았던 사슴은 다윗이 광야를 다니면서 보았던 그 사슴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보았던 사슴이다.
이 사슴의 특징은 앞발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뒷발이 그 자리를 착지하고 다시 앞발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해 간다고 한다.

(베드로전서 2장 / 개역개정)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영어 성경에는 his steps라고 합니다. 그의 뛰었던 그 자리를 따라오게 즉 우리는 예수님이 뛰었던 그것만 디디면 됩니다.
우리가 발이 4개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근데 4개에요. 다른 두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곳 그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4월 30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3 :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 (약4:13~17. 찬 430장)

○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들 속에 살아가며 계획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도 믿음으로 해야 함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14절은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에는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아주 완벽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시간(언제)과 장소와 기간 그리고 사업 아이템 등이 모두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계획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삶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삶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계획은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있는 계획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완벽해 보이는 이 계획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 본 론

이 문제는 네 가지 실수를 했는데 세 가지는 과대평가를 한 것이고, 한 가지는 간과한 것 즉 놓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1.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통제한다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래 계획을 잘 세웠는데 내일 일은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 우리들의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씨, 세상의 경제 흐름, 자녀들 문제, 주변 환경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고사하고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너는 이렇게 과대평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계획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을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 자신만 믿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큰소리를 치느냐며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 개역개정)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할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즉각 즉각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때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금방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필수요소라는 것입니다.

◆ 믿음의 결단 : 주님의 뜻(계획)을 기억하라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 내가 원했던 그 계획을 바꾸는 것,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 개역개정)
21.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고려한 사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에서도 신의 뜻을 찾습니다. "인샬라" 신의 뜻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 개역개정)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시고 또는 수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야고보서 1장 / 개역개정)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시편 119편 / 개역개정)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내 계획의 그 길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면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자신의 시간에 대한 과대평가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14. ~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들의 계획은 어떤 도시에 가서 일 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데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 믿음의 결단 : 인생의 예측할 수 없음과 짧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의 가치를 기억하라

인생이 이렇게 짧은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아주 짧은 인생,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인생은 Life인데 L과 E사이에 'if'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f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만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표현을 야고보서 어떤 번역에서는 '수증기'

시편 38편은 '바람'
베드로전서에서는 '풀'
시편 102편은 '그림자'

이것이 인생인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삶에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짧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절망과 두려움 속에 걱정하며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허비하거나 그냥 흘려보내거나 의미 없이 살지 말라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90편 / 개역개정)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며칠이나 살날이 남았는지 날수를 계산하게 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날 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의미 있게 살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짧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시간을 가치있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의미 없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 Tip :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한 예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매우 비싼 속옷이 포장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옷은 8년 전에 산 것으로 가장 특별한 날에 입겠다고 아껴두다 결국 입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고 본인의 장례식 때 입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교훈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것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 Tip : 실리콘 밸리 신드룸

일시적인 조건으로, 예를 들면 지금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야처럼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작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일이 영구적인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
즉 가족과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자 했는데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인생의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대답한다고 한다. 아마 돈을 더 열심히 벌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그 하고 싶은 것을 오늘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 개역개정)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귀한 날 오늘을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괴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주님의 이런 것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양식과 축복과 은혜와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3. 자신의 중요성 과대평가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16.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 번째,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 믿음의 결단 :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라

(잠언 29장 / 개역개정)
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지금 교만하면 나중에 낮아지고, 지금 겸손하면 나중에 영애를 얻으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겸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잠언 13장 / 개역개정)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한 거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전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간과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실수 즉 과대평가를 했다면 이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 Tip :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통상 말합니다. 그래서 commission 이라고 한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등
그런데 성경은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한다. mission이다. 따라서 그런 행동을 안 했기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 계획에 너무 심취하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은 대개 순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바빠서 그런 일들을 못 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선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 믿음의 결단 :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9장 / 개역개정)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뒤로하고 다른 것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 쉬운성경)
16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일들에 대한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미루었다면 나중에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 선한 일 오늘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에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 마무리

(히브리서 12장 / 메시지 성경)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그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경주를 시작하여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셨기에 심지어 십자가의 수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시켰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본받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본받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겠습니다.”에서 “오늘 하겠습니다.”로 바뀌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7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4 :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히11:8~12. 17~19, 찬 288장)

❍ 시작하며

믿음을 세우라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구와 수단이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은 역동적이고,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몸부림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망설여 지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인지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원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생

리도 끊겨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야 할 목표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어딘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철학은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의논해 보고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의심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너를 보호해 줄게, 축복받게 해줄게,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예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 본 론 :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

1. 믿음으로 나아가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시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 Tip : 갈대아 우르

4천 년쯤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 우르이다.
우르는 굉장히 문화와 경제, 과학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아름답게 꼽히던 수메르라는 곳의 수도가 우르였다. 우르에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지가렛이라는 건축물인데 너무 유명한 건축물이다.
당시에는 그림의 건축물 위에 한 8층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토마스 카일이라는 역사학자는 수메르의 수도였던 우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해도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정도다.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 도자기, 문자, 판화, 벽돌의 대량 생산, 최초의 법률 시스템, 최초의 변호사, 대규모 양조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그리고 시계 1년 12달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로 나눈 것이 바로 수메르 사람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과학도 문명도 발전했고 음악도 즐겼다. 1930년대에 4천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무덤에서 머리 장식품이 출토되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역에서 부자로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르에서 사용한 성형문자를 해독해 보면 우르 사람들의 생각이 우르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미개인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나기를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몰랐지만 한 발짝씩 나가는 삶 다시 말해 전체 여정을 다 모르지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 그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적인 관념으로 끝까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그런데 다 보여주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출발해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끝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신) 나이가 어려도 많아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도 모를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 믿음으로 머물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둘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것은 출발한 것이고 두 번째 한 것이 머물렀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출발하는 것은 때로 기대감에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출발한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감격스러운 삶이 계속 연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고난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삶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사형통의 삶이 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뭔가 기대를 가지면서 살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미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삶을 현재 위에 세우지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미래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현재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다.

(히브리서 11장 / 우리말 성경)
11.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다.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 힘든 순간들을 싸우면서 이기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우리와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세 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문제와 어떻게 씨름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아브라함의 세 아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아들은 둘이지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 종 중에서 내 아들을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① 엘리에셀 (창15:2~6) ⇨ 덜 좋은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종 중의 하나를 내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되었습니다. 제가 덜 좋은 것으로 이제 이만한 것으로, 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덜 좋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② 이스마엘 (창16:1~2) ⇨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실제는 장자임)
또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제안으로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고군분투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

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여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내가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한 지름길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급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③ 이삭 (창21:1~3, 5~6) ⇨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사실은 적통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 정도에서 만족할게요. 내 힘으로 할게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몸부림치면서 내 뜻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웃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혹시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나는 죽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계속 사용하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제공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이후로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 세상의 모든 다른 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그 먼 곳 삼 일 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라고 했을까?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제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기 위해서 4천 년에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물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 마무리 : 복음을 믿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 개역개정)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그 단계 앞에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으시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머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이제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5월 14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5 :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수 24:14~15, 찬 599장)

○ 시작하며

믿음을 세우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이 대해 생각해 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가정은 무엇인가가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정은 전통, 어떤 가정은 돈 즉 물질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가정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 마지막 말고별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겜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림처럼 그리심 산 과 에발 산 사이 가운데에 마치 그릇처럼 생긴 오목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
②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우상들을 묻었던 곳
③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시한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세겜>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제 모세가 선포하라고 한 후 50~60년쯤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선포한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세겜은 어떤 역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심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문이 경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세겜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세겜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과 결심과 다짐을 했던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결단한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세겜에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시 결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 본 론

1. 기억하라

첫째, 기억하라 하시고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1.1. 주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수아 23장 / 개역개정)
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9.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먼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왕벌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왕벌을 보냈는지, 질병인지, 상징적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가셔서 그곳을 초토화하시고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

싸울 필요도 없도록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과 9절 말씀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내가 믿고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 나와 자녀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은 오늘 PAT데이를 맞이하여 또 가정의 달에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2. 약속을 기억하라

(여호수아 23장 / 개역개정)
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개역개정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한국말 번역 성경을 보면 “약속하신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 옛날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 이 하나님 약속의 말

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취할 것을 100% 확신하면서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약속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yes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yes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no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yes가 아니에요. 이건 no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yes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불가능해 보이고 no로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 no라고 생각되었던 그 말씀이 yes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no처럼 보이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yes인가요? no인가요?

1.3. 내 안에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수아 23장 / 개역개정)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4.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앞서 천 명을 쫓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천 명을 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는 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신뢰하실만한 분이다. 우리가 온전히 신실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너의 믿음을 세우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도 틀림이 없고, 하나도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없고 너희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2.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 개역개정)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기억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르며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굉장히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과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실한 성도들만 있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했던 수많은 작은 결정들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이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더해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단 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업이 몇 개씩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네 인생의 목적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대륙 분기점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비가 내려서 떨어지는 곳에 따라 비록 몇 1미터도 안 되는 차이지만 흘러 내려가면 대륙의 차이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 Tip : 대륙 분기점(Continetal Divides) 2개소

대륙 분기점은 갈라지는 곳으로 이곳에 비가 떨어지면 각각 다른 대양으로 흘러간다. 미국 콜로라도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안에 Trail Ridge Road라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갈라지는 곳이고, 스위스의 알프스의 산맥에 있는 대륙 분기점은 북해와 흑해 그리고 대서양으로 갈라진다.♥

우리가 한 작은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대륙은 물론 우주의 크기보다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선택과의 차이는 온 우주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옵션이 있었습니다.

☛ Tip : 다른 옵션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 우르에서 섬기던 신 (영적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섬기던 신으로 영적인 신이다. 우르는 영의 세계를 알기 원하고, 별을 바라보면서 운명을 점치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며 예언하고 이런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다.
그런데 과학과 IT가 발전된 시대에도 여전히 이 영적인 신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사주, 팔자, 점 이런 것들을 보러 갑니다.

② 애굽의 신 (유물주의 우상)
40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섬기던 신으로 유물주의 신이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능력 이것이 애굽의 신이었다.
정치적으로 힘, 물리적인 힘,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것이 애굽의 신이었다.

③ 아모리 신 (외형, 쾌락주의)
아모리 족속의 신으로 육체적인 호색적 쾌락의 신이었다. 마약과 술과 온갖 쾌락에 빠져들어 가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것이 이 시대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이 시대의 특징이 있는 신들이 있다. 앤 크라이커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들, 다중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정보가 넘쳐난다.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속도 중독에 걸려 있다.
이 시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섬겨야 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합시다. 속도에 달려가다가 믿음이 흐릿해지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영적 세계의 신들, 애굽의 유물주의 파워의 신들, 아모리 땅의 관능적인 신들, 이 시대의 서두름에 성공하려는 바쁨의 신들 그것들이 아니라 나와 내 집

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나 혼자 섬겨도 안 되고 내가 아닌 우리 자녀들만 섬기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와 내 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PAT입니다.
여호수아가 PAT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커서 자기가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탄은 그때까지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세속의 신들이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깨끗한 도화지 같을 때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고 이어 자녀가 하고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3. 끝까지 신뢰하고 헌신하라

3.1. 우리의 선택은 일회성 열정이 아니다.

(여호수아 24장 / 개역개정)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너희들은 그렇게 못 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오늘 한 번의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우리는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은 일회성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는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했지만, 며칠 안 되어 다 잊어버리고 나만 가지는 우상들이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야 난 하나님 믿어. 그러나 열정은 식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일회성 열정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매일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슨>이 쓴 책『같은 방향 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한 방향으로 긴 순종으로 어느 날 열심히 순종하고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3.2. 우리의 길은 확실성에 있지 않고 선택에 있다.

(마가복음 9장 / 개역개정)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어떤 사람은 난 결정 안 합니다.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마음의 평안히 찾아오면 그건 100% 하나님 뜻이야! 예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100% 확실성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심이 있지만 선택하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확신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선택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아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100% 확신이 서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했지만 확신이 없는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 확신이 아니라 바른 선택입니다.

3.3. 온전히 헌신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의탁이고,

주님을 향한 항복입니다. Surrender (항복)이고, Commitment (헌신)인데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헌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헌신입니다.
또 하나의 헌신은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듯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헌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마무리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가?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백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0~60년 전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여호수아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후 여호수아의 삶은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도, 능력 있는 일도 지나갔고, 실패한 일도 그리고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국 하나 남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이어야 합니다.

5월 21일 주일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3~20, 찬 384장) <조현식 목사>

○ 시작하며

사도신경은 예배 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설명하기 난감한 아빠가 아들에게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단들이 난무하고 거짓 가르침과 세속 된 시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에 대한 사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내려온 이 신앙고백은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사도신경은 영어로 Creed 신경 혹은 신조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크레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크레도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크레도의 원어적 의미로는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내 마음이 있고 내 목숨이 담겨 있고 내가 생명을 바쳐 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믿는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 본 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제자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 개역개정)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모의고사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후 더 중요한 진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의미 없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헤롯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권위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1.1. 가이샤라 빌립보

그런데 질문을 하신 장소가 가이샤라 빌립보입니다.

☛ Tip : 가이샤라와 가이샤라 빌립보 <그림 참조> 완전 다른 장소임

◆ 가이샤라 (노랑 원)
가이샤라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서쪽 104km 쯤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이다.
당시 가이샤라에는 로마 총독 관저와 원형극장 등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건설하여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고 한다.

◆ 가이샤라 빌립보 (적색 원)
가이샤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방 약 40km 지점으로 헬몬산 기슭 해발 약 365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다.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 확장되었다.(눅3:1)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샤라라고 하고, 거기에 빌립 자기 이름을 추가하여 가이샤라 빌립보라 불렀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우상숭배자들이었다. 그중 원주민들은 바알, 헬라계 사람들은 산림과 야수의 신인 판(pan) 산당을 지었다. 황제 신전도 건립되어 있던 우상의 땅이었다. <만나 주석 참고> ♥

예수님은 그 찬란한 도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세속된 백성들의 모습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체성을 잃어가며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함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성적 쾌락에 빠진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권력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는 진짜 권력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마태복음 16장 / 개역개정)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질문의 핵심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평가에 관한 질문인데 꽤 괜찮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엘리아가 다시 나타났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같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평가를 대단히 훌륭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당연히 흡족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뭔가 뛰어난 위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윗 이후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게 갈급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2.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 개역개정)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실 3년간이나 가르치고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가 핵심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진정성 있는 정확한 고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나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 앞에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왔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질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대는 이것과는 다른 권력과 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 개역개정)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역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정도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목적, 모든 죄인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데 누군가를 짓밟고 얻는 평화가 아니라 나를 희생시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 베드로의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 개역개정)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훌륭해! 라고 하지만,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꺼내서 입술로 고백했을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칭찬까지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벽히 이해해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에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고백이 완벽한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1.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

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 이후에 오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구원자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부활의 성취,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3.2.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생각과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내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현실과 이상 앞에 언제나 현실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물질과 권력이 현실이 아니라 이것들은 모두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한 삶의 편안함을 주는 것이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만 좇고 권력만 좇던 우리의 발걸음이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4. 3가지 약속

(마태복음 16장 / 개역개정)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당신의 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향한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4.1.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약속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인간의 목적과 방향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4.2.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옥의 문, 죽음의 문,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면 교회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 된 피 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이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상처받을 때도,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탄이 이 교회를 결코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3.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세 번째 약속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열쇠는 권세와 권력입니다. 사실 열쇠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책임이 따르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은 너의 말을 통해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누군가의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책임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누군가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열쇠를 우리와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르쳐야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천국 문을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마무리

이 세상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사 시대처럼 살아갑니다. 권력, 힘, 돈, 물질이 지배하는 이 시대 현대판 가이샤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니?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니?
괜찮은 위인 정도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인받고 또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5월 28일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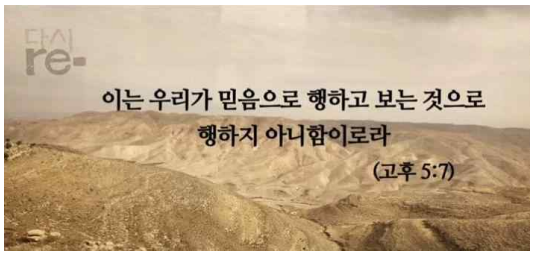
❑ Re-믿음을 세우라 6 : 두려움 없는 믿음 (고후 5:7, 민13, 14장, 찬 399장)

○ 시작하며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지금 믿음을 세우는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워져 빌딩처럼 든든한 믿음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주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요르단 출애굽 마지막 여정의 그곳 가데스 바네아 동쪽으로 얼마 떨어진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순간의 땅, 그곳에서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고 40일간의 정탐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점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100만 이상이 되는 군중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상황 그 두려움 속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는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후 5:7)

사람들은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본 론

1.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1.1. 믿음은 이성(생각)과 반대다. But 진실은 믿음은 이성(생각)에 근거한다.

첫째, 믿음은 생각과 반대다. 믿음은 이성과 반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덮어놓고 믿어 생각을 많이 하면 시험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다가 답을 못 구할 것이라는 가정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스스로 의심이 있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내 생각 끝에 내가 불신앙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래서 믿음은 생각과 이성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이성과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생각과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이성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 개역개정)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자 이치로 따져보자 이성적으로 논리를 세워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 개역개정)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유라는 그 단어는 the reason 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Logos라고 합니다.
statement 선포된 말입니다. 말로 표현된 논리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로 표현된 논리로 말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과 느낌, 감정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논리와 이성과 생각을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성에 세워져 있습니다. 깊은 생각 위에 세워져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이성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1.2. 믿음은 느낌이다. But 진실은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느낌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바닥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어떤 느낌과 상황과 환경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쉬운성경)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느낌은 기가 막힌 상황으로 다운돼 있는 느낌입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고, 온갖 것들이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고 그래서 그의 감정과 느낌은 아주 메말라 있을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느낌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 상황, 내 감정, 내 느낌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감정은 믿음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정 느낌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다운돼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그의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난 요즘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규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 두려움의 세 가지 원인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는 둘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갈 수 있다. 나머지 10명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 개역개정)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들의 느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그 사람과 비교해보니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느끼는 것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확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굉장히 빨

리 번지는 법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울음은 저항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옮겨 갑니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된 모세와 아론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의 선택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상황에 대한 결론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많은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건너가야 할 경계선, 그 경계선상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없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선택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 가데스 바네아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인내해야 할 것인가 사랑해야 할 것인가?
사업이나 사역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등 삶의 많은 계획들 가데스 바네아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삶에 유익할수록 두려움에 대한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게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3.1. 안전지대를 떠남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첫째, 이들을 두렵게 한 원인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그 안전지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안전지대는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지대, 삶의 안전지대, 기능면에서 안전지대, 직장에서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대개 자신이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어떤 것을 시도할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지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지대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가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우리의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전지대와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났을 때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전지대는 집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에게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전지대는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2. 과거를 잊음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두 번째,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을 기억했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만 기억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Tip : 팀 켈러가 묵상한다는 카드내용

나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내가 이룬 성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나는 나의 실패로 무엇을 잃은 것인가?
잃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전하시며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그 실패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전지대이십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 am free from fear 나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3.3. 하나님의 영광을 잊음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21.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집중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감함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 주님 때문에 두

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대답은 No이고 Yes입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다 죽어 못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잡혀 죽을 것이라 걱정했던 그들의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 마무리 : 두려움 치료법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9. ~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데스 바네아 지나가야 할 그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6월 5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7 : 믿음과 의심 (고전 2:2, 찬 542장)

❍ 시작하며

믿음을 세우라 7번째 믿음과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의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거북한 마음속 깊이 있는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의심들은 삶의 어떤 전환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린 시절 신앙교육을 잘 받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인 교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천 네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믿느냐?"
이런 질문에 의심이 올라오면서 그동안의 믿음이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 Tip : 불가지론

불가지론(不可知論)이란 몇몇 (대부분 신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명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 또는 사물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철학적 의심이 바탕이 되어 성립되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때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전환기를 지나면서 이 의심은 우리에게 또한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삶에 갑자기 찾아온 고통들, 질병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이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이 의심인데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심을 무시하거나 근절하거나 의심을 전혀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을 받아들이고 의심과 함께 살며 그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견고히 세워지는 데 사용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심에 대한 해답입니다. 의심에 대한 해결법입니다.

제목이 의심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눈앞에서 모든 의심했던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증명되는 그날까지 제한된 사고와 시각을 가진 우리는 결코 이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믿음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믿음이다. 의심을 내포하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몸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항체가 없는 것이 되고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데 이 의심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 본 론

1. 두 가지 의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

1.1.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다.

(시편 10편 / 개역개정)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태복음 11장 / 개역개정)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첫 번째, 우리의 의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하고,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살아 이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시편 10:1절처럼 질문의 노래와 질문의 의심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습니까?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윗은 의심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로다.”라고 세상에 알렸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에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내용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그 제자들을 통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소간 의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상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의심이 있어 죄책감을 느끼고 이 의심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1.2. 하나님은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진실은 믿음은 양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9장 / 개역개정)
24. ~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요한복음 6장 / 개역개정)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유다서 1장 / 개역개정)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두 번째, 우리의 의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은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진실은 믿음은 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믿음을 원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4절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가 찾아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갔지만 100%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는 이 고백은 나에게 이만큼 믿음밖에 없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겨자씨 믿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자 너희도 떠나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주 100%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딴 데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결론 : 의심을 의심하라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의심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의심을 의심하라, 의심을 따라 의심을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가면을 벗겨버리라 그리고 그 의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라 의심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또 다른 믿음에 근거한 의심인 것입니다. 내가 의심을 가지게 하는 다른 믿음, 대체 믿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이 대체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의심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의심 밑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대체 믿음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그 의심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2. 세 가지 의심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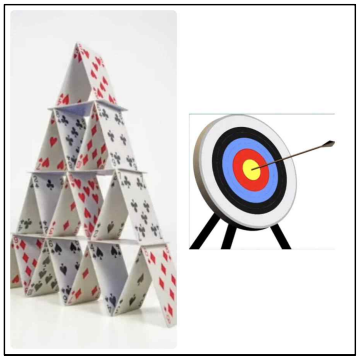
대체 믿음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살펴봅니다.

2.1. 나는 도달할 수 없는 100% 확신을 추구하고 있는가?

첫째, 나는 100% 확실한 믿음은 추구하고 있는가? 신앙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100% 확신하고 전혀 의심 없이 확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심이 없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100% 의심 없이 확실하게 선택하는 그 믿음, 그 행동, 그 신앙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100% 확신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믿음이었고 그러나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한 발짝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다음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의심 때문에 자주 무너지는가? 100%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우스 카드 집 <그림> 수십 장의 카드가 다 모여서 집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고, 담배, 또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카드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을 세우는 것이 100% 믿음에 세워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카드만 빠져도 집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고 큰 요소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외의 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2. 나의 의심은 핵심적인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인 의심은 핵심적인 것인가? 즉 중심적인 것인가? 아니면 주변적인 것인가? 이것을 규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무너지는데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정치적인 견해나 시국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이나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루기에도 우리의 삶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갈급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제쳐두고 정치적인 입장과 세상의 윤리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심의 복음 그것만을 전할 것을 결심하고 선언합니다.

2.3. 나의 의심은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것은 아닌가?

세 번째 나의 의심이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것은 아닌가?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인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나의 신앙이 흔들려서 오히려 성경적인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목회자
파시스트 정부를 찬양하는 목회자
교회의 잘못된 이상한 모습

이런 모습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지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선포하고, 교회가 잘못된 성경적 입장을 막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것에 실망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건 논리적이지도 이치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혹시나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설교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 나는 정말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그것이 아니잖아, 네가 정말 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참된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라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의심 해결법

그렇다면 이 의심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100%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카드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그 한 조각들의 믿음과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예수님은 나의 주심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똑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핵심이 아닌 것 중심이 아닌 것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 개역개정)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과녁에 한 발 맞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것 외에는 몰라도 돼, 난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투쟁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단에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만 그 센터에 화살을 박아놓고 다른 건 다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나를 위하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에 나의 과녁에 나의 화살을 꽂아놓고 다른 건 다 괜찮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그 센터의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화살을 꽂으십시오.
성숙한 사람들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숙한 부부의 삶에 갈등이 없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의심도 있지만,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숙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이 있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은 그 의심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잘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가면서 당장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두 권의 책

◆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중심되는 질문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책

◆ 리스트로벨의 “특종! 믿음 사건”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저자가 어떤 한 씨앗을 그 삶에 심고 탐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믿음을 발견한 책

○ 마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100% 확신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헌신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의심이 있지만 100%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6월 11일 주일

❑ 예배자입니까? (시 50:7~15, 51:16~17, 찬 91, 28장) <김황호 목사>

○ 시작하며 : 나의 예배는 습관적이지 않는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습관에 따라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나의 예배가 온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예배자가 맞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중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약 10년 동안 했는데 첫 번째 사역 때 일입니다.
저희 팀이 예행연습을 하고 있고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연습하는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라서 말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 순간 이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구나 나는 연습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예배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가르치러 간 입장에서 예배를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연습 따로 예배 따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들은 연습이고 예배고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5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이고,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 Tip : 아삽은 누구인가?

(역대상 16장 / 개역개정)
5.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아삽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직무를 맡은 자이자 예배 인도자였다. 예배 인도자로 시편 12편을 썼다.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이다. 시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올바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기록하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아삽의 시의 대상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배를 배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알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본 론

1. 구약 시대 제사의 모습

1.1. 제사에 쓰여진 제물

(레위기 1장 / 개역개정)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살펴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인데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소나 양과 염소 등 다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싼 곡식들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림에 빈부 격차가 없게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

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1.2. 제물을 바치는 이유

(레위기 1장 / 개역개정)
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지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번제물에 전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고, 그로 인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제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2. 시편 59편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

2.1. 습관적인 제사

(시편 50편 / 개역개정)
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인정하지만, 기뻐하지는 않는다. 그 제사는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왜 바쳐야 하는지 가르쳐주셨고 제물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예배 드리

기를 원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제사의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바치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 제사드릴 시간에 드리고 많은 제물을 가지고 호화로운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 개역개정)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언제 제물만 바치라 했느냐? 내가 창조주인데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서 가지면 되지 뭐 하러 바치라고 하겠느냐?
그저 습관에 따라 아무런 의미 없이 제물만 가져다 바치는 그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 우상 숭배자들과 닮은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그 습관의 모습이 그저 제물만 가져다 바치는 그 모습이 닮아서는 안 될 어떤 부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제사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내가 소원하고 필요로 여기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는 존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이었고 그 신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 제물을 가져다 바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중요할수록 더 많은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는 신과 비즈니스 관계였던 것입니다. Give and Take 성격의 제사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제사)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사랑과 은혜가 전혀 없는 비즈니스적 관계의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적이 없는 예배의 모습이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2.3.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제물만 바치는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제사는 예배는 바로 이런 거라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 개역개정)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정의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신앙 생활하시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신가요? 각자마다 감사의 제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그런 감사일까요?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맞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은 감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끝을 맺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 다윗을 통해 발견한 감사의 제사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3.1.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 죄인 다윗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시의 시작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 개역개정)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 칭하신 그 심판은 정당하고 공정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지자 나단이 지적한 밧세바와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5절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한 시점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힘과 권력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선지자 나단에게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그 순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 개역개정)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진정한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두 가지는 첫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기에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오니 정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된 정한 마음들, 정직한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셔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제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가는 곳이 바로 제사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3.2. 다윗이 바친 제물

(시편 51편 / 새번역)

1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제사의 자리 가운데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자신의 찢겨진 심령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져간 제물은 짐승도 곡식도 아닌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찢겨진 심령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은 죄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서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상한 심령입니다. 어디서도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산산조각이 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형편없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염려하면서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3.3. 상한 심령을 회복시킨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다윗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진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담을 수 없는 깨져버린 마음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간다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실 테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 새번역)
16.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에서 제물만 드렸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제가 압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

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회복이 불가능한 자신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참된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 악한 마음들, 이 상한 마음, 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그 은혜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 마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무엇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던 예배자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 찬양 이것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예배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선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그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므로 나아가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라고 이 예배를 허

락해 주신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건 그다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시간이 더 기쁘다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상한 우리의 심령을 참된 제물로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정직한 영, 정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18일 주일

❑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잠 22:4, 찬 93, 461장) <김희성 목사>

❍ 시작하며

(잠언 22장 / 개역개정)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론

1. 잠언에 대한 이해

1.1. 잠언의 주제 : 지혜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면 잠언이 아닐까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잠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9장까지로 지혜의 원리를 다루는 지혜의 원리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반부는 10장부터 31장까지로 지혜를 통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다루는 지혜의 실천 편입니다. 전반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며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겠지요? 잠언에 등장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아들아, 지혜가 최고이다. 반드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혜를 얻었을 때 유익을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장수와 부귀가 있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반드시 지

혜를 얻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때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악인들의 꾀에 빠지게 되고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며 지혜를 얻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제시한 길은 두 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참 많은 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길은 두 길밖에 없다.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두 길 사이에 중립적인 또 다른 길은 없단다. 오직 두 길밖에 없어.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자들은 생명의 길을 가고, 악한 자들은 사망의 길을 간단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운명이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 지혜는 무엇인가?

1.2.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잠언 9장 / 개역개정)
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지식과 구분되는 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이고, 지혜는 삶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력이나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와는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란 원어는 출발 혹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이 말한 지혜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경외 : 두려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르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운 대상에 대한 공포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외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영원한 주권자시며 통치자십니다. 크고 광대하시며 압도적인 왕이시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이신데, 친밀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도 흠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분이십니다.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존경이나 공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존경심 혹은 공경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측면에 치우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여 엄하고 혼내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농담 따먹기식으로 막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그런 막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공경과 존경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무서워서 순종(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

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1.4.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 장수, 부귀, 재물, 생명, 형통

(잠언 22장 / 개역개정)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잠언 3장 / 개역개정)
16.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와 복을 보상 받게 됩니다.

(잠언 3장 / 개역개정)
23.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이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장수와 부귀와 형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하면 과연 그런 보상을 받는가?

2.1. 여호와를 경외한 욥

(욥기 1장 / 개역개정)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이 보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탐”이라는 단어로 “흠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무결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상대적인 온전함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사람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샤르”인데 “올곧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은 죄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만 길어갔고, 오로지 바른길만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어떻게 경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 개역개정)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 각각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했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했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욥을 인정했습니다. 또 욥은 엄청난 거부였고, 화목한 가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2.2. 욥의 고난

당대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면 잠언의 보상 원리에 따라 형통해야 하는데 욥은 엄청난 보상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 Tip : 욥의 고난 이야기

①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감
②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모두 불살라 버림

③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감
④ 자녀들이 한날한시에 몰살당함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까지 앓았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얼마나 가렵던지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재(자녀의 영전) 가운데 앉아서 자녀를 애도하고 있었는데 몸이 가려워서 애도도 제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3.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과 고난받은 욥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잠언의 보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장수, 부귀, 재물, 영광, 생명, 형통이 마땅한데 욥의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보상 원리와 욥의 고난은 충돌하지도 않고 모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예수님의 성육신

그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절정이 바로 메시아였고, 신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의 보상 원리와 고난 당한 욥 또한 예수님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상 원리와 욥의 고난을 좀 조화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욥

이 당대에 유일한 자였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예수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3.2.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은 장수와 부귀와 재물과 영광으로 가득 차서 성공과 형통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후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쳤고, 예수님 자신도 부귀를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에게 붙잡혀 채찍질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보상을 포기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삶이 그냥 고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보상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보상과 모든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아무런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거저 받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욥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욥만큼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당대에 없었는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뭔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한 것은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끔찍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 받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 개역개정)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것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전혀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없는데,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이 잠언의 보상 원리, 이유 없이 고난받은 욥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 / 개역개정)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우리는 재물이나 복이나 형통이나 장수와 같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보상을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란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이 은혜는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고,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이 땅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죽

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죽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동기는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그냥 보상을 바라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본분으로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 마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사람과 관계로 상처받아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내가 하던 일이 쫄딱 망해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먼저 떠나보내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는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의 부활과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5일 주일

❑ 나라를 위한 기도 (렘14:7~18, 찬 96, 304장) <김용찬 목사>

○ 시작하며 : 우리가 현혹되는 것

◆ 세상에서의 모습들

홈쇼핑에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격으로 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후 추가 판매는 없습니다. 최대 세일 가격으로 드리는 마지막입니다. 남은 시간 5분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빠른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자동 주문 혹은 핸드폰 앱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리에서 보면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전 품목 전국 최저가 오늘 마지막 세일, 우리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16년 개봉된 영화 곡성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뭣이 중한디”와 “현혹되지 마라” 입니다. 현혹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그럴싸하게 들리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현혹이 됩니다. 어떤 것에 현혹이 되게 되면 혼이 빠져서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 신앙에서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혹되는 순간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양 포장해서 현혹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같은 가짜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고 그냥 가짜 짝퉁입니다.

진짜처럼 포장하더라도 가짜는 영원히 가짜라는 것,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살펴봅니다.

❍ 본 론

1.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다.

1.1. 유다의 고통

(예레미야 14장 / 개역개정)
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갔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고, 달콤한 말로 현혹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진짜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현혹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처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 강력한 왕권 아래에 부강한 나라였으나 솔로몬 때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변 이방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과 우상신들, 이방 문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들어 왔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성을 깨뜨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징계 예고

(예레미야 14장 / 개역개정)
10.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

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심한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릇 안에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심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낳아도 먹을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내버리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남 유다는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징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지었던 죄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마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했던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 개역개정)
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9.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 한 유다 백성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징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벌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행위, 기도드리는 행위,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 사람의 소망 중심에서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도록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혹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칼과 기근으로 범죄한 유다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주리라라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 개역개정)
15.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현혹되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럴듯한 것에 현혹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 가면서 현혹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현혹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더불어서 같이 구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4장 / 개역개정)
17.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8.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않고 흘리며 그 파멸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죄를 멈추고 돌이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경고와 다시 돌이킬 것을 말

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밉거나 싫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도록 죄를 끊고 다시 회복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3. 민족을 위해 기도한 예레미야

(예레미야 14장 / 개역개정)
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사랑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의 목숨과 희생을 다 바쳐가면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들어왔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0여 년 전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이 한반도 전체에 부흥의 불길을 주신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살아갈 땅이고 또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4.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4.1.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바로 선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사이비 이단 종교,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의 모습, 잘못된 성 가치관, 이데올로기로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과 거룩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국내 미래 자립 교회와 선교 기관사역, 군 선교, 교회학교, PAT 사역 등에도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4.2. 민족 복음화의 꿈

둘째, 분단된 한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동족상잔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3년 전 바로 오늘 일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안에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생이별을 한 이산가족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교회와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오신 탈북민, 새터민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 마무리

CCC를 설립한 김준곤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을 소개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이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에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으레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식과 예수 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의 꿈, 김준곤 목사>

오늘은 6월 25일 동족 상전의 아픔을 겪은 6.25 한국전쟁 73주년 더불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과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 입니다.
나라 없이는 국민이 없고 국민 없이는 나라도 없습니다.

7월 2일 주일

❑ 신실하신 하나님 (출32:1~14, 찬 588, 393장) <조현식 목사>

○ 시작하며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와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막 건설 명령이고, 35절부터 40절까지는 성막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32절부터 34절까지 황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오다 이 사건으로 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사용한 단어가 진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언약 파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불안해했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었고, 그 결과 모세가 사라지니까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성막에 관한 지시를 듣고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 본 론

1. 이스라엘의 범죄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1. 모여(불평 모티브) :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더딤은 “지체한다”라는 뜻인데 지체하는 것은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40주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안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즉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봤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봤음에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만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 아론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모일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은 불평 모티브입니다.
지금도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동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군중 심리가 자극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인도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모세라는 그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너는 당장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신을 조정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아론 : 실패한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자 플랜B가 있었습니다. 대체 카드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너무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모세라는 주연을 떠받쳐주던 완벽한 조연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리더십은 실패합니다. 스스로 주연이 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망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할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선포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잖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 조금만 기다리자 모세가 이제 내려올 거야 이렇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자면 백성들이 위협을 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홀은 그 폭동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생각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민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결국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리더십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1.3. 금송아지(아핀스) : 물질과 쾌락

아론은 2절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려면 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빼낸다”라는 것은 “잡아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아론은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동자가 되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아론이 변명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금이 너무 귀한 것이기에 금을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금을 다 모으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할 때 한 마음이 되어 신속하게 한 것입니다.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애굽에서 소는 아피스라고 해서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애굽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아피스라는 신은 성적인 쾌락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당시 모습이

성적인 타락과 다산이라는 풍요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과 쾌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공간 안에 매이게 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말씀 중심 신앙생활의 중요성

여기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은 계명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 백성이 동의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해석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기초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내 중심이라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우상을 깨부숴야 합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고백하고 축제까지 벌입니다.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애굽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부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조건부 언약이 은혜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였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제1계명을 위반하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며 제2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보면 십자가상이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야 한다면 아쉽지만, 그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십자가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 자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 걸어 둔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1.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다 진멸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네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한 자가 모세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이젠 얘네들은 내 백성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향인데 자꾸만 이스라엘은 다른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부패하고 변질되었습니다.

2.2. 그들을 진멸하고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너만 살려두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 거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3. 모세의 중보 기도

세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책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말하며 간절하게 백성들이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끝났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3.1. 하나님의 은혜(자비)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면 구원의 대상이고, 남의 백성이면 멸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을 파기했기에 남의 백성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을 넘어 강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자비의 하나님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2. 하나님의 명예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멸한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명예가 더럽혀질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여기서 죽이시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명예를 가지고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3.3. 하나님의 약속 :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셋째,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족장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소연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기도는 절박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명예, 신실하심의 성품에 근거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 하나님의 용서 : 네 백성에서 다시 주의 백성으로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그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우리 앞에 그 약속을 고백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데 우리는 물질을 우상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안다면 우리 안에 금송아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 개역개정)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내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용서입니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은 평탄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그 실수를 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줌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기도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심지어 내 백성이 아니라는 표현을 통해 멸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자비와 은혜로 감싸주심을 기억하고,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9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8 : 참된 믿음 (야고보서 2:14~20, 찬 200, 399장)

○ 시작하며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책 내용이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Be the best version of yourself』입니다. 당신 최고의 버전을 만드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버전이 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버전이 되라는 요청과 도전은 각 나라 많은 곳에서 호응을 얻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아빠, 최고의 남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버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버전 베스트입니까?
우리는 버전(version)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구버전으로는 작동되지 않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최고의 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낮은 버전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가득 찬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못하는 버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최고 버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버전으로 살기 위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 Tip : 알렉산드라 스와르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시도가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다.
2천 년도 초에는 최고의 버전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 개발에 좋은 방법은 이매지네이션 (imagination)이라고 했다. 상상을 마인드셋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일어났다. 미국 사회에 2006년까지 경기 호황과

성장 무드를 타고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상상을 마인드셋 하면 성취된다고 믿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함을 금방 나타났다. 왜냐하면 못 살고 굶주린 사람이 잘 살고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주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8년쯤부터 경제가 무너지면서 불황이 왔을 때 그것이 증명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론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일어났다. 자기 계발을 위해 이매지네이션을 마인드셋하는 대신 기술적인 문제 전략적인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좋게 만들기 위해 수면 리듬을 체크하고, 하루 만 보 걷기를 하며, 맥박수를 재고, 식단을 체크하면서 the best version이 되고자 시도하기 시작했다. 효과가 있어 보였다. 사업도 육신의 건강도 집요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자기 계발을 시도했다.
그러다 1년 실험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시도했던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나는 나의 베스트 버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내가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나의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도했던 수많은 일들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씨에스 루이스 (C.S. Lewis)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새로운 모습은 당신 스스로 찾고 있는 한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찾으면 결국 증오와 괴로움과 절망과 파멸과 부패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던져진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방법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세우라 여덟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 수준의 삶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Tip : 참고사항**

☛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 상상, 상상력**

☛ **마인드셋(Mindset)**
습성이 되어 바꾸기 힘든 의식 구조나 태도를 말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 믿음, 관점 등의 집합으로서 성공과 실패, 도전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매지네이션 마인드셋 (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기대하는 것이 자기에게 온다.

☛ **예수님 형제 야고보 사도**
본문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야고보가 아니다.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순교했다.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다.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자랐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나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느 날 어느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실 때 가족들이 찾아 잡으러 왔다는 기록이 있다. (마12:46~47, 막3:32)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생 야고보도 형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사도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록을 보면 그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많이 기도했던 야고보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였다.♥

❍ 본 론

예수님에 대해 미쳤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야고보의 변화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 개역개정)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목숨을 다 바치면서 주님의 일에 힘썼던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를 비난하던 가족들, 우리와 가까웠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The best version으로 사는 것인데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참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 바른성경)
14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첫째,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참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면서”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참된 믿음은 감정만 아니다.

(야고보서 2장 / 개역개정)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두 번째, 참된 믿음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건 다 감정의 활동인데 감정의 느낌이 없다면 정말 신앙 생활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믿음과 혼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지만 뭉클 올라오는 그 감정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 말은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동정심만 가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믿음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생각하지만,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 Tip : 교구장이 겪었던 어릴 적 경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추억이 생각났다.
중학교 3학년 때이다. 읍내 학교에서 하굣길 버스를 탔다. 마침 5일 장날이어서 빈 좌석이 하나도 없고 나 역시 서 있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셨다. 마침 앉아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시는 분 같았다. 아주머니가 할머니께 "할머니 어디 좀 앉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주변을 돌아보더니 자리가 없자 "괜찮아"하고 서 계셨다.
여기서 대화가 멈추었으면 됐는데 이어 두 번이나 더 "어디 좀 앉으세요" 하니 할머니가 "자리가 있어야 앉지!" 하시면서 겸연쩍어, 그냥 내려 버리셨다.
그 모습을 본 난 "본인이 양보하시지"라고 생각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상대를 오히려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3. 참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 개역개정)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생각만 하는 믿음, 배운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물론 믿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내용들, 교리, 신학,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배 정도 더 성경을 아는 사람이 10배 정도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비판하지 않고 더 다른 사람을 돌보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많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성경을 더 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아느냐?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행위를 보여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 Tip : 10주 완성 인텔리젠트 피트니스 책 이야기
10주 만에 제임스 본드 몸매처럼 만들 수 있다는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딱 한 가지만 빼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열독하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그룹을 만들어 함께 나누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책이라고 선전하고 선물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났습니다. 제임스 본드처럼 되었을까요? 아마 그동안 연구하느라 몸매는 더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바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하라는 대로 1일 차부터 해야 할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행함이 없이 아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언어를 연구하고, 단어를 연구하고,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깊이 연구하면서 행

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너무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없고 또 임의로 해석해서 편리한 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4. 참된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 개역개정)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씀하니 큰 모순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행함과 믿음에 대한 생각이 모순이거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의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 바울과 야고보 비교

사도 바울의 행함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행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의 행함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 얻은 증거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행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구원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뿌리이고, 행함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사도 야고보처럼, 또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처럼

(고린도전서 13장 / 개역개정)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하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야고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서 1장 / 개역개정)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그 행함에 대한 주장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로 삶의 모습 즉 구원의 열매가 행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 개역개정)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이 주장을 합한 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삶에 행함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The best version, 우리들의 최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 최고의 버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분노가 막 올라오고 치밀 때 인내의 열매, 참는 열매, 사랑의 열매 이렇게 작은 열매가 맺어갈 때 점점 best version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가정도 best version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처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신용을 잃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큰 건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열매 즉 행함이 없어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 마무리 : 믿음과 행함의 결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흐름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세 가지 전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은혜에 의하여” 행함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

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을 얻을 만한 무슨 일들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선한 일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The best version,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관중석에 앉아 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관중석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화를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미션(mission)이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참아라 화내지 마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이렇게 못할까?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최선의 삶, The best version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최선의 버전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최악의 버전, The worst version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시도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타석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최고의 버전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6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9 : 개천을 파는 믿음 (왕하 3:9~20, 찬 210, 545장)

○ 시작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 필요가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필요와 문제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려움과 문제와 필요가 전혀 없다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세 왕입니다.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의 주도하에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제일 위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그리고 밑에 에돔 이 세 나라가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한 것입니다.

유대 왕이 작전을 제안합니다. 모압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해를 관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바로 공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이 연합해서 남쪽에서 모압을 쳐 올라가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방법 중 남쪽에서 쳐 올라가는 작전을 이들은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완전히 실패할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진격한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과 가축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 본 론

1.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

(열왕기하 3장 / 개역개정)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칠 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11.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14.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
세 왕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하시도다.” 이렇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세 왕은 엘리아의 제자 엘리사에게 갔는데, 그의 스승 엘리아의 가장 큰 기적은 아마 비가 오게 한 것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온 땅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비가 오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소개할 때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제자 엘리사라고 하면서 엘리사도 엘리아처럼 물을 가져다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막 선지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이런 기적의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① 엘리아가 승천한 후 엘리아가 벗어준 엘리아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다.
②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연못 물에 소금을 뿌린 후에 그 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이제 죽음은 사라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열매 맺는 물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니 열매를 맺고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
③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에게 저주하니 곰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죽여버렸다.**(만나 주석에 의하면 아이들의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조롱은 승천한 엘리아를 조롱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곰들로 하여금 그들을 찢어 죽게 했다고 주석을 하고 있다.)**

이런 신임 선지자 엘리사에게 왕 3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는 스승 엘리아처럼 약간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왕들을 대합니다. 엘리아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등과 850 대 1로 대결할 때 이렇게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엘리사도 비슷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에돔, 당신들은 내가 볼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 중에 내가 함께하고, 복을 주고, 왕위를 계속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해답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바로 그 사람 세광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 오직 하나님만이 물을 보내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개천을 파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열왕기하 3장 / 개역개정)
15.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세 왕의 청을 들은 엘리사는 전장터 한가운데서 15절을 보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거문고 탈 사람을 불러오세요” 찬양할 사람을 불러오세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찬양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15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감동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즉,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삶에서 할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천을 파라, 땅을 파라 그런데 그들은 땅을 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7일 동안 탈진했고, 어떤 힘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들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승리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패배 의식이 가득 차 있었고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팔 수단과 도구로 오늘날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삽과 곡괭이 정도로 파야 했습니다. 그것마저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땅을 파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가서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천을 파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개천을 파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라고 개천을 파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물을 보내실 것이고 승리도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개천을 파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개천을 파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개천을 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 개역개정)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천과 상관없이 홍수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

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기 전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필요가 채워지기를,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개천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개천을 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개천을 파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개천을 팠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물을 보내주시고, 승리를 안겨 주시고 감격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하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배 밖으로 걸어 나온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물 위를 걷기를 원하는가? 배 밖으로 나오라』하는 책이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주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을 떼고 주님께로 두 발을 다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에서 절망에서 실패와 죄악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노하는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개천을 파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한 편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기적이 나옵니다.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손을 펴라" 말씀하실 때 주

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손을 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앉은뱅이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예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걸을 수 있는 근육이 하나도 없었을 사람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삶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다. 개천을 파기를 축복합니다.

3. 참믿음은 큰 것을 믿지만 작은 것(개천 파기)을 시작하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스가랴 4장 / 개역개정)
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세 번째, 참믿음은 큰 것을 알지만, 작은 것 개천을 파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참믿음은 큰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 참믿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작은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을 믿지 않고 작은 것을 믿고, 그리고 작은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큰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개천을 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골짜기에 가득 채워주신 엄청난 사건을 믿어라. 땅을 파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삽 한 삽 큰 진전이 보이거나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품을 개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바울같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큰 것을 원하지만 작은 시도 개천을 파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 이런 작은 개천을 파는 일이 우리로 큰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끝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골짜기를 채워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의 개천을 파십시오.
사회생활의 개천을 파십시오.
신앙생활의 개천을 파십시오.
가정생활의 개천을 파십시오.
모든 관계의 개천을 파십시오.
작은 시도인 개천을 파는 일의 도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배일 수 있습니다.
도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개천을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개천을 파야 합니다.

4.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열왕기하 3장 / 개역개정)
20.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개천을 팠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골짜기에 차고 넘쳤습니다. 밤새도록 개천을 파고 아침이 되자 골짜기에 물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패배 의식, 탈진 상태, 피곤함, 절망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

한 상황 이것은 개천을 파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개천 파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개천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채웠다고 하지 않고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에돔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모압에서 볼 때 핏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연합군이 자중지란이 일어나 서로 싸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방심하고 노략질하러 왔다가 대패당하게 됩니다.
결국 연합군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한밤중에 물이 채워졌다면 핏빛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한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 마무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이 삽을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개천을 파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개천이 무엇입니까?
스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실 때까지 파야 할 개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의 개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개천을 파겠습니다.”

7월 23일 주일

❑ re-믿음을 세우라 10 : 인내하는 믿음 (히 12:1~2, 찬 220, 366장)

○ 시작하며

믿음을 세우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 “인내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 믿음은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우회하는 길이 아니고 통과하는 길입니다. 넘어졌을 때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돌아가거나 포기하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두 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경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모습이 어땠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건강만 주어졌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 질병, 괴로움, 실패, 염려와 걱정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과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가 영어 버전에는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even though입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교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네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 본 론

1. 용기를 내서 달리라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기를 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스포츠가 대중적 인기를 얻고 각 도시마다 큰 경기장들이 있어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 Tip : 로마의 키르쿠수 막시무스 경기장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으로 현재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
경기할 때 수없이 많은 관중이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다.♥

히브리서서 12장 1절은 첫 부분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넘어질 때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응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앞서 천국에 가신 분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이 응원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그들의 용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용기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 개역개정)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천국에서 수없이 많은 응원단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는 서로 같이 달리면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 Tip : 데릭 레드몬드(Deck Redmond, 영국 육상선수) 이야기

400m 준결승에서 넘어져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과 힘줄)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 관중석에서 그의 아버지가 뛰어나와 보안요원을 밀치고 트랙에 올라 아들을 부축하여 함께 결승선까지 뛰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축하여 함께 뛰십니다.

2. 가볍게 달리라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1. ~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

두 번째, 가볍게 달리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달리라. 스포츠 과학은 경주할 때 보다 더 가벼운 옷을 입고 뛸 수 있도록 연구하여 깃털처럼 가벼운 옷을 만들어 냅니다. 가볍게 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런던 마라톤 대회 실화입니다.

☛ Tip : 로이드 스컷 이야기

이 사람은 마라톤에서 무겁게 입고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런던 마라톤에서 54kg에 달하는 잠수복을 입고 뛰었다. 완주시간은 5일 8시간 29분 46초였다.
몇 년 후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 그는 50kg의 갑옷에 3m 높이에 90kg나 되는 공룡의 모습을 한 물체를 끌고 달렸다.♥

로이드 스컷의 이야기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볍게 빨리 뛰어야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들고 또 끌면서 경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이나 중독이나 죄 등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무거운 것과 죄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라.

킹 제임스 버전은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무게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경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① 걱정이라는 돌덩어리입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직장에서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② 나쁜 습관이라는 돌덩어리입니다.

무거운 것들은 꼭 죄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들, 게으름, 종일 유튜브만 보는 습관, 먹는 것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빨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나쁜 습관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③ 쓴 뿌리라는 돌덩어리입니다.

미워하는 쓴 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쓴 뿌리, 미움과 분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무려 4,800 km을 뛰어 미국을 횡단한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로키산맥 가파른 산등성이가 제일 힘든 것이 아니고,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이 제일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제일 힘든 것은 신발 안에 작은 모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 중에도 이렇게 작은 것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작은 불만들, 작은 섭섭함, 작은 성가심, 문득문득 내는 그런 분노들, 비록 작아 보이지만,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 죄를 내려놓아라.

다음, 성경은 죄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죄를 내려놓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그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걱정, 나쁜 습관, 쓴 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아지게 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더 도나딘처럼

☛ Tip : 헤더 도나딘 이야기

600m 경주하던 여자 선수였다. 결승선을 한 바퀴 남기고 넘어졌다. 경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일어나 계속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결승선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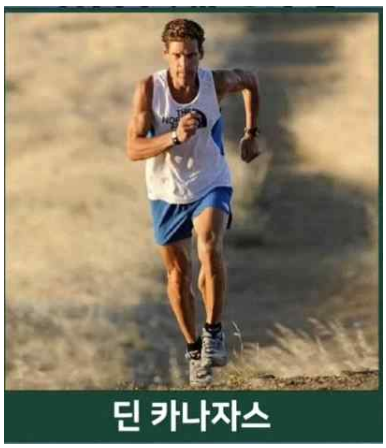
3. 꾸준히 달리라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1. ~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세 번째 꾸준히 달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빨리 달리기가 아니고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인내하면서 달린 한 사람의 실화가 있습니다.

☛ Tip : 딘 카나지스 이야기

이 사람의 별명은 The Perfect Human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뛴 사람이고, 많이 뛴 사람이다. 철인 같은 사람이다. 300km 정도는 취미로 달리는 사람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그는 본래 술 중독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버려진 운동화를 발견하고 그 운동화를 신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달려 너무 멀리 달려와서 결



국 아내가 차로 데려왔는데 차 안에서 기절했다고 한다. 그때가 1992년 8월이었다.
그의 기록은 50일 50개 주에서 50경기에 달렸다는 50, 50, 50이라는 특별한 기록이 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마라톤에서 절대 우승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끝내는 방법을 압니다. 우리가 달성할 가치가 있는 모든 목표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위험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주하면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계속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달리는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ago-n)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agony(고통)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주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이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학업과 직장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주를 어떻게 끝까지 잘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훈련입니다.

3.1. 훈련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고 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훈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체력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4. 집중해서 달리라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번째, 우리가 집중해서 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실망하고 넘어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관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 경주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주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그 경주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그 무서운 십자가를 다 참아낼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큰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의 큰 기쁨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찬송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세상의 것들이 그분 영광과 은혜를 볼 때 점차 희미하게 되리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삶의 문제들로 인한 고통은 어느 순간 그것이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마무리

우리들은 각자 서로 다른 경주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승선을 바라보는 마지막 단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쯤 달리고 있어 너무너무 힘들게 달리고 있습니다. 혼자만 달리는 것 같고 괴롭고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할 동료를 찾으십시오. 교회 안의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구역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경주하십시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경주를 출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서 달려가십시오.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훈련에 힘쓰십시오.
바이블 버스를 타십시오.
매일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경주를 시작하지 않고는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그 경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함께 달려 나갑시다.

7월 30일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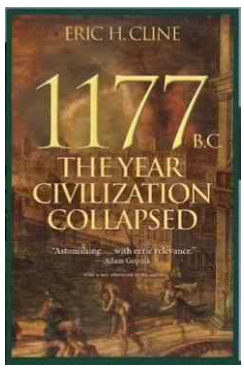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혼돈을 뛰어넘는 소망 (삼상 2:1~10, 찬 287, 365장)

○ 시작하며

새로운 설교 시리즈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다윗을 살펴볼 예정인데 그 전에 전주곡처럼 사무엘 1장과 2장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영성은 성을 뛰어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노래한 시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믿음은 어려운 일들이 성벽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 앞에 마치 성벽처럼 문제와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이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과 믿음으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외에 제일 많은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14장, 요셉 14장, 야곱 11장인데 다윗은 무려 66장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에 문을 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 본 론

1. 역사적 배경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한 시기는 어떤 때였을까?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B.C. 1177년』입니다.
Eric H. Cline이 쓴 책으로 부제는 “청동기 시대는 왜 멸망했는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B.C. 1177년 청동기 시대가 멸망했다. 그 이전 B.C. 1250년경에는 굉장히 문화와 정치와 예술이 발전된 청동기 사회였었다.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심지어 아시아까지 번성했는데 갑자기 B.C. 1177년 1100년경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는지 그 이유는 찾지 못합니다. 기후변화 또는 가뭄 등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 모든 문화가 다 무너지고 혼돈 상태가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 이야기는 B.C. 1100년경 시작됩니다. 세계 모든 문명은 다 무너지고 청동기 시대가 다 멸망하여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찼던 시대가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 시대상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 개역개정)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국가와 제도와 법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회, 생존의 최소 단위가 가정과 마을이었습니다. 법치주의가 사라진 야만의 시대, 약육강식의 사회,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혼돈의 시대에서 그리 많이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통 명분 없는 전쟁의 이야기, 무너진 폐허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혼란의 시대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되는데 15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 서곡 같은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 등 남성미가 넘치는 서사시인데 처음 시작은 한 여성의 슬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문을 연 사람 한나입니다.

2. 한나가 발견한 소망

2.1. 한나의 슬픔 (삼상1:1~8)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시에는 여자에게 자식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대를 이을 상속자이기에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치명적인 고통이고 약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부패하고 끔찍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제물을 바비큐인 양 취하고, 십일조를 훔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 즉 성도를 성폭행하기까지 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홉니는 괴롭힌다. 비느하스는 매우 시끄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름인지 별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박 기준은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준 예뻐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늘씬한 몸매를 가져야 한다. 등 이런 것에 짓눌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심지어 굶어가며 다이어트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뻐지기 위해 성형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시대, 이 시대도 사회문화적 요구에 맞추어 살도록 스스로 강요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사회문화적 요구 기준에 압박을 받으면 괴로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브닌나에게 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혼돈의 시대 끊임없이 브닌나의 괴롭힘의 소리처럼 사회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있는데 아들 못 낳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 남편인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그의 가치가 남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엘가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혼란의 시대는 여성의 가치가 아들에 따라, 남편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2.2. 한나의 해결책 (삼상1:9~20)

아들이 소망이고 남편이 희망인 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소망을 가질 것인가?

베클리대 교수였던 로버트 알트(히브리어 최고 전문가)는 한나에게 말하는 두 가지 세상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① 하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었고 ② 다른 하나의 가치는 남편의 사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두 가지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회와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돈을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소망이라면 그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회의 기대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하는 기대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한나는 본문 9절을 보면 예배하러 갔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널티 성경)에는 일어나서 “and p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나는 10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웠다고 합니다. 깊은 괴로움입니다. 영혼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 모두가 깊은 괴로움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엘리는 타락한 아들들을 용인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야 술 먹고 교회 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먹고 기도하냐 너 술 좀 끊어라 이런 것입니다.
이에 한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끝입니다. 타락한 성직자의 전형입니다. 성도의 아픔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의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이런 응답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3. 한나의 노래 (삼상2:1~10)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다윗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노래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알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혼돈의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내가 붙들 바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나의 반석은 돈이다.
나의 반석은 사람들의 인기다. 아닙니다.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3.1. 소외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무엘상 2장 / 개역개정)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

첫째,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에서는 힘도 없어서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주인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데 그 자리에 처음에는 참석조차 못 했습니다. 막내아들이었던 그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자리에 참석 못 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 소외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마치 배제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 Tip : 파라과이 랜드필 하모니

2015년 발표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영화는 파라과이 카테우라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 즉 랜드필 (Landfill)이다.
랜드필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파비오

파라과이 LandFill Harmonic

파비오 차베즈

돈 고메즈

차베즈는 음악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기를 구할 수 없었다. 그때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돈 고메즈라는 기술자를 찾아가 부탁했는데 그는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설명만 듣고 쓰레기를 이용하여 악기를 만들었다.

이런 악기로 연주를 연습하여 공연을 시작하자 소문이 퍼졌고 교황청에까지 초대되어 공연했다는 실화이다. ❤

쓰레기장에서 얻은 진토에서 건져낸 보석 같은 영광스러운 예가 파라과이 랜드필 하모니입니다. 쓰레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플루트 연주자는 기생이었던 라합이었고, 트럼펫 연주자는 깡패였습니다.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케스트라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현악을 연주하는 이 사람은 한나였고 엘리샤벳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 라엘 리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상의 연주를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연주자 중에 아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은 다 부서졌습니다. 소망도 다 부서졌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원하십니다.

3.2.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무엘상 2장 / 개역개정)
8. ~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두 번째, 한나가 발견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기둥을 세우시고 그 기둥 위에 완벽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질서는커녕 온통 파괴였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시대였고 그리고 야만인들의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를 거부했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온통 파괴의 혼란 혼동뿐일 것입니다. 온통 전쟁이야기 파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워서 죽어가고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지금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온통 절망이었습니다. 다윗은 배제되었고 무시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십수 년간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혼동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의 삶에 하실 일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관점입니다.

3.3.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무엘상 2장 / 개역개정)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 ~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한나가 보는 것은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이기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어떤 전쟁을 치렀습니까?
거대한 거인이 다윗 앞에 걸어올 때 너는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나타나는데 천백 년쯤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자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다 포기했고 약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 마무리

사무엘상 16장까지는 안 좋은 일이 계속됩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조차도 부패했고 초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쯤 후에 사무엘이 그의 엄마 한나의 노래처럼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이 절망 이 혼돈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앉아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앉아만 있을래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가야 할 그곳 그것이 우리가 다음 단계 이제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고, 결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느냐 어찌하여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겠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갑시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다윗에 대하여 아는 대로
② 사무엘상 당시 시대의 상황을 말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③ 한나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비교해
④ 한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⑤ 한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나에게 적용해
⑦ 내가 절망이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8월 6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거절당함을 뛰어넘는 소망 (삼상 16:1, 6~7, 찬 288, 304장)

○ 시작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놓여 있던 그 많은 장애를 마치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뛰어넘는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다윗이 경험한 장애들이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멋있게 뛰어넘은 것처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절당함을 뛰어넘는 확신입니다. 이 세대는 거절당하는 시대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 오늘 이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efore & after
어떤 인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을 많이 보게 되는데, 훌륭한 인물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모습…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10대 때 소년 다윗의 모습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고 부모에게도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소외되었고 거절당했고 자격미달이었고 무시당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 이새의 집으로 가서 누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멋진 사람일 거라 상상하고 갔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멋지게 잘생긴 것을 보고 하마터면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며 막으셨고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리고 일곱 모두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일곱 형제도 난감하고 어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냐고 묻자 아직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좋은 옷을 입히고 선택받기 위해 사무엘 앞에 차례대로 지나가게 했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고 거절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본 론

1. 다윗은 어떤 처지였는가?

1.1. 다윗은 무시당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11.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새는 열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윗은 아들로서 여덟 번째, 남매로도 열 번째로 정말 막내였습니다.

다윗을 여덟 번째가 아니라 막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작은 놈, 하잖은 놈, 아주 보잘것없는 놈이 하나가 남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Tip : 막내(Qatan)
작은, 어린, 하찮은, 중요치 않은, 무가치한 이런 뜻이 있다. <만나 주석>

다윗은 이처럼 아버지에게도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1.2. 다윗은 소외되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11.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장로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양을 지킬 수 많은 하인이 있었는데 이새는 아들 다윗을 그 중요한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고 양을 지키라고 보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1.3. 다윗은 모욕당했다.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28. 큰형 엘리압이 ~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전장에 나간 형들을 위문 갔을 때 다윗에게 큰 형 엘리압이 한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은 또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형들은 계속해서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뭡니까? 지금은 또 왜 내가 잘못했냐고 하는 겁니까? 뭐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대답을 볼 때 형들에게 계속 모욕당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다윗은 자격 미달이었다.

(신명기 23장 / 개역개정)
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은 모압 사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증조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했고, 형들에게 모욕당했으며 민족(총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민족과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던 다윗이 뒤늦게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무시하고 버렸고, 민족이 버렸고, 형들에게 모욕당했던 바로 그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생강과 계피와 같은 향유를 섞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관유입니다. 이 관유를 꼭 찍어서 안수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몸을 적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덮고 흘러내릴 때 다윗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입니다.
기름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능력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의 벨라스케스 화가 그림을 보면 아버지와 형들의 표정과 눈빛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잔뜩

찡그리고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사진>

☛ Tip : 벨라스케스 화가 (1599~1660)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17세기 유럽회화의 중심적인 인물이다. 18세기 고야, 19세기 마네, 20세기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등 수많은 화가에게 강력한 영향과 영감을 준 '화가 중의 화가(the printer of printers)'로 평가받고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성벽같이 가로막고 있었던 난관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장면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생각했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사무엘과 형제들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시편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 개역개정)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내 팔이 다윗을 힘이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시 89:26)
육신의 아버지는 무시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열 형제자매 중에 막내였지만 장자로 삼고 세상 군왕들의 지존자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름을 받고,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받는데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야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분명한 것이 우리를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매일 매일 거절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삶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거절당함의 시대 거절당함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지셨습니까?
바로 거절당한 사람, 배척당한 사람, 무시당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당한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중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무시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2.1. 내가 거절당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신다.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절당했어도 나를 선택하십니다.
다윗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나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택함 받기 위해 무엇인가 하기도 전에, 뭔가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몸부림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 영어 성경에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2.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신다.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여 부르셨고, 자녀 삼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13. ~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

세 번째,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입니다. 내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을 누가 가졌습니까? 바로 내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미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매일매일 힘들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네가 너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는 관점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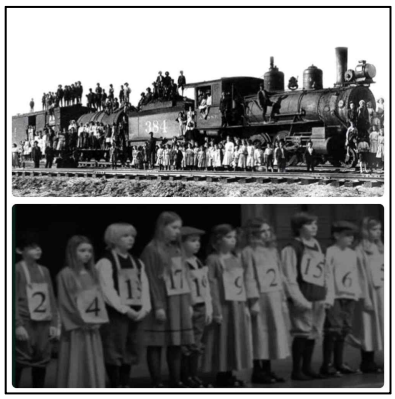
○ 마무리 :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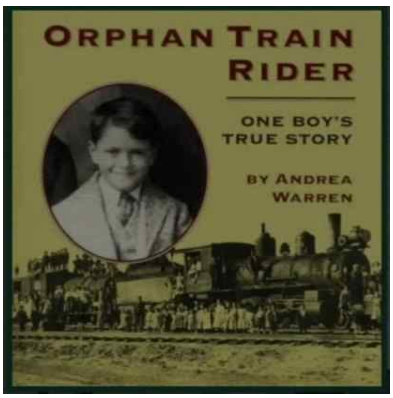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내 삶

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나를 위하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참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 Tip : 고아 열차(Orphan Train) 이야기



미국에서 1854년부터 1929년까지 수십 년간 일어났던 아픈 역사다.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수많은 버림받은 고아들이 있었다. 이들을 동부에서 열차에 태워 서부 끝까지 가면서 큰 마을이나 중소도시에 정차하여 원하는 가정에 입양시키는 입양 고아 열차였다.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글로 썼다.
(Orphan Train Rider 한 소년의 실화)
그 사람은 리 네일링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자녀 세 형제 중 하나였는데 아버지에 의해 삼 형제 모두 열차에 태워졌다.
열차가 출발하고 여섯 번째 정류장에서 한 형제가 먼저 입양되었다. 얼마 가서 동생이 입양되고 자신만 남게 되었다.
입양 가정에 선택되지 못하고 다시 기차를 타야할 때 여덟 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어느 믿는 가정에 그도 입양되었다.
남자가 크고 우락부락하며 말투도 거친 사람의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으나 너무 거칠어서 도망갈까도 생각할 정도였다. 식사 후 양아버지는 자기 손을 잡고 이발하러 가자면 데리고 나갔다. 이발소까지 여섯 개의 집을 통과해야 하는데
첫째 집에 들러서 주인에게 “내 아들입니다” 두 번째 집에 들러서도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집까지 가면서 “내 새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이 집에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발 후에 찍은 사진이 책 표지의 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찾았고 내 육신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더 볼 수 없었지만 나는 대신에 아버지를 얻었다. 두 아버지를 얻었다. 한 아버지는 이 사람이고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혹시 내가 고아 열차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대는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거절함을 뛰어넘는 확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떤 대우받았고 어떤 상태였는지
③ 이새의 아들 중 누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④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의 성경적 증거를
⑥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성경적 근거를
⑦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의 성경적 근거를
⑧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⑨ 고아 열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의 느낀 점을

8월 13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거인을 뛰어넘는 용기 (삼상 17:45~47, 찬 302, 357장)

○ 시작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다윗을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인을 뛰어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앞에 거인(문제)이 무엇입니까? 질병, 물질, 사람들과 관계,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로 불안에 떨면서 마비되어버린 삶,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말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세 가지 중의 하나일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세 가지** :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 사무엘상 17장 1~27절 개관 : 블레셋과 이스라엘 대치 상황

① 시대 상황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를 세우고 초대 왕인 사울 왕 시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10대 소년이었다. 이때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다.

☛ 블레셋

기원전 13세기 말 지중해 에게해에서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으로 침입하여 정착한 비셈계 민족으로 '가자,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 5개 부족 연맹국가(수13:3)로 이스라엘과 매우 적대적 관계였다.

② 지형분석

블레셋은 가나안지역 서쪽 해안지역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은 해안산맥 오른쪽에 거주했다.
<그림1 참조>
블레셋의 침략으로 엘라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

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은 아세가 지역에 진지를 편성하였고, 이스라엘은 엘라골짜기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다.<그림2 참조>

③ 전력비교

☛ 신체조건

골리앗은 여섯 규빗 한 뼘(2.4~2.9m)
Robert Wadlow(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 1940년 사망, 2.72m) <그림3 참조>
사해 두루마리 성경과 70인역은 4규빗 한 뼘(2.22m) 기록 존재
샤키 오닐(미국NBA 농구 선수, 2.127m)
케빈 하트(코메디언, 1.57m)

로버트 워들로의 키를 볼 때 골리앗의 키가 불가능한 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에 대해 사해 두루마리 성경과 70인역에는 4규빗 한 뼘(2.22m)이라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가 케빈 하트의 키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샤키 오닐과 케빈 하트의 모습 정도가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림4 참조>

☛ 전투무장

골리앗 : 청동 갑옷으로 완전 무장(놋 투구, 비늘 갑옷<5천 세겔>, 놋 각반, 놋 단창, 창 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
다윗 : 비무장에 물매 하나와 물맷돌 5개

이것은 단순한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가 아니라 양 국가의 전력 비교이기도 하다. 블레셋은 해양 세력으로 청동 물자가 풍부했으나 이스라엘은 사울 시대에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청동기와 석기 시대의 싸움 같다. 싸움이 될 수 없는 전투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전투경과**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이 나와 “너의 대표 한 사람과 내가 맛짱을 떠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이렇게 40일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어떤 저항도 못 하고 포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40일 만에 다윗이 등장하고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일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삶에서 계속해 공격하는 거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다면 40일 만에 다윗이 나타난 오늘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해결의 문이 열렸고 승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본 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기 전 본문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을 먼저 살펴봅니다.

1. 세 종류의 사람

1.1. 골리앗
그들은 약하고 나는 강하다.
자기중심적 용기
나는 더 많은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강해 그러나 너희는 약해, 이 용기는 자기중심적 용기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나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의 모습이고 꿈꾸는 삶의 모습이 사실 이 골리앗입니다.

1.2. 사울

그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자기중심적 비겁
나는 부족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는 나는 약한데 너는 강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겁이 많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비겁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포기해버린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미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1.3. 다윗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중심적 용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골리앗과 사울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용기입니다.
나는 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용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은 늘 피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2.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적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2.1. 패배주의적 사고를 제거하라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28. 큰형 엘리압이 ~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
30.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아서)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 다윗이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되 ~

첫째, 패배주의적 사고를 제거하라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고 지금 다윗에게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건방 떨지 말고 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겁니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 “넌 안 돼” 꼬맹이가 와서 뭘 한단 말이냐 이런 패배주의적 소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을 보면 돌아서 버렸습니다. 말하든 말든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적 생각,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께 “넌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돌아서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33절과 34절, 사울 왕의 만류에 다윗은 “네 그럼 안 할게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되 굽히지 않고” 이런 말씀이 많은 성경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패배주의적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패배주의적 소리를 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에게서 패배주의적 생각과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거인을 뛰어넘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패배주의적 생각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2. 내 힘의 원천을 확인하라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 번째, 내 힘의 원천을 확인하라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이 내 힘의 전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때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챔피언이야 누구든지 나에게 덤벼 봐 이런 생각으로 그 전쟁에 임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난 할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치며 그 거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다윗이 가진 용기였습니다.

37절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릴 때 가능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기지 못했으면 지금 그 자리에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과거에 하신 일이 현재 확신이 된 것입니다. “나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두 가지는 사자를 이기게 한 것과 곰을 이기게 한 것 그것이 현재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골라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 **Tip : 물매와 물맷돌**

그림5

양치기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나운 짐승들을 향한 공격용 무기였다. 그림은 약 4천 년 전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매입니다.
물매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실험했다.
리볼브 권총을 쏘는 위력과 같다고 한다. (2017년 5월 24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 (사사기 참조)

(사사기 20장 / 개역개정)
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4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이것은 승리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에게 능력이 부어졌고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것을 경험했어,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47절,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17장에서 지금까지 다윗 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인 중심으로 거인만 생각하다 거인 때문에 내가 죽겠다며 거인에게 집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무기와 돈에 달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기술이 좋아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는 물매 잘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 Tip :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이야기

높이가 3m 정도 되는데 머리가 좀 크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바라보는 위치가 1.5m 정도 아래에서 보면 정상적인 비율일 경우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그래서 보는 위치를 고려하여 비율만큼 얼굴을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
다윗상에서 두 개의 표정이 다르게 보인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그림6 하,좌>은 아래에서 바라본 표정이다.
결의에 찬 모습<그림6 하,우>은 골리앗의 거리에서 골리앗의 각도로 본 표정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물매를 메고 나가 싸우기 전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때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인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그 문제를 직시할 그때 승리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 나의 거인은 무엇인가?
재정적인 문제, 질병, 옆사람, 자녀 등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직시해 보세요.

◆ 나의 하나님은 더 크시다.

3. 전장으로 달려가라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

세 번째, 전장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두렵고 떨며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그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40일간의 침묵을 깨고 다윗이 전장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자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져 물매를 날리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도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달려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달려갈 엘라 골짜기가 어디인가?
내가 향해 달려갈 골리앗이 누구인가?

52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쫓아갔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아주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려간 그때가 언제인가?
한국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때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날 일어난 일에 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 마무리 : 믿는 대로 행동하라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천년 후에 또 다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 앞에 또 다른 다윗 앞에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은 세상이 다 들어도 이길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은 죄의 거인, 죽음의 거인, 좌절과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과 싸워 이긴 챔피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를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소리치고 있는 그 사탄, 그 세상의 죄, 세상의 죽음에 그 거인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물리치시고 넘어뜨렸습니다.
이때 그 거인이 넘어졌을 그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거대한 거인의 잔재요 그 그림자인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거인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매를 날리십시오. 보잘것없는 돌멩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을 붙잡으시고 그 돌을 골리앗 이마에 박을 것입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② 거인을 직면할 때 패배주의적 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다면
③ 다윗은 부정적인 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④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 거인을 뛰어넘는 확신이 됩니다. 지난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⑤ 다윗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었으며 나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⑥ 나의 거인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받은 돌 위에 “나의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고 적어 봅시다.
⑦ 내가 지금 달려 나갈 전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말해보고 우리의 승리를 누가 성취하셨는지

8월 20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어둠을 뛰어넘는 빛 (삼상 22:1~2, 22~23, 찬 304, 84장)

○ 시작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네 번째 어둠을 뛰어넘는 빛으로 굴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동굴하면 우리는 종유석이 거꾸로 자라고 있는 고수동굴 같은 멋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동굴은 그런 낭만과 환상적인 모습이거나 관광으로 잠시 들리는 동굴이 아닙니다.
숨어 생활하는 거주의 공간으로 동굴입니다. 동굴은 불편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일단 어둡고 빛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동굴에 있습니다. 이런 동굴에서 어떻게 이 어둠을 뛰어넘는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다윗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다 동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동굴, 관계가 깨짐의 동굴, 죽음의 동굴, 소망이 없는 동굴, 직장의 동굴, 무직의 동굴 등 어두운 동굴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굴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 빛이 없고 어둡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동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는데 왜 굴에 있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경

(사무엘상 18장 / 현대인 성경)
14.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15.사울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으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백성들이 환호했으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자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무엘상 19장 / 개역개정)
1.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

(사무엘상 19장 / 바른성경)
10.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다윗이 피하여 그 밤에 도망하였다.

심지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직접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피하여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았고 지금은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는 것입니다.

○ 본 론

1. 다윗이 잃은 것

먼저 다윗이 잃어버린 것을 살펴봅니다.
① 직업(궁중 악사)을 상실했습니다.
② 소유물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창문 밖으로 탈출해서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③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회하게 된다.)
④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승이자 멘토인 사무엘을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⑤ 가장 절친 요나단을 잃었습니다.
⑥ 존엄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으나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 하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여 위기를 모면할 정도로 존엄성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2. 아둘람 굴

(사무엘상 22장 / 개역개정)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음, 다윗이 피한 아둘람 굴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둘람 굴은 엘라 골짜기에서 한 3km 정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쫓기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지만, 승리하고 성공한 삶과 굴속에 피신한 삶이 너무 가깝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고 모퉁이도 채 돌기 전에 동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와 형제와 친척들도 다 그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에게 무시당했고 거절당했고 철저하게 배격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 함께한 자들이 무려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커다란 짐이고 숙제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때 심정을 노래한 내용이 시편 142편과 57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많이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노래했습니다.

3. 동굴에서의 생존법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동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 생존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윗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후 동굴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무려 7년 이상 동굴 생활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성공을 이루었고 그의 번성은 불과 몇 달간 지속되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져 동굴에서 무려 7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은 동굴의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7년이나 아둘람 굴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빛을 발견했는지 다윗이 했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3.1.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라

(시편 142편 / 개역개정)
1.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첫째,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라
본문을 보면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토로하며, 내 원통함을 진술하는도다. 부르짖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불평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토해 내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Tip :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The Bible Jesus Read) <필립 얀시>**

핍립 얀시는 미국 애틀란타 출신으로 캠퍼스 라이프 저널리스트, 크리스챠니티 투데이지 총 편집자, 미국 기독교 도서 최우수 저서상 수상
그는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란 저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용의 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제되지 않는 분노를 처리하시고 고칠 수 있다. 내가 원수 갚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시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기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필립 얀시의 이야기다❤

나의 보복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내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받으시고 치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건 그것이 맞는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기 시작하시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편 142편 / 개역개정)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지금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하고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내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2.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신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42편 / 현대인 성경)
5.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나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다 잃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시네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네요. 이렇게 깨달았다는 사실이 우리도 이렇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정말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2편 / 쉬운성경)
7.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하고 굴로 떨어질 때는 좋으신 분인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나 받은 축복이 믿음의 기초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57편 / 개역개정)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refuge)라고 말하기를 너무 좋아했고 다윗의 시를 보면 40번 이상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좋아한 말이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품는 것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7편 / 쉬운성경)
2.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시편 57편 / 쉬운말성경)
10.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크고 높아서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신실하심, 너무 크고 높아서 구름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나를 위한 주의 목적

다윗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②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그 사랑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의 전부였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3.3.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다윗의 사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 가족들을 포함 400명가량이나 모였습니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꺼이 그들의 대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 Tip : 아비아달

다윗이 사울을 피해 급하게 도망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한 일이 있었다. 이때 아히멜렉은 사울의 명을 거부하고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이 모습을 본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여 사울은 제사장 85명과 양과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

이때 대제사장의 손자(또는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피신해 왔고 다윗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되었다.♥

아비아달이 피신해 왔을 때 다윗은 왕도 아니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도망 다니기도 힘든 사람,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바로, 이 다윗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렇다면 네가 안전하리라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고>
(사무엘상 22장 / 개역개정)
2. ~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

(사무엘상 22장 / 개역개정)
23.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11장 / 개역개정)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마무리

(시편 41편 / 개역개정)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의 결론 시편 41편 1절입니다.

환난 때, 동굴의 시간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동굴의 삶의 특징은 모든 관점이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살아야 하고 그러나 이때 우리의 관점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관점을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두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윗의 아둘람 굴은 더 이상 굴이 아니고 터널이 되었습니다. 굴과 터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굴은 끝까지 캄캄해요. 가도 가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주 오랫동안 캄캄함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끝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캄캄한 굴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끝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찾아서 그 터널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동굴을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과거만 생각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계속 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터널 끝의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굴을 터널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빛을, 우리의 무덤에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 무덤은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밝히시고, 그 무덤을 터널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터널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굴이라고 생각하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어서십시오.
다윗과 함께 굴이 아니라 터널에 앉아 있어 봅시다. 그 터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터널을 계속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나는 지금 동굴 속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②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③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④ 동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과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신지

⑥ 동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생각하기 쉬운지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지

⑦ “우리가 있는 곳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이 말의 뜻을

⑧ 동굴을 터널로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8월 27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복수를 뛰어넘는 용서 (삼상 24:1~4, 찬 309, 251장)

○ 시작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다섯 번째 “복수를 뛰어넘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한을 갚는 복수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원수를 갚을 것인가?” 하는 큰 성벽 앞에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한과 복수 앞에서 용서의 본이 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 Tip : 에바 모제스 코르(Eva Mozes Kor, 그림1)
2차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 살아남은 유대인 여자이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의학적 실험을 통해 태어난 1500명의 아이들 중 한 명으로 일란성 쌍둥이 자매 언니가 있었다. 나치에 의해 부모님과 언니도 죽었으나 그녀는 살아남아 전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개설하고, 인종차별의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잘 극복하여 용서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다. 그가 1993년 경험한 일이 있다.
정기적으로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는데 1993년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에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다. 의학박사 한스 문츠였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는 의학실험을 주도했던 당시 의사였다. 그는 에바에게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바는 그동안 수없이 용서에 대해 강연을 하고 다녔지만, 막상 상황에 처하고 보니 “당장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제와 씨름하는 데 무려 넉 달이 걸렸다. 성경과 랍비들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그 가르침 중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시들게 할 것이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종합되어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문츠 박사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 서명을 한 즉시 수십 년 동안 안고 있던 나의 모든 고통이 내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용서한 것이 그 문츠 박사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되기 전에 내가 즉시로 받은 은혜, 그것이 내 인생을 바

꾸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용서에 대해 말을 했다.♥
그녀는 그때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교차로에 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 **다윗의 상황 (그림2, 3)**

그림2

사울에게 쫓겨난 상태로 도망자 신세였다.
사울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다 망가졌다.
사울은 다윗을 두 번이나 창으로 죽이려 했다. 그래서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도망했다. 7년 이상 도망자의 생활 중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사울이 3천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온 것이다.
유대 광야는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죽음의 호수 사해가 있고, 오아시스 엔게디도 있다. 엔게디는 물이 있고 샘이 있고 식물이 있고 피난하기 위한 동굴이 있었다.

그림3

다윗이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있을 때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와서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용변을 보는 상황이다.

그림4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림4)

◆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 개역개정)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들도 알고 있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 그것이 내 문제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본 론 : 다윗으로부터 얻는 교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 자비를 보이라

첫째, 자비를 보이라 입니다. 자비로운 행동, 선행과 말로 보여야 합니다.

1.1. 자비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 개역개정)
4. ~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로 살 금이 가서 그 겉옷 자락을 잘랐습니다. 그것조차도 다윗에게는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인 행동, 선행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라고 사람들이 말했고, 그래도 될 것 같은 그 순간 다윗은 자비를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 멀리 떨어졌을 때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처럼 다윗은 자비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1.2. 말로

(사무엘상 24장 / 개역개정)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람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내 주”라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표현하면서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여도 시원찮은데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베푼 자비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권한들, 너무너무 올바르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법치국가에서도 사적으로 원수 갚는 일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②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③ 하나님의 때 하는 것입니다.

2. 진실을 말하라

(사무엘상 24장 / 현대인 성경)
9~10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왕은 내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은 바로 오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내 부하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시다. 하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1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이것만 자르고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으나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왕은 이것으로도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하라 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에는 11절 앞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비록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으나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말로 논쟁할 때 다윗이 모델로 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되거나 축소됨이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②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분노들이 가라앉지 않았겠습니까?

③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논쟁하지만,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논쟁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으로부터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안전을 유지하라

세 번째, 자신의 안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과 학대하는 성격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웁니다. 다음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폭력적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서로 화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비를 베풀고, 진실을 말하지만, 사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는 문제와 용서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마사다 요새입니다.

릭 워렌 목사는 용서와 관련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범죄를 최소화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즉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변화 없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정상화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가야 하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와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모든 상황을 다 덮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또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보이라. 행동으로 자비를 보이고, 말로 자비를 보이고, 진실을 말하라. 솔직하고 겸손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말하라.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라. 용서했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신뢰해야 하지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더 큰 그림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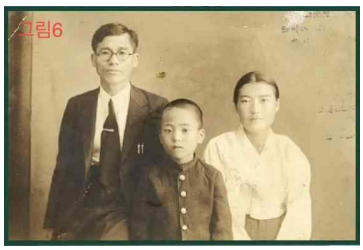
네 번째, 더 큰 그림을 보라입니다. 먼저 용서했던 사람을 다시 살펴봅니다.

☛ Tip : 덴 와그너 부부 이야기 (그림5)

그는 크리스천 가장으로 아내 린 와그너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두 딸이 장성했을 때 어느 날 교회 행사가 해변에서 있었는데 온 가족이 참여했다 돌아오는 길에 마약에 취해 있던 어떤 소녀가 운전하는 과속 차량에 치어 부부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두 딸은 죽었습니다.
마약과 음주 운전했던 사람 리사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썼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용서로 가는 그 단계를 책으로 썼다.
아내는 이런 간증을 했다.
“리사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긴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난 그 직후에 그 여자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여성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리사의 어머니도 딸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6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그 기쁨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삼킨다면 그것은 독을 삼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사를 용서하는 과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싶어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결국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묶여 끌려다니게 됩니다. 용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용서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함께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라 그리고 함께 그 터널을 통과하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부는 이제 리사와 함께 식사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 **손양원 목사 (그림6)**

『사랑의 원자탄』 저자이자 용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두 아들(동인, 동신)과 딸 동희가 있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반란이 진압되고 범인 안재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이들은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결국 하나님은 목사님 마음속에 사랑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한 그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안재선이 총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 사면해 줄 것을 간청했다. 자신이 데려다 아들로 삼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다. 딸이 전한 아버지의 메시지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4.1. 더 큰 재판관이 계신다.

(사무엘상 24장 / 새번역)

12.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현재처럼 삼심제 같은 제도가 있어 어떤 범죄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적인 체계가 있는 사회가 아니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현재도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억울함에 처하고 원한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때 더 큰 재판관이 있으니 그분께 다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4.2. 더 큰 계획이 있다.

(사무엘상 24장 / 개역개정)
15.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두 번째,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큰 계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인 사울도 다윗에게 더 큰 계획을 말하고 다윗의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한 것보다 그것이 지난 후에 보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3. 더 큰 은혜가 있다.

(시편59편 / 현대인 성경)
16.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꿈꾸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됩니다.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쫓기고 있었지만, 다윗의 상상력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사울에 쫓겨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결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난으로 복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아픔과 괴로움과 원수 갚고자 하는 원한이나 증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다 내보내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

유대인들에게 속죄의 날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 : 유대 최고의 명절)
염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재물로 죽이고, 한 마리는 그 몸에 모든 죄를 다 씌우고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아사셀 양, 그림7)

이 날은 속죄의 날이지만,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들어가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이 의식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속죄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날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절둑발이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을 찾아 아들 삼겠다 하고 함께 식탁에서 먹고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내 모든 상속은 다 너희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크신 은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기억해 보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② “원인이 아무리 옳아도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 말에 대한 내 생각은

③ 다윗을 통하여 진실을 말하는 태도 (솔직하게, 겸손하게, 희망을 가지고)

④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⑤ 궁극적으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지

⑥ 더 큰 그림을 볼 때 크신 재판관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재판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⑦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⑧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9월 3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거부를 뛰어넘는 소망 (삼하7:18~29. 찬369, 363장)

○ 시작하며

3천 년 전에 일어난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는 것은 다윗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뛰어넘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실 때 어떻게 극복하며 뛰어넘는가를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들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 사무엘하 7장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No는 궁극적인 Yes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나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무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다윗은 쫓기던 시절이 끝나고 다윗의 삶에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으로 최절정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는 위대한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성막에 있는데 그 성막은 400년이나 된 낡은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마저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이런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산맥과 골짜기로 본다면 사무엘하 7장은 산맥 제일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성경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의 절정입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7장에 따라서 흘러갈 것이고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 본 론

1.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그 좋은 다윗의 아름다운 기도에 No 하셨을까?

1.1. 더 큰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 (삼하7:8~13)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더 크게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No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갑니까?
왜 내 삶에 이런 Stop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야는 훨씬 넓고 먼 곳을 바라보십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땅에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곳에 정착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즉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길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 개역개정)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지금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때로부터 3천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기도가 응답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 (삼하7:13~16)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아들이 그 집을 대신해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놀라운 계획 즉 영원히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세기도 채 못돼서 다윗의 왕국은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1세기도 못가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그의 후손 중에 한 분을 세워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도에 No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갔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다시 짓고 싶다던 성막 그 하나님

의 임재 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앉았다고 말합니다.
들어가서 앉아서는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dwell(거주하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흠쩍 적셔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에게 흠뻑 적셔지도록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나에게 뼛속까지 스며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2.1.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첫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일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 / 개역개정)
18.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0.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7장 / 개역개정)
21.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된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다른 신과 다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신전을 헌납하고 헌당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내가 당신께 이것을 드리니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당신께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원리라면 하나님은 완전 다릅니다.
신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게 하시고 신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을 해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지어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신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 년쯤 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으니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2.2. 거절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두 번째, 거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 개역개정)
25.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No 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Yes입니다. 가장 기분이 좋지요.
두 번째, 기다려라. 그래도 견딜 만합니다.
세 번째, No입니다.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No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No 하시는가?
훌륭한 많은 사람들, 믿음의 모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도 No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No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No 하셨습니다. 이 잔(십자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No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No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No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No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고 No 하신 것을 이제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교구장인 저는 정말 많답니다. 그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다면 세광교회 장로가 아니라 지금 어느 시골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No도 응답인데 No로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으로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쪽 즉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결국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rejection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인류 역사가 변화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가 그 한 발짝 한 발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No 하신다고 할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3.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무엘하 7장 / 개역개정)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현대인 성경)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의 축복(with your blessing)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에 No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의 축복 your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저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는 대로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제 3천 년쯤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이 믿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마무리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보다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영원토록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발전시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 개역개정)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9장 / 개역개정)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조는 100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 다윗이 붙들고 있는 그 미래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말씀의 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어요. 저 메시아로 이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는 기도와 흡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또 No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되고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지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 개역개정)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No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Yes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No 하실 때 너무너무 괴롭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도 남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도 남는 그 이야기는 그 놀라운 치료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No 하시는 그 기도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어서십시오. 전진해 나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함께 말해 봅시다.

① 내가 한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말해 보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땠는지

②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고 이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③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다윗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④ 우리의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실 때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⑤ 다윗은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하며 다른 신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⑥ “하나님의 거절(rejection)을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redirection)으로 보라”에 대한 나의 생각, 경험을

⑦ 다윗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⑧ 나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9월 10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실패를 뛰어넘는 은혜 (삼하11:1~4, 시51:1. 찬393, 305장)

○ 시작하며

다윗의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일곱 번째, 실패를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봅니다.

☛ Tip : '로저스 커텐헤드' (미국 작가)의 1987년 3월 셋째 주

이 사람은 미국 작가로 교황의 선종이 임박하다는 소식을 듣고 교황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여 판 사람이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 선출된다는 소식을 듣고 '베네딕토16.com' (Benedict XVI.com) 등 베네딕트 관련 도메인을 먼저 선점하여 교황청에 팔았다기보다 기증했다. 기증하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바티칸 호텔 무료 숙박권이었고, 또 하나는 ***"1987년 3월 셋째 주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면해 주십시오."*** 그는 카톡릭 신자여서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날은 꼭 지우고 싶은 나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날이 있었다.

◆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① 다윗의 첫 번째 잘못된 결정
이듬해 (봄으로 추정) 적대관계에 있던 암몬과 싸우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지만, 다윗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다윗은 영웅이었고 군인이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지 않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다.

② 저녁때 침상(낮잠을 잔 것으로 보임)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이 들어 누군지 알아보게 한다.

③ 누군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한다.
엘리암과 우리아는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충신 중에 속한 충성스런 부하였다. 또 아히도벨의 손녀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아히도벨은 다윗과 완전히 갈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 편에 서게 된다.)

④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밧세바는 생리 기간이 끝나 당시 규례에 따라 깨끗하게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는 해석은 다윗의 잘못을 희석하려는 잘못된 해석이다.)

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 동침하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된다. 이에 다윗은 잘못을 숨기려 엄청난 음모를 획책하게 된다.

⑥ 다윗의 Plan A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과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불러들여 집에서 휴가를 보내게 했으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 계획이 실패한다.

⑦ 다윗의 Plan B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여 다시 집에 가서 자도록 지시했지만, 우리아는 왕궁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자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 Plan B도 실패한다.

⑧ 다윗의 Plan C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두고 물러서서 그를 적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사형 집행서와 같은 편지를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했다. 결국 우리아 장군은 전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거의 반 이상을 어기고 있습니다.

⑨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다. 완전범죄가 성공한 것처럼 되었다.

⑩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합니다. 11장에서 여호와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괜찮아 보이지? 성공한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하다.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 본 론

1. 참된 의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의(義)

(사무엘하 12장 / 개역개정)
7.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된 의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고 그 양을 자식처럼 끼웠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가축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자식 같은 양을 잡아 대접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듣고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더러운 사건인데 왜 기록했을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 다윗은 강력한 군주로 충분히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의가 가장 방해받는 것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의입니다. 나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는 이것이 가장 방해가 되는 자기 의 때문입니다.

나의 분노는 나의 열정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오늘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 같은 영웅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웅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서 뽑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뽑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도 영웅입니다.
다윗 같은 영웅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세 가지 진리

자기의 의에 빠져서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살펴봅니다.
다윗처럼 회복되는 것, 그 실패를 넘어서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2.1. 죄의 힘

(사무엘하 12장 / 개역개정)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

첫째,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정말 보는 것에 실패하는 것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 쉬운 말 성경)
13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니 제 손으로 왕을 해치는 악을 결코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나 잠언이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나 전통적인 사회에서 있었던 어떤 주워들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악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없어, 나는 선한 사람이기에 악이 나올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주 강력한 악이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쁜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빠 보이지만, 이유가 있고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 개역개정)
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이 오늘 이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장 끔찍한 행위의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작은 욕심, 작은 권한, 작은 상처, 작은 교만들은 적당히 물만 주면 다윗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들의 삶을 덮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옥상은 어디일까요?
옥상보다 더 편리하고 은밀한 컴퓨터, 인터넷입니다. 안방에 앉아서 모니터를 통해 다윗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욕을 자극하고 물질도 보입니다. 좋은 옷도 차도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도 다윗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자기 것이 아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보고 있다면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2.2. 결과의 고통

(사무엘하 12장 / 개역개정)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 죄의 결과는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제들끼리 강간하고 형제들끼리 살인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에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본받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후 자신의 범죄한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곳에서 남겼습니다. 진짜 자기의 범죄한 것이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시로 써서 고백하고 알렸습니다. 시편 51편 57편 142편 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미웠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인데 막내아들 이름을 나단으로 지은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2.3. 구속의 가능성

다윗의 회복을 시편 51편의 세 절을 통해 살펴봅니다.

(시편 51편 / 개역개정)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 쉬운 말 성경)
1.오 하나님이시오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죄를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런 근거로 용서를 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근거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자비를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를 뛰어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라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잘못된 것과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완벽한 회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1편 / 개역개정)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깨진 심장을 말합니다. 3천 년 전 이 시대에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난 끝났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산산조각 다 부서졌습니다.

(시편 51편 / 개역개정)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다 부서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에게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데서 그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왔다면 좌절하고 절망한 채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같지 않아요. 왜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새 영을 나에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습관, 새 생명, 새 생각 그리고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 마무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정말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평생 나쁜 짓을 한 이 사람은 죽는 그 몇 초 사이에 나를 천국에 데려다주세요.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 기도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천 년 전에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앞에서 살펴본 1987년 3월 셋째 주, 정말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 시편 51편, 57편, 42편은 너무 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도자 :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 중 :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 중 :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인도자 :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 중 :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도자 :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회 중 :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같이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나의 과거의 삶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② 삼하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말해 보고 우리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하는지(삼하11:27)
③ 오늘 나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④ 죄가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고 이 시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⑤ 죄 용서는 받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다윗을 참고하여
⑥ 나단의 지적에 대해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⑦ 우리의 죄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⑧ 오늘 내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

9월 17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분노를 뛰어넘는 힘 (삼하16:5~14, 찬400, 489장)

○ 시작하며

☛ Tip : 시작 영상 내용 요약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분노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희망 없음, 비전 없음, 병든 사회, 분노 표출, 참지 못함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을 말해 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왜 참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노를 뛰어넘는 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회학자는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Age of Outrag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인터넷상의 뉴스들, 운전할 때 끼어드는 운전자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노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분노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여덟 번째 분노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 다윗의 삶

① 10대 소년 시기 (10대 중후반)

골리앗을 물리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순결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② 20대 청년으로 10년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동굴에서 산 사나이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③ 30대 왕이 됨 (40년간 재위)

다윗은 30세 때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궁전에서 편리함을 느끼면서부터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여 임신

시키고 이를 숨기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곧바로 회개하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④ 60대부터 말년

그러나 60대부터 다윗의 삶 10년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활동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무기력함과 마치 영혼 없는 몸이 궁전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판단과 결단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다윗이 열었던 그 죄악의 문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다윗의 아들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 개역개정)

6. ~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자녀들에게 왜 그랬냐고 잘잘못을 가르치지도 꾸짖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은 다수가 범죄로 뛰어들어 가게 되었고 방종했습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그 사실을 다윗 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심히 노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도덕적 결함 (밧세바 강간, 우리아 살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활동적인 사람으로 그 모든 경기장에서 뛰었는데 지금 경기장에서 나와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압살롬 이야기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자기 집에서 보호했고 돌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정의를 구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초청, 잔치를 베푼다는 명분으로 암논을 유인하여 살해하게 됩니다. 강간과 살인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 개역개정)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 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매우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었다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그 무게가 2.6kg 정도였습니다.
압살롬은 정서적으로 감성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딸 이름을 다말로 지었습니다.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처량하게 살고 있는 누이 다말을 생각하며 지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 개역개정)
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은 그리고 4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왕을 대신 자신이 재판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민심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렇게 4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 개역개정)
13.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무기력함과 행동하지 않았던 그 기간이 11년에서 1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는 이 순간부터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왜 도망가자 했을까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윗 편이라고 간주하여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한다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61세의 나이로 다시 왕좌를 버리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향하여 산을 비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감람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길을 반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했던 그 일들을 지금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다윗은 자기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정탐꾼을 파견하고, 동맹군을 만나 임무를 부여하고, 첩자를 심고, 제사장들의 모임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편 3편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3편 / 개역개정)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살려줄 때 그 다윗의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결정하는 그 다윗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 / 개역개정)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제사장 사독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에게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담대한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열었던 그 죄악의 문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와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가정의 많은 어려움, 절망들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받았음을 알지만, 죄책감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일과 사명과 해야 할 그 일에 충성스럽게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본 론

◆ 시므이 이야기 (삼하16:5~8)

(사무엘하 16장 / 개역개정)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 감람산 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족속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 왕과 신하들에게 욕설과 돌팔매질을 하고 살인자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벌을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분노 촉발, 분노를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다윗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봤습니다.

1.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다.

첫 번째,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뛰어넘는 힘, 첫 번째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하는

그 힘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6장 / 개역개정)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오늘 등장인물 중에 시므이와 다윗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복수합시다. 그냥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굴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아비새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물병과 창만 살짝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아비새는 “죽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 개역개정)
10.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NLT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No! The King Said”라고 다윗은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No”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 Tip : Unoffendable 책

이 책의 주제는 어떻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만 변화되면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정말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변화는 복수하지 않은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분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는 20가지 이상의 장으

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주장한다. 또 우리가 기분 상하고 분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단순하고 편안하고 상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격려받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이며,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다시 용기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분노하면 처음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좀 참을 걸 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것이 분노입니다.

☛ Tip : Cyclogic Today에 기록된 스티브 테일러의 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그 존경심이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든지, 내 전화를 안 받을 때 자기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상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분노함에 반응하기 전에 무시당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학자는 폭력 행위는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온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폭력적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테일러 등 심리학자들은 모든 살인 사건의 2/3가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감정의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분노하지 않아야 할 운동이나 커뮤니티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것이기에 교회를 통해서만, 이 사회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분노의 시대, 분노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1.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사무엘하 16장 / 쉬운 성경)
13.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시므이는 길 맞은편 언덕 위를 걸었습니다. 시므이는 계속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첫째,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 개역개정)
16.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건 피부가 아주 얇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보라 내가 도발하는가?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1.2. 자제력을 키우라

(잠언 29장 / 개역개정)
11.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둘째, 자제력을 키우라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참을성과 자제력을 키우라. “마음을 다스려 화를 잘 삼킨다”하는 영어 성경은 The wise bring calm in the end 마음에 마지막 평안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오히려 평안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화를 다스리라 그러면 네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참아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피부가 두꺼워져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2. 다윗은 이해했다.

두 번째, 다윗에게서 발견한 분노를 뛰어넘는 방법은 다윗은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 개역개정)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그 베냐민 사람에게 이유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가족이 몰락하면서 그 가문도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도발하게 된 이유는 있을 것이다. 이처럼 Behind Story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Tip :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드 개념이야기

뉴욕 지하철에 한 남자와 아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함께 탔다. 조용한 열차 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면서 소란을 피웠다. 승객들이 짜증을 내며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며 분노했다. 그때 그 남자는 "죄송합니다. 조금 전 병원에서 아이들 엄마가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차에 탄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열차 안의 승객들 반응이 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들을 도발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였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단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 개역개정)
11. ~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손에 올려놔

라. 내가 그것을 처리해 줄게.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오늘 다윗의 믿음이었으며, 오늘 이 분노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분노를 촉발하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 즉,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다. 다윗은 이해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였다."입니다.

4. 다윗은 용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용서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압살롬 군사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여 개선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행렬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 개역개정)
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22.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비새는 이번에도 죽이자고 청을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들으라 너희는 왜 내 일에 간섭하고 나서느냐 너희가 왜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에야 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 마무리

(잠언 14장 / 쉬운 말 성경)
9.어리석은 사람은 속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가? 물론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본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도 우리를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가 두꺼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합시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용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예수님이 모델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 개역개정)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 개역개정)
8.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

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벤치에 앉아 계신다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도발하는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시므이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피부가 두꺼워지십시오. 참을성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② 다윗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③ 시므이의 도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아비새의 반응을 비교해
④ 분노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네 가지를
⑤ 분노하지 않음으로 누가 가장 유익을 얻는지
⑥ 오해함으로 분노해 본 경험이 있거나 사례를 알고 있다면
⑦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⑧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⑨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9월 24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혼돈을 뛰어넘는 관점 (삼하22:1~3, 찬32, 305장)

○ 시작하며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Age of Chaos라고 말합니다. 혼돈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연재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인 혼란, 재정적인 혼돈, 직업, 질병, 자녀들까지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 혼란과 혼돈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칠 수도 없고 이것을 선택해서 취할 수도 없는 것이 혼돈과 혼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은 혼돈과 혼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혼돈과 혼란에 대한 나의 반응, 다윗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 다윗의 형편(상황)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피신했다가 반란이 진압되어 왕궁으로 복귀해서 남은 삶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반란, 3년 동안의 기근,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참전했다 죽을 뻔했지만, 아비새가 그를 구사일생으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제 전쟁에는 나가지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 쉬운 성경)
15.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 Tip :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의 다윗 초상화 사진

영국 초상화 사진작가이다. 다윗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한 초상화를 그린 그림을 찍은 사진이다.
보통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용맹했던 시절, 전쟁에서 승리한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는 시절의 모습인데 줄리아 카메론이 찍은 사진은 피곤하고 지친 노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다윗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사무엘하 22장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거의 사라져가는 그 무렵에 위대한 찬양을 지금, 이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사무엘하 22장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피곤하고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명료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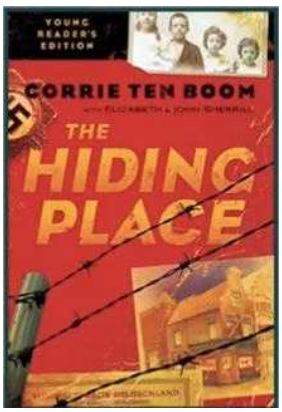
(사무엘하 22장 / 개역개정)
2.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것을 바위, 반석,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굴과 바위 등 굉장히 많은 곳으로 피신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신 피난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 Tip :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1892.4.15~1983.4.15)의 The Hiding Place (피난처 비밀의 방, 1975)

네덜란드 여성 사업가로 2차 대전 당시 나치 치하에서 자기 집 비밀 다락방에 숨겨 유대인 800명을 구해준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결국 코리 텐 붐과 가족들도 다 붙잡혀 강제수용소에 수감된다. 그중에는 동생 배시도 함께 있었다.
코리가 배시에게 여기도 우리 비밀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배시는 “우리 여기 방이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야”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코리는 그의 책 The Hiding Place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와 동생의 마음과 하루 생활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눈치를 채고 있었다. 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나 동생은 그렇지 않고 밝고 명랑하고 항상 평화롭게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했다.”
배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은신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코리는 그때 내가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 벼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수용소에는 벼룩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경비병이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 점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경비병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비병끼리 대화를 들었는데 예배드리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 서로 미루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벼룩을 사용하셔서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 ♥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혼돈의 부재가 아닙니다. 비록 혼돈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우리가 선택한 관점이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형통하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습

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십수 년이 지나도록 광야에서 마치 짐승처럼 도망 다녔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왕이 되고도 자기 원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침략, 아들까지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켜 죽을 뻔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다윗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끝에 시편 22편을 노래하면서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본 론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거 :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사무엘하 22장 / 쉬운 성경)
3.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4.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셨다.

먼저 자기의 과거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했던 관점입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때마다 시마다 구원하셨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자와 곰, 블레셋, 골리앗, 수없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조차도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죽을 뻔한 상황에서 나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구원하신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삶을 살았으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사무엘하 22장 / 쉬운 말 성경)
5.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면서 나를 위협하고 파멸의 거센 파도가 저를 덮쳤나이다.
6. 무덤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눈앞에 있나이다.

7. 고통 속에서 나는 주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내 목소리를 주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주의 귓가에 다다랐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내 목구멍까지 왔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주셨다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 쉬운 말 성경)
8.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니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토대가 뒤흔들렸습니다.
9. 주의 코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의 입에서는 휘황찬란한 불꽃이 솟구쳐 나오며 이글거리는 숯불이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10.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검은 구름이 주의 발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11. 주께서는 그룹을 타고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17.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부 두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8.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언제 하늘이 갈라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를 구해주는 경험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과거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 과거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성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너무 무섭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관점이 우리들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떤 성도가 나를 도와줘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었고 나를 일으켜 주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다윗의 관점이고 우리들의 관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 개정개역)
20.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구속한 것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기뻐하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과거를 보면 십계명의 반 이상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일을 100% 다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돕습니다.

☛ 숙제 : 사례 찾아보기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구원해 주신 사례들을 찾아보기

2. 현재 :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사무엘하 22장 / 개역개정)
30.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지금 마지막 시점은 피곤하고 그 힘이 다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힘을 주실까 하는 의문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 개역개정)
34.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36.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한 천 년쯤 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6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NIV 버전에는 you stoop down to make great 하나님께서 온유함이라는 말은 허리를 굽히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고 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지 않는다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굽히셨다고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짐승 구유통까지 굽히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발을 닦아주실 만큼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히시기까지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굽히시는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굽히시고 우리들과 연결되셔서 우리에게까지 굽히셨습니다. 왜 굽히실까?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굽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위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위대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 미래 :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신다. 영원히

세 번째, 다윗은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입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미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사무엘하 22장 / 개역개정)
51.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했는데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통치하는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 약속하셨고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 마무리

다윗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돈으로 인해 파멸로 끝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증

거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관점을 가지면 그 증거 또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만 볼 수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점입니다.
어두움을 보십니까?
별을 보십니까?
어두움을 볼 수도 있고 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 혼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행복은 우리들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혼돈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진다면 우리는 혼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지금 나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중요한 것은 혼란이 아니라 혼란에 반응하는 태도다”라는 말의 의미
② 다윗이 가진 그의 인생을 보는 관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③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고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④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혼돈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나의 경험을
⑤ 삼하22:35의 주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굽히셨는지
⑥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영원한지
⑦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원하거나 계획한 곳이 아니라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10월 1일 주일

❑ re-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 인생의 기복을 뛰어넘는 은혜 (사55:3~4, 찬405, 3299장)

○ 시작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생의 기복을 뛰어넘는 은혜, 다윗은 인생의 기복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생의 기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번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도 기복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기복이 심해, 마치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산꼭대기 같은 삶과 또 가장 깊은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처럼 기복이 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Up and Down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기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복이 심한 삶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번성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의 결론처럼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 개역개정)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

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라며 다윗을 어떻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감동받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의 가족들조차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태도와 그리고 원리입니다.

○ 본 론

1.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원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리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고,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했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복이 심한 그 삶을 뚫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기복이 많은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래 아무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12.~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택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 개역개정)
7.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것은 좀 당돌하고 담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 쉬운 말 성경)
51.~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은 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자기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잖아, 너 실패자잖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죄 많은 삶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 개역개정)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부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고 사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근거로 우리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입니다. 다윗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골목길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끝났어 결혼 생활도 끝났고, 내 병은 고쳐지지 않고, 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번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생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난 것이거나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기만 한다며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와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다.
실패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고난이 있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 Tip :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

첫째, 내가 힘들고 고통스런 일을 당했을 때 즉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둘째,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죄 즉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

그러나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다윗의 문제와 고난과 실패의 삶

① “넌 안 돼” (사무엘상 17장 / 쉬운말 성경)

33. 사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이 한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 너 웃기지 마라. 네가 누군데 저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야 넌 안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비판적인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고 문제이고 고난입니다.

② “창을 두 번이나 피함” (사무엘상 19장 / 개역개정)

10.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두 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말로서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 힘듭니다.

③ “매일 추적” (사무엘상 23장 / 개역개정)

14. ~사울이 매일 찾되 ~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매일매일 추적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전쟁터같은 삶, 우리들의 삶이 이렇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무엘하 30장 6절을 보면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④ “오래매” (사무엘하 3장 / 개역개정)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래매” 즉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그 일이 생겼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5년 10년 전 그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⑤ “압살롬의 반란” (사무엘하 16장 / 개역개정)

11.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한 말입니다.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어쩌면 우리에게도 자식들이 반항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삼 년 기근” (사무엘하 21장 / 개역개정)
1.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15.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

다윗 왕 시대에 3년 기근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기근, 일이 없어서 기근, 사랑이 없어서 기근, 힘이 없어서 기근, 이런 기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옵니다.
다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습니다. 포기했다면 포기해도 누구 하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했다면 무엇을 잃었을까? 그 후손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과 주옥같은 시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캄캄함이 내 앞에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⑦ “일곱 번 넘어져도” (잠언 24장 / 개역개정)
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여 1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나는 죽어야 해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또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해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주십시오. 당돌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정말 뻔뻔스럽기도 한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⑧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시편 51편 / 개역개정)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 범죄 후에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말은 나는 지금 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포기하고 벤치에 앉아 그냥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들에게" (역대상 28장 / 개역개정)
20.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전수일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시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착한 일, 그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라

세 번째,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항상 깨닫고 항상 인식하고 항상 느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기대의 원리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것은 기대의 원리입니다.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캄캄한 시간을 내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

다윗의 기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 개역개정)
11.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 개역개정)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무엘하 22장 / 개역개정)
4.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과 6절과 같은 확신과 기대와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괴로울 때나 실패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난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든 삶이 될 거야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나를 추적하신다. 내 삶에 역사하신다.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기대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기대는 그 방향으로 걷게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축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기대하고 어려움을 기대한다면 결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 자리에 데려다 거기에다 놓습니다.

그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을 향하여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마무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들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읽게 하신 이유가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다윗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하니 너희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강력한 예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기복이 있을지라도 잘 뚫고 지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 개역개정)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입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보잘것없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천년쯤 후, 마치 같은 마리아의 노래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실패한 자들,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자들, 마치 거름더미 속에 있는 것 같은 자들,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절망한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윗과 한나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를 가지십시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여곡절이나 기복이 있었다면 다윗과 비교하여
② 다윗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를 누구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③ 내가 당한 고난과 문제가 다윗이 당한 것과 같은 것이 있는지
④ 내가 문제와 고난 때문에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다면 다윗은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말해 보고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는지
⑥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갈6:9~10)
⑦ 나는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는지
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는지

10월 8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 겨자씨 믿음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마17:14~20, 찬406, 383장)

○ 시작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힘 있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어린아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신자(信者, Believer), 즉 잘 믿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남을 잘 믿는 것은 어쩌면 현명한 삶의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 개역개정)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는 잘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의사, 정치가, 대통령, 사업가가 되겠다고들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라고 한답니다. 굉장히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기 능력에 상관없이 가능성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과 많은 실패로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면서 피동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실패하고 믿음이 없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두려운 분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 본 론

1. 믿음은

1.1. 자신감이 아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 자신감이 크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크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미덕은 “나는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이것이 세상의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그 자신감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무리 커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2.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참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나 생각이 믿음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추운 눈보라 치는 겨울날 잠옷을 입고 들판에 나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는 얼어붙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3.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보다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은 우리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아프고 다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엄마와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 내가 해줄게” 이 말을 듣고 아이는 안심하고 평안히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 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면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그때마다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믿음 그리고 큰 하나님에 대해서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바로 성경의 그 위대한 영웅들에게 있어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도 발견하고, 실패하는 모습도, 두려워하는 모습도, 의심하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성경에 나타

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같이 위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2. 본문의 상황

(마태복음 17장 / 개역개정)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① 마태복음 17장 전반부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세 제자(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놀라운 모습을 세 제자가 보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②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상황으로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간질병에 걸렸고 여기에 더해 귀머거리,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뜨거운 물에도 넘어져 화상도 입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 달라고 했으나 고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고 물으셨고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아이의 아버지 대답을 통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③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유는 집 안에서 불을 피울 수밖에 없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입고 벙어리에 귀머거리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든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해결책이 없어 예수님께 나와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④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에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순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의심과 함께 있는 믿음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의심이 하나도 없거든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만, 내 안에 항상 의심이 있고 내 안에 항상 두려움이 그 믿음과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⑤ 다시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절망과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리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산이 옮겨진 것입니다. 큰 태산과 같이 자기를 짓눌리던 그 짐이 다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의심을 동반한 그 작은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열쇠요 메시지입니다.

⑥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 :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작다는 의미는 너희는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고 하십니다.

⑦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비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 아이의 병을 고치는 상황
마태복음 21장 :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9장 20~24절 : 마태복음 17장 상황
마가복음 11장 23~24절 : 마태복음 21장 상황
누가복음 17장 6절 :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

이처럼 산이 뽑히고 무엇인가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산을 옮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긴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옮긴 산은 헤로디움 산입니다.

1번 사진은 지금 예루살렘 전경
2번 사진은 산이 없던 곳에 산이 세워진 모습
3번 사진 2번과 같은 산으로 헤로다움 산이라 부름, 헤롯은 높은 산 위에 왕궁을 세우고 싶어했다. 그런데 높은 산이 없어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높은 산을 만들고 그 위에 왕궁을 지었다.
4번 사진은 모래사장에 인위적으로 산을 쌓기 시작했다.
5번 사진 산꼭대기 분화구 모습 위에 10층 높이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6번 사진 그림 그 상상도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렇지 저 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산을 옮긴 사람이다.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 불가능한 일을 한 것에 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산을 옮긴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을 옮긴 사람이 있었잖아. 그 엄청난 파워, 그 산을 옮길 만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마치 어린 아이 장난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을 옮긴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이 장난 같은 것이고 또 너희가 못 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했던 거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있다면 넌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기를 원하느냐? 헤롯이 될 필요가 없어. 너를 더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 믿음도 태산만 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고 태산을 옮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주제는 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네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Tip : 팀 켈러의 믿음의 대상이야기

두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한 사람은 비행기와 조종사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고 겨우 탑승할 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비행기와 조종사에 대한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도착했다. 한 사람은 100배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둘 다 똑같이 안전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정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행기와 조종사였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돈의 크기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Tip : 닉 부이치치 인터뷰

<당신은 “내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팔과 다리가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여기에 없을 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닉이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할 힘을 발견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할 때 강해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리 가라, 우리는 너와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아, 닉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닉 너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닉닉닉닉닉"
인생에서 진리를 모르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대사입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복자가 되는 것은 닉의 능력과 역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이제 그의 능력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내가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덟 살 때 팔과 다리를 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엇일까?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대략 20만 명의 영혼들이 지난 6, 7년 동안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닉은 몸통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없고, 팔이 다리 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 너무 좌절해서 젊은 시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터뷰에서 그가 희망을 발견했다.
산을 옮겨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3. 세 가지 질문

3.1.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실 것을 믿는가?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실 것을 믿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네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믿느냐? 너에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산이 옮겨질 것을 믿느냐?

(마가복음 11장 / 개역개정)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들이 구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받는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옮겨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산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절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부활의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거대한 산 그 장애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옮기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들의 더 큰 산을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산을 옮기신다면 그 산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산을 옮기신다면 그 산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직장생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저(담임목사)도 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코로나 이

전에 우리 세광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산입니다.
이 큰 산,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3.3. 나는 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대신 풍랑에 집중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은 그 문제에 압도됩니다.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을 옮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 :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 개역개정)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의심도 아직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 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길, 삶의 길, 너무나 많고 큰 문제와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 걷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 쉬운 성경)
20.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면 된다. 의심이 아직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더하기 크신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아이 아버지에게서 발견한 공식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공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그 손에 안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 안에 나를 품으시기에 큰일, 놀라운 일,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믿음이 자신감(나는 할 수 있다.)이나 긍정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②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③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하여 성경에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④ 닉 부이치치의 말을 듣고 느낀 점을
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을 옮기실 것은 믿은지
⑥ 그렇다면 내 삶에 옮겨지기를 원하는 산이 무엇인지
⑦ 나는 문제의 산에 집중하며 사는지 아니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지 말해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⑧ 이 설교 시리즈의 공식 (작은 믿음 + 크신 하나님 = 놀라운 결과)의 예를 알고 있다면

10월 15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삿6:11~12, 찬411, 300장)

○ 시작하며

작은 믿음과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Tip : 제이크 올슨 이야기

올슨은 usc 대학 풀볼팀 일원으로 시각 장애인이다. 4살 때 눈에 암으로 한쪽 눈을 제거하고, 12살 때 나머지 한쪽 눈도 제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쪽 눈 제거 수술 전 부모들은 마지막 보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었다.
풋볼을 매우 좋아했던 올슨은 풋볼 경기를 보고 싶다고 했고 부모는 올슨의 소원대로 usc 풋볼 게임을 보러 갔다. 이 사실을 usc 코치들이 알게 되었다. 올슨은 풋볼 경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시력을 잃었으나 혼자서 풋볼 연습을 했고 그 결과 고등학교 풋볼팀에 들어갔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슨의 활약을 들은 usc 대학 수석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는 올슨이 12살 때 한쪽 눈 제거 수술 전 마지막으로 풋볼 경기를 볼 때 있었던 코치였다. 코치는 대학 풋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서 올슨을 대학 풋볼팀 일원으로 초청했고 선수로 만들었다. 올슨은 계속 성장하여 엄청난 활약을 했고 장학금을 받은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제이크 올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풋볼 선수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 올슨, 그런데 그를 선택하여 훌륭한 선수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사사 기드온의 등장 “큰 용사?”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요나는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챔피언으로 만드시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의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 기드온입니다. 본문은 기원전 1200년 전,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허락했는데 사사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기드온 이전에 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웃니엘로 그 유명한 갈렙의 동생이었습니다. (조카라는 주석도 있음) 네 번째 사사는 여자 사사 드보라인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앞에 등장한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하고 부족한 겁쟁이였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배경인 미디안 사람들은 잔인하고 악랄했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음식을 탈취해 가고,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며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비참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2.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 이스라엘이 ~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무려 7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자를 보내 달라 기도했는데 아마 여호수아, 갈렙, 웃니엘, 드보라 같은 용맹스럽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모습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지하로 움푹 파서 만든 굴 같은 공간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그곳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 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평지에서 하는데 지금 땅속에 두더지처럼 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마치 두더지처럼 굴에 숨어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절망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될 바로 그

사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은둔해 있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죽이려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 즉 ‘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바위처럼 든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너는 바위야 너는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챔피언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 본 론 (기드온은)

1. 낙담했다.

첫째, 기드온은 낙담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1. 나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But** (그러나), **If** (만일), **Why** (왜)입니다. 그러나, 만일 함께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만일, 왜가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하나님의 대답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동문서답처럼 보이십니까?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답은 하시지 않고 너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 해답은 나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답은 나입니다. 네가 그 질문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질문에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믿음은 설명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다. 선교적 사명이다.

기도온이 말한 것처럼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술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사명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mission입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설명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행동하면 세상은 치유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치유되고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치유된다는 사실,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2. 열등감, 패배 의식에 빠져 있었다.

두 번째, 기도온의 작은 그 모습은 열등감과 패배 의식 속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2.1. 나는 약합니다.

기드온은 나는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패배 의식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패배자의 가문입니다.
그 패배자의 가문에서도 무시하는 패배자 중에 패배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기드온 자신에 대한 진단입니다.

2.2. 하나님의 대답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 합니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게”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 개역개정)
2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될 우리로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없다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그 힘으로 승리하고 챔피언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의심이 많았다.

세 번째 이 기도원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진 의심은 지금 나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람인가? 그래서 그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3.1. 나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6장 / 개역개정)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도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기도온의 요구였고 반복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앞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 기도온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기도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음식의 끝에 딱 되니까 불이 확 일어나 다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기도온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능력을 봤습니다. 기도온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다음 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온이 너무너무 의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질문하면서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패배 의식에 빠져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표적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한 것이어야 한다.

표적과 기적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신 너무나 유명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었어요.
떡을 배부르게 먹었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오늘도 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다음 날 또 표적과 기적으로 떡을 너희들에게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떡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떡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생긴 이후에 기도온은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을에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아세라 신상을 찍어라. 그리고 불태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기도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것입니다. 아직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대낮에 믿음으로 가서 행하지를 못하고 한밤중에 살짝 가서 마치 두더지처럼 그의 본래 모습처럼 살짝 가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온을 사용하셨고, 300명으로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예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 하고 성전 문을 나서 삶의 현장에 돌아갔지만,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계속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챔피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마무리 :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대로 보시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될 바로 그 사람으로 보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서여라고 부르십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②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와 그리고 나와 가장 관련이 있는 모습이 있다면
③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④ 기드온은 자신이 할 수 없고 약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⑤ 기드온과 비교하여 우리는 언제 표적을 구하는지 말해 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⑥ 성경의 모든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요 6장 참조)

⑦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해 보고 내가 나를 이렇게 보는지

엡1:4 : 창세 전에 택한 사랑하는 자
요일3:1 : 하나님의 자녀
벧전2:9 :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골3:12 :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습3:17 :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
요15:9 :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시103:12~13 :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10월 22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3 : 모세의 변명 (출3:11~12, 찬428, 370장)

❍ 시작하며

우리는 작은 믿음과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주저주저하면서 겨우 한 발짝 움직였던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모세의 그 유명한 5가지 변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할 때 수식어가 필요 없고 비교 불가능한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한 영웅!
성경도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얼마나 위대한 이 모세에 대한 정의입니까?
그런데 사실 모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아기로 태어났으나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그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학적인 내용들은 지금도 가히 놀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
요세푸스(1세기 역사가)는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잘생기고 최고의 교육에 엄청난 파워와 부유했습니다. 왕자로 살아가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 모세.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에 다른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0세 때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왕궁에 있었고 40년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면서 80세가 된 이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출애굽과 그리고 10계명을 받은 사건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이야기들은 모세의 후반기 3분의 1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말씀을 자신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세의 어느 날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붙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 개역개정)
9. 이제 가라 ~
10.10 이제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에게요? 내가 거기에서 왔는데요. 내가 거기 가면 죽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그 위대함을 생각하면 “예 가겠습니다. 8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못 갑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나는 못 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라는 그 모세의 변명 그 변명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변명들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5가지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 본 론

1. 변명 1 :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 개역개정)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첫 번째 변명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nobody somebody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nobody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somebody는 나는 유력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nobody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변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가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을 잊으셨습니까? 바로는 nobody는 안 만나줍니다. 바로는요 somebody만 만나요.
바로가 80이 넘은 양치는 목자를 만나주겠어요. 지금 이것이 이 모세의 답변이었어요. 변명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모세의 변명, 우리들도 때때로 이렇게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식을 그런 변명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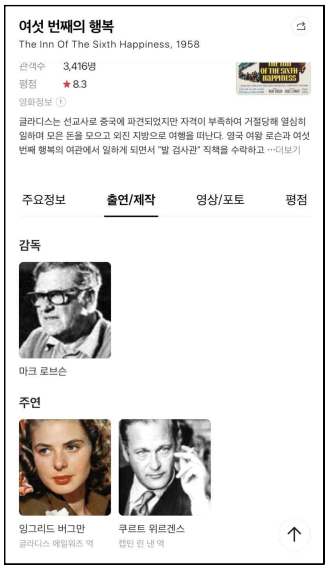
1.1. 하나님의 대답 :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 개역개정)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 아니야, 너는 따라서 해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

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안다. 네가 nobody라는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 Tip : 글라디스 엘워드(Gladys aylward) 이야기



글라디스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영국 여성으로 그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가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6번째 행복의 여관이라는 영화로 1958년 상영되었다.
이 선교사는 상하이에서 한 고아원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다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일본이 침략했을 때 고아들과 함께 산 너머 멀리 피신했는데 이 여행은 정말 끔찍했고 힘들었다고 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굶주려야 했다. 어느 날 이 글레디스 선교사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준비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때 고아 중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글라디스를 보고 “미스 글라디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라디스 “맞다 내가 그 이야기 해줬지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모세가 아니란다.” 선생님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이 선생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도 압니다.
그때 이 글라디스 선교사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turning point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나는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내 인생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끝자리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자리에 혹시 와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 개역개정)
20.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2. 변명 2 :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 개역개정)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두 번째 변명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였습니다.

2.1. 하나님의 대답 : 너의 경험을 말하라

(출애굽기 3장 / 개역개정)
14.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 너희 조상의 ~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16. ~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

이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I AM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해, 나는 내가 존재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나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나는 죽지도 않아, 나는 그냥 영원한 존재야,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사고의 변화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대개 기원이 있어서 언제 태어났고 또 죽는 신도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조금 나은 초월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보다 좀 나은 존재라고 신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도무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변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I AM WHO I AM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이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16절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 개역개정)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정확하게 나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무신론자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토론을 하면서 내가 가장 곤란했고 내 토론이 막힌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수 없는 유일한 주장 한 가지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데 내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3. 변명 3 : 만약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4장 / 쉬운성경)
1.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변명은 만약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한 단어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약이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이 만약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만약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들도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3.1. 하나님의 대답 :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출애굽기 4장 / 개역개정)
2절 ~ 9절 (참고)
2절 여호와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지니 지팡이 갑자기 뱀으로 변했습니다.
4절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뱀이 휙 돌아서서 머리로 물어요. 꼬리를 잡는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나병에 걸렸다 깨끗해진 기적과 나일강 물 한 컵이 피로 변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것, 손이 나병에 걸리는 것,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사도행전 1장 / 개역개정)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팡이가 뱀이 될 거야. 네 손이 나병에 걸릴 거야. 네가 컵에 들고 있는 그 물이 피가 되고 다시 물이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에 능력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삶,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죄성을 다 없애신 후에 다시 집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집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4. 변명 4 : 나는 말을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 개역개정)
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

네 번째 변명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성경 추가적인 본문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하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4.1. 하나님의 대답 :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출애굽기 4장 / 개역개정)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누가복음 12장 / 개정개역)
11. ~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

이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그때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2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언제? 그때 그 자리에 서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면, 바로 그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예요.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또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 Tip : 앤드류 선교사의 자동문 이야기

앤드류 선교사는 '국제오픈도어 선교회'를 설립한 네덜란드 선교사이다. 이 선교사는 냉전시대에 동유럽에서 동북아시아까지 종교의 자유가 금지됐던 곳에 성경을 밀반입해 복음을 전한 선교회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항상 그 일은 두렵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을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 큰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장애물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먼저 치워주시면 갈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안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애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서 그 장애물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데 앤드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가야 열리는 자동문, 문같이 생기지 않고 손잡이도 없고 열릴지 안 열릴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자동문, 그 자동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라고 깨달았다"♥

멀리서 하나님 저거 치워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하나님 가라 하셨사오니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장애가 있지만 내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장애물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 변명 5 :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 개역개정)
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난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았고 이제 경험을 말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만일, 만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한다. 내년에는 내가 이거 내려놓을 거야.
왜냐하면 뭐 얼마나 기가 막힌 변명들이 많아요. 모세에 버금가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가 추천은 할게요. 주여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5.1. 하나님의 대답 : 너는 혼자가 아니다.

(출애굽기 4장 / 개역개정)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를 돕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숨어

서 신앙생활하십니까? 여러분 드러내 보십시오. 주위에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우리 함께 함께 함께 도와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 개역개정)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안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이 가지를 흔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서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를 돕고 있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세의 그 수없이 많은 변명들, 그 변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마무리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Yes 그것도 큰소리로 하지 않고 Yes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작은 믿음의 모습, 마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만약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넷째, 나는 말을 못합니다.
다섯,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둘째, 나는 I AM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할 필요 없다.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야.
넷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섯.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모세,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로 나는 불가능해요.라는 나는 이제 끝이에요. 나는 절망이에요. 끝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모세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때가 언제인지
②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변명합니다. 나도 비슷한 변명을 한 적이 있다면
③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을 적용해
④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I AM WHO I AM)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지(요일1:3)
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는지(행1:8)
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입니다. 자동문과 비교하여 설명해 봅시다. (눅12:11~12)
⑦ 내가 지금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⑧ 모세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돕는 사람을 보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10월 28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4 :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다. (히11:8~12, 17, 찬524, 379장)

❍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일을 이루셨는가? 기드온이나 모세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그의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의심이 많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격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자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평생 그 작은 믿음 안에 갇히거나 그 작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크게 역사하신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이 작든 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 믿음이 자라야 하는가?
하나님 일하시기 편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와 삶의 위기들, 모든 것이 잘못될 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란 상태에서 유혹에 직면할 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으

로 내가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이길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또한 모든 것이 다 잘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 변화될지 모릅니다. 내 삶이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데 결코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경험했노라”라고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네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네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 본 론

1.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많은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By faith Abraham)”를 4번, 8절 9절 11절 17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나아갔다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텝 아우트(step out)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곳에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상태로 한 걸음 나갔다는 뜻입니다. 다른 단계로 한 걸음 나가서 다른 삶으로 한 걸음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 년 전, 예수님께서 2천 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2천 년 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곳은 우르였습니다.
당시 우르는 세계 문화와 정치 모든 세계 발전의 가장 중심지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발견된 유적 중에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지금은 터가 1층 정도만 남아 있는데 당시에 그 건물이 8층 정도의 높이였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운하도 있었고 도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그런 혜택들을 이들은 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당시에 이 우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이 우르는 수메르라는 국가의 수도였다. 이 기간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 시대에 19세기와 20세기가 되어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때가 되어서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대였다.

다음의 목록들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다. 바퀴가 달린 운송 수단, 범선, 도자기, 문자, 조각, 벽돌을 대량 생산했던 그 현장들, 건축물의 아치나 둥근 천장을 만들었던 그 흔적들, 최초의 법률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초의 변호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규모 상업용 양조장을 가지고 있었고, 12개월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을 24시간 또는 60분의 시간으로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기하학이 발달되었다.
이 시대 와서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기술들이 그 시기에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이 본래 거주하던 우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고 풍요를 즐겼다는 그림들이 발견된 모자이크에서 발견이 됩니다. 유물 중에는 여자가 쓰고 있는 황금 장식으로 된 머리 관에서 볼 수 있듯 화려했고 부유했고 쾌락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기를 원한다. 당시에 이 우르에 살던 사람들은 우르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야만인들, 마치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비를 피할 어떤 수단도 가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익히지 않은 고기를 그냥 날로 먹으며, 평생 집도 없이 살다가 죽으며 죽어도 장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편리하고 부유하고 쾌락이 있는 삶을 떠나서 짐승처럼 사는 그 광야 그것도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는 그 사막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 전체 여정이 아닌 첫걸음을 생각하라

첫 번째 교훈은 전체 여정이 아닌 첫걸음을 생각하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디뎌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다음 단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떠나 한 발짝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길 가서 어떻게 되지? 내가 이 길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가 이 길 가면 내가 결국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로 도착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한 발짝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가 이 길을 가면 끝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가는 길에 뭘 경험할 것이고, 그래 끝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2.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머물렀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두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본문에서 광야(사막) 같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광야는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며, 기후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어려움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두 번째 단계인 여기에 머무는 단계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험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기대도 있고 신나고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장애가 계속 앞에 있다가 보면 그만두고 싶다. 이것이 출발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역을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욕하는 사람도 많고 문제도 있고 잘해도 칭찬도 못 듣고 내 삶에 어려움이 막 중복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사역 못하겠어요.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그냥 뿌리를 내렸어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로마인에게 박해받고, 로마뿐만 아니라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족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는데 아니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곳에 머물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정지된 사진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치 영화처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어느 지점

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어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였습니다.

◆ 현재의 어려움이 아닌 최종 결과를 생각하라

두 번째 교훈은 현재의 어려움이 아닌 최종 결과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히브리 성도들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일이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물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어려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그리고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다 돼 가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은 둘째 치고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커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수없이 많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다시 불러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도 아브라함은 흔들렸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두 번이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②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③ 사라의 종 하갈을 임신시켜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나쁜 결정이었고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마엘은 4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갈등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1. 믿음으로 가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세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불신앙으로 회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웃는 대신에 울었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비웃고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믿고 비웃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심과 나의 비웃음과 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들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행동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이 갑자기 사라에게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많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By faith Abraham and Sarah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 우리말 성경)

11.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세 번째 교훈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실수를 적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 Tip : 팀켈러 목사의 고백

믿음의 거장 팀켈러의 말을 들으면 이 목사님도 두려움에 몸부림쳤다는 것을 자기 고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항상 주문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질문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행위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초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어차피 실패한다면 그 실패로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남은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내가 만일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의 실패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의 실패는 너 잘못했어, 다음부터 잘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용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은 전혀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종착점처럼 그의 믿음의 단계 그 단계를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해서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많이 바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사지를 다 자른 후에 그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100살에 준 아들을 도로 받치라고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까지 삼 일 길을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스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신에게 생명을 바치고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신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희생제물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희생제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 희생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네 번째 교훈은 희생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 희생 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먼 곳 삼 일 밤낮을 가야 하는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2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보내겠다.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2천 년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stop stop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실 때는, 그곳에서 못이 박히고 창이 그 허리에 박혀 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stop stop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는 일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한 발짝 나가게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4단계, 시작했고 머물렀고 어려움을 통과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 **Tip : 앤디 스텐디(Charles Andrew Stanley, 1958.5.16.생) 설문조사 결과**
(앤디 스텐리는 노스 포인트 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이며 총괄목사, 여러 캠퍼스에 복음주의 교회를 갖고 있다. -위키백과-)

질문 :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당신에게 도움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개인적인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 우리 생각에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섬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나쁜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마무리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다음 단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르를 떠나는 그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의 길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자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역으로 우리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머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내가 금 년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려고 작정했어. 내가 포기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머물러야 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기 위한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는 사람 또는 성경 인물)
②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창12:1~2)이 무슨 의미이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③ 내가 지금 버리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④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 말해 보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무엇인지
⑤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⑥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히11:12)
⑦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⑧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⑨ 나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말해 보고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11월 5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5 : 적은 것이 많게 되다.
(눅9:12~17, 찬540, 337장)

❍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한테서 오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였다.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인원은 1만 명도 넘었을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호수에 있는 타브가(Tabgha)에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은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셨다는 사실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이셨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의 이 제자들은 오랫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 그 변화된 삶, 그 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그 흐름과 문맥상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 누가복음 9장의 본문 상황

①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②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하는데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왔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③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소규모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방해했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무리를 보내어 들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밥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5천 명 아니 1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④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대책도 있고 해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시험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밖에’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는 큰 데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알아요. 근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난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필요를 절대로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좀 찾아보세요.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어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필요는 너무너무 큽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말이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작아요.

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떼를 지어 앉히게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점심 먹을 도시락,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많은 성경은 ‘감사 기도하시고’로 번역)**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입니다.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작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는 그런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일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원리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에게 명령하시면 바람도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에 예수님은 모든 치료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악한 영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더 크십니다.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크다 하는 것입니다.

① 예수님은 더 크시다.
예수님은 더 크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십니다.
② 예수님은 나의 작은 것을 가지시고 큰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③ 예수님의 능력의 빛 아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교회를 시작할 것이고, 그때부터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시작될 것이고,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은 온 세계를 다 덮을 것이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제자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더 큰 하나님, 더 크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함만 바라보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 또는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할 기회, 새로운 직업과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기회들, 그 기회들 앞에 나는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힘이 너무 약해, 나는 그냥 지나가,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게 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 본 론

1.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 예수님의 질문 : “어디서”

(요한복음 6장 / 개역개정)
5 예수께서 ~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주 많은 군중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물으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어디서’ 해답을 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 빌립의 대답 : “어떻게”

(요한복음 6장 / 개역개정)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구하겠느냐? 물으셨을 때 빌립은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엉뚱한 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 질문하셨지만, 이 빌립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필요를 채웠지? 누구에게 가야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은 해답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주님께 가야죠라고 대답했어야 했지만 어떻게 그것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만 하고 있었습니다.
해답을 눈앞에 두고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래? 물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로 사는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믿고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치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인데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 교훈 :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은 기회다.

우리는 기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회가 오면 막 흥분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좋아하시고 우리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지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내 필요는 너무너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 개역개정)
13 ~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니라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에 예수님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평가여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 개역개정)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가 너무너무 큰 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래 그거 작다 맞다. 그러나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함께 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빌립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필요가 너무너무 큽니다.
안드레입니까? 내가 가진 건 너무너무 작습니다.
우리 둘 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작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그 어떤 자원도 그 어떤 작은 자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의 손에 들어가면 Plus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더하여져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 개역개정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아주 큰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식하고 좋은 학교에 나오고 배경이 빵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마치 낙오자처럼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나라는 엄청난 파워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30년쯤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나도 위대해 보이는 것도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사람의 그 존재가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존재가 그렇고 말씀하시는 그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국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대단한 것이 없는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을 뒤덮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마어마한 저런 나무들 저런 나무가 되기까지 크게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자나무

◆ 작은 것이 크게 된 사례

하나님 나라는 실리콘 밸리에 있는 이 차고와 같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애플

사진이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냥 보통 집에 차 넣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창고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출발해서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 이름이 애플입니다. 애플 회사가 저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맨노파크라고 하는 곳에 90년대 후반 두 사람 스탠포드 학생이 사업을 우리 같이 시작하자 해서 시작을 한 그 건물 너무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의 차고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의 구글이 되었습니다.

구글

휴렛페커드 (HP)

스탠포드 학생인 두 사람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함께 모여서 회사를 차렸어요. 휴렛 패커드가 시작된 것이 바로 저 창고였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교훈 :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나의 기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마태복음 14장 / 개역개정)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세 번째 이 기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Tip : 57센트의 기적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 이 아이가 교회학교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작고 아이들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말았다.
엄마가 그 아이의 남은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머리맡에 조그마한 저금통이 있는 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열어보니 돈 57센트가 있었고 편지가 있었다.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야기다.
편지 내용은 "내가 교회학교를 갔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교회 학교를 넓히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되었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서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아이의 편지를 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금하기 시작했고 어떤 대부호 한 사람이 땅 몇만 평을 57센트에 팔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7센트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 교회가 템플 교회였고 그 유명한 템플 대학이 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이라는 굿 세마리턴 하우스 피터를 만들었다.
이 템플대학은 세계 곳곳에 캠퍼스를 가지게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해티메이이고 담임목사님은 러셀 콘웰 목사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교회에 뭘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 마무리

(누가복음 10장 / 개역개정)
1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4.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
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루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계속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사람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가지 말라.
다시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의지할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원으로 삼아서 사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루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네가 의지하는 바로 그 힘, 그 자원으로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더해지신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떡을 먹이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큰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의 이야기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②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크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③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군중들의 수는 얼마나 되었으며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④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빌립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가능은 기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작은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⑦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 (마14:18)
⑧ 지금 내 삶에 이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11월 12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6 : 빠질 것인가? 걸을 것인가? (마14:22~33, 찬545, 406장)

❍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오늘 말씀은 바로 다른 이야기, 헤롯에 의해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한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헤롯과 로마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 이 로마를 다 뒤집어엎고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갑자기 호수 중간쯤 왔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 그 제자들이 타고 간 배에 불어닥쳤습니다.
제자 중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사람이 있었고 당연히 무언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폭풍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유령이 온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외침의 소리, 파도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을 이 제자들은 발견했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 순간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풍랑과 내 속에서 소리치는 그 두려움의 소리 그 모든 것을 뚫고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 개역개정)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안심하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을 훨씬 넘어서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 안 치셨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소리가 크게 제자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맞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 “오라” 하는 소리에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배에서 한 발을 내디뎌 물 위로 섰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걸어오셨겠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흔들거렸을 것이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 위를 걷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연습을 합니다. 물 위를 걷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것, 그것이 물 위를 걷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고, 그래서 갑자기 시선이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뒤에 있는 배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무서워서 떠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손 그 손으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야 믿음도 없나 너는 왜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느냐 너 믿음이 좀 작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잠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이 떠졌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을 거쳐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제자들도 우리에게 작은 믿음 그러나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폭풍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항해 폭풍이 몰아닥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해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그 여정에는 갑자기 닥치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갑자기 닥치는 폭풍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예상되면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폭풍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막 폭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배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는 **배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폭풍**이에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 배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폭풍, 그 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폭풍 한가운데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폭풍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 폭풍에 잘 직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론

1.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폭풍은 온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라도 폭풍은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잘 지키고 아니 완벽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다 한다고 할지라도 폭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폭풍에서 면제될 수 있어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개역개정)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탈까요? 말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냥 타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할 필요도 없이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여정 잠시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습니다. 폭풍은 항상 육지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 벌어집니다.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가 막힌 폭풍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고 그 일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폭풍을 만나는 그런 유형입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거슬러 분다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항상 그렇게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이미 들 그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무

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들은 그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 개역개정)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 **Tip : 야간 시간(18:00~익일06:00) 구분 <만나 주석>**
야간 시간의 구분이 유대인과 로마가 달랐다.
유대는 4시간 단위, 로마는 3시간 단위로 구분하였다.

구분	유대 (4시간 단위 구분)	로마 (3시간 단위 구분)
1경	18:00~22:00	18:00~21:00
2경	22:00~익일02:00	21:00~24:00
3경	02:00~06:00	00:00~03:00
4경		03:00~06:00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① **예수님은 보십니다.**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 캄캄한 밤중에 산 한복판에서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본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보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과 그 깊은 바다 그 수렁 한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오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②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랬어요. pass by 그들을 쓱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 주님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주석가들의 견해들을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 광경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잘 모르고 제자들이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셨으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지나가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신다는 pass by 영어로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렐코마이'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하실 때 그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용례로 지나가신다는 표현 '파렐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나타나실 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파렐코마이'는 그냥 쓱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유령이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왜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절규하며 소리치게 됩니다.

2. 어떤 폭풍을 만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폭풍이라 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문제들 폭풍들 그 폭풍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원인은 저 사람이야. 어떤 폭풍은 다른 원인 때문

에 내가 당하는 폭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본래 악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당하는 그 풍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원인이 돼서 당하는 그 모든 풍랑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 그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 개역개정)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예수님께서 Take courage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라는 말은 "It is I"인데 이것은 EGO EIMI 에고 에이미(I AM)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I A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이엠이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다"라는 말씀은 아이엠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 하나님이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아이엠이 지금 너희들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폭풍을 만나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잘 오시고 내가 믿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물 위를 걷기를 원하면 배 밖으로 나오라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 개역개정)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주님 맞는 거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All in 하고 있죠. 물 위로 걸어서 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실패하면 죽는 것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배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나 배 밖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기를 원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머지 열 한 제자는 그냥 배 안에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배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안전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내가 이 배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그 배에 있느냐 그 안에서는 나를 볼 수 없어 그 안에서는 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 그 안에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몸으로 디자인 하셨어요. 몸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몸은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몸은 서로 교류하는 것이고, 몸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몸은 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선교회도 들어가시고 구역의 모임에도 들어가시고,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100%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 그것을 보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폭풍 속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 계신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 내 옆에 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 있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졌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으니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이 옮겨졌어요.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 가자마자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뭐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수영할 줄 알잖아요.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내 힘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몸부림 쳐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시 빠져들어 가자마자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에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태를 통해 성령님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 정말 즉시 예수님께서 너를 구해주셨냐? 베드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다렸어.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안 오신 것 같아 나를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 이것이 베드로의 심정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릴 때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절대로 늦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거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십니다.

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은 정확한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 개역개정)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즉시가 영원 같고 또 영원히 즉시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다리는데 아직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오십니다.
정확하게 오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모든 것은 내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 개역개정)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크신 하나님이 뭘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 마무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은 우리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전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이기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일은 예배예요.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예배는 더 커집니다.

☛ Tip :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중에 '케스피언 왕자'라는 책(1951년) 이야기 꼬마 여자아이와 아슬란의 대화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슬란과 어느 꼬마 여자아이가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꼬마 아이 : 아슬란 당신 더 커진 것 같아요.
아슬란 : 아니야 네가 컸기 때문이야. 네가 더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야?

꼬마 아이 : 아니 진짜 커진 게 아니에요?.
아슬란 : 아니야 네가 클수록 네가 성장할수록 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성경적인 메시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보입니다.

존 오트버그(1957~, 멘로 파크 장로 교회 목사)는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물 위를 걸으면 걸을수록 나에 대해서 커지거나 내 믿음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존 오트버그는 그의 책 마지막에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합니다. 베드로 하나님이 얼마나 커? 그때 이 베드로는 "이만큼 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이~만큼 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십니까?
이 크신 하나님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②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마14:22, 24)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풍랑이 있다면
③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④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누구하고 말씀하시는지
⑤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나와야 할 나의 배는 무엇인지
⑥ 물속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과 예수님 중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⑦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⑧ 폭풍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마14:33)
⑨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점을

11월 19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7 :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
(눅17:11~19, 찬429, 66장)

❍ 시작하며

사람들은 많은 연구나 과학을 통해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큰 하나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표현하는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감사가 무엇인가? 입니다. 감사는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동 방식입니다. 감사의 관점으로 보고 감사의 관점으로 살며 감사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나타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일한 이방인이 쓰고 이방인에게 읽게 하려고 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눈으로 목격한 사람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으며 그래서 질서 있게 쓴 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은 당신이 배워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2천 년 동안 이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 본 론

<누가복음 17장 본문 분해>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신 길(사진)과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째 방법(요단강 건너)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길을 피했던 것은 그 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긴장이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어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 우리는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병은 신경의 마비로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될 것이고 방치하면 2차 감염 그리고 3차 감염에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동안 사람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발가락, 손가락,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성전에서까지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항상 죄책감 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으며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은 좀 특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14절 상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이 걸렸다는 것과 고쳐졌다는 판단은 제사장들이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는 동안에 제사장에게 무언가 보일 일이 너희들에게 생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이 치유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14절 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그들이 가다가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바쁘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에게 더 빨리 가는 일이었습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 더 빨리 달려서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는 "He throw(던지다) himself at Jesus'feet"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털썩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 삽입시키면서 기록할 그 사건들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서를 정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본문을 오늘 이 자리에 집어넣은 이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더 잘 깨닫고, 더 잘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영어로 말하면 ingratitude라고 말하는데 배은망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한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배반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하러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오늘 간주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어릴 때부터 그를 도와줬고 그가 장성하는데 그 뒤를 다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이것이 감사의 특징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 여러분들은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막 넘치고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그것은 배은망덕이다.
행동하지 않은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행위가 제거되고 감사의 행위가 생략되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 Tip : Charless Andrew Stanley 앤디스텐이라는 목사의 감사
(노스포인트 미니스트리의 설립자 여러 캠퍼스에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는 감사에 대한 책을 쓰면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감사와 배은망덕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은망덕이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관계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감사와 배은망덕함은 관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은 감사하는 행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천천히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은망덕은 감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포함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감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한 사람을 통해서 감사의 패턴을 살펴볼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이 본

문의 이야기를 왜 이곳에 삽입하여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감사의 패턴

첫째는 감사의 패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 개역개정)
15.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1. 내가 받은 복을 본다.

첫째는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패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감사의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내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각과 그 관점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는가?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대신 나에게 없는 것을 찾으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일상들, 너무나 많은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 나의 일을 멈춘다.

두 번째, 돌아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

멈추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돌아오기 위해서는 계속 가면서는 못 돌아옵니다. 다른 아홉 명의 사람은 계속 갔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야 했기에 빨리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멈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살펴보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두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모든 삶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멈추시고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3. 감사를 표시한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감사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행동입니다.

2. 감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내는 것

2.1. 배은망덕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홉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대표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 북받쳐 올라와서 내가 잠도 잘 못 잡니다.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람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감사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을 표현합니다.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그 느낌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 사람에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반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배은망덕입니다.**

2.2. 거절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으면 거절로 경험됩니다. 감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엄마에게 감사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한테 왜 감사를 합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그 감사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야 그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부로 경험되어집니다. 어떤 직장 오너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주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해야죠. 예 이것이 거절당하는 모습이에요.
부부간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으로 그리고 거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2.3. 교만

세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감사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감사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으로 나타나고 거절로 경험이 되며 교만으로 결과 지어집니다.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마지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

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이렇게 고쳤으면 예수님께서 고친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고만 하셨어요. 가는 동안에 고쳐졌습니다. 그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안 고쳤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지어지는 이 교만까지 가는 것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의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3.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진리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만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은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햇빛, 비, 모든 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혜택들. 추수하고 거두는 이런 일들,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특별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과 일반은총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이제 이제 누가복음이 다 끝나가면서 감사를 사람들이 해야 하겠는데 감사할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기록해 봐야 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
감사하는 행동이야. 우리는 서로 이제 감사합시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던 이 세례요한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본 것을 가서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메시아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700년 쯤 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 메시아는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를 낫게 하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뜨며, 나병환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그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제자들도 다 아는 메시아라는 답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세례요한도 맞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는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 마무리

누가복음은 수난의 길을 아주 길게 쓴 책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난의 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은 누가복음 9장에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천한 날이 가까워져 옴을 보시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모든 사건 모든 있는 일들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것을 보이면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그 주제는 좀 뒤로 미루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걸 좀 가르쳐야 하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 일반은총으로 만족하지 않고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명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은총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일반은총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고 그 한 사람만 19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홉 명은 그냥 일반은총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 똑같은 감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발 앞에 자기를 던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될래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나를 내던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달았던 그 크신 은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 받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낫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것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가능했습니다.
나병 환자만 그럴까요? 우리도 환자예요. 죄의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또 이 죄의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와 그 크신 사랑에 흠뻑 젖고 그 특별한 은혜에 흠뻑 젖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드러내 보여야 한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려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려내 보이십시오.
감사한다고 말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십시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통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대로
③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고통들이 무엇이었는지
④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지
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지
⑥ 눅17:15~16에 나타난 3가지 감사의 패턴을
⑦ 선한 행위에 감사하지 않을 때 받거나 경험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⑧ 본문의 내용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과의 관계를
⑨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말해 보고 나는 감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인지
⑩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11월 26일 주일

❑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8 : 작은 사람의 큰 변화 (눅19:1~10, 찬435, 289장)

❍ 시작하며

한 시골에서 사는 노부부가 아들과 함께 도시를 방문해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 할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땡 하면서 문이 다시 열리자 아주 젊은 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큰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가서 네 엄마 오라" 그랬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젊게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주제는 변화입니다. 오늘 작은 사람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믿음과 크신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의 정확한 이름이 에벤에셀 스크루지입니다. 에벤에셀은 성경에 나오는 도움이라는 뜻이죠. 스크루지의 이름 중에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처음 쓴 그 원작품의 스크루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맷돌을 움켜쥔 소나기 같은 늙은이입니다.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은 놓을 줄 모르는 채 무엇이든지 쥐어짜고 비틀고 할퀴며 욕심을 부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움켜쥐는 사람이었고, 한 번 움켜쥔 것은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가치가 어떻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정하는 기준 한 5가지 정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① 외모

이 시대에 외모 지상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②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의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③ 성취감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취되면 막 기쁜 것, 많은 사람이 대개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성취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항상 스트레스에 심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④ 풍요로움
부, 돈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돈이 있다가 또 돈이 없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인생의 그 가치가 막 변한다는 사실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⑤ 형이상학적인 것 예술적인 가치
어떤 예술적인 것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그것에 우리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그 가치 위에 자기 인생에 세워진다면 틀림없이 흔들릴 것이고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가치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그 5가지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사실은 그것들은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견고히 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우리의 가치를 세워야 할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본 론

<본문 분해>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지금도 과일이 많아 과일을 수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좋아 휴양지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헤롯왕도 겨울 휴양지가 이 여리고에 있었고, 부자들이 그곳에 휴양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삭개오도 부자였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19절 2절 3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세금 받는 사람 그 세금 받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네 직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배설물 수거자
세 번째, 돈을 빌려주는 사람(고리대금업자)
두 번째, 비둘기 조련사, 왜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했는가? 당시에 비둘기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박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징수원을 사람들이 싫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점령지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서 할당한 일정액 액수만큼 로마 정부에 납부하면 되는데 봉급은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에 붙여서 거두어 충당했다. 적당히 붙였으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붙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그들을 증오했다.
그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했고, 심지어 집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서 그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가장 사람들이 싫어했던 직업이었고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는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그냥 이 시대에 키가 좀 작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키가 작다는 헬라어는 헬리키아(키가) 미크로스(작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초미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천적으로 작았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선천적으로 작은 사람은 아마 신들에게 저주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더 멸시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키가 작은 삭개오는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의 가치를 정하는 그 5가지로 볼 때 외모는 전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성취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매국노라는 그 명성(?)을 얻었을 뿐입니다. 예술성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은 부로, 이 돈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이 삭개오는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다 투자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었던 것 같아요. 그 한 가지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 가치를 부에 두고 부를 모으고 한 번 모은 그 부는 결코 놓지 않는 바로 이 사람 스크루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네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나무는 원산지가 아프리카인데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닌 돌무화과나무라고 말하는 무화

과나무와 플라타너스 혹은 뽕나무가 합쳐진 그런 나무의 종류입니다. 이 나무는 특징이 가로로 가지가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환호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은 마치 행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뭇가지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람들은 그 말까지 했을 때. 그렇지 저 선생님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 그래서 아마 책망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집에 가겠다. 너와 오늘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삭개오에게 내가 집으로 간다는 것은 삭개오는 내 친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삭개오를 궁극적으로 사랑한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급히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19장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갔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수근거렸다’ 여기 헬라 원어는 디아공귀조(διαγογγύζω)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공귀조는 의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투덜투덜, 구시렁구시렁할 때 구시렁구시렁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디아공귀조 디아공귀조, 디아공귀조의 어원은 뿌리는 공귀

조인데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다시 말해 군중들이 막 구시렁구시렁 거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우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가족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를 집에서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할 줄 알았고 그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는 내 친구야 내가 오늘 삭개오 집으로 갈 거야라는 말에 군중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말하면 이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짧은 단어로 만들어진 굉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20년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말함으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들이 내쫓겼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바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시저는 나의 구주입니다. 황제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그 외에 다른 구주가 그 외에 다른 왕이 그에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처형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저보다 더 높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저가 그의 주였고 돈이 그의 주였습니다. 그것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크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크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이 집에 가겠다. 넌 내 친구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급히 영접하여 그 마음속에 들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며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져가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1. 첫째는 내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은 나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 개역개정)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5.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첫째 내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은 나를 보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간과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나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하고 같이 좀 시간 보낼래? 내가 오늘 너한테 가고 싶다. 너 나하고 같이 밥 좀 먹을래? 라고 하십니다.

2.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누가복음 19장 / 개역개정)
5. ~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둘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 거룩한 자야 너 깨끗한 자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깨끗한 자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흠 없는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 개역개정)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알파와 오메가이신 바로 그분이 네가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주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분은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이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삭개오처럼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3.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

(누가복음 19장 / 개역개정)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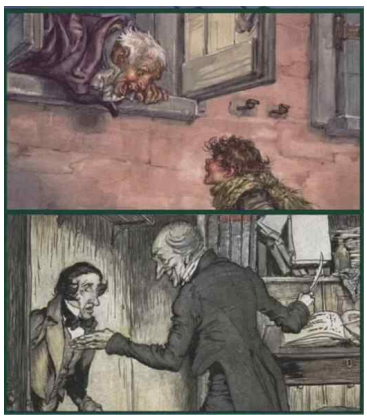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갑절을 갚겠다고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민수기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 끼친 것은 다 주고 그 손해 끼친 것의 20%를 더하여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1절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네 배로 갚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 말은 나는 분명히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지만,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때때로 회개 기도를 하라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다음에 잘못한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가 그 정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본래 존재 자체가 죄악된 존재이기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 찌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죄 지은 것, 이것만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이 크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삭개오가 갚겠다고 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마무리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본 에벤에셀 스크루지는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움켜쥐면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쥐어짜고 비틀고 헐키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고 난 후에 자기의 비서요 서기인 크래치에게 월급을 인상해 주고 그 집에 칠면조를 보내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기부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 변화된 스크루즈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변화된 스크루지의 모습 그는 교회에 갔다. 그리고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거지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어떤 집의 부엌을 내려다보고 또 어떤 집의 창문을 올려다보고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산책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이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변화를 보고 웃었다. 그러나 웃으라지 웃게 내버려두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이 웃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스크루지는 그 작품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다고 말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위대한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분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 그것은 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결단과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이 변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 개역개정)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에 붙잡혀 무언가에 노예가 되어서 기쁨도 없이 풍요로움도 없이 행복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찾았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돈은 많이 가졌지만, 명성은 많이 가졌지만, 그 삶에 조금도 희망도 기쁨도 생명도 없는 그 사람 그래서 항상 괴로워하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그 역사들,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공귀조 공귀조 공귀조 그랬어요. 불평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공귀조 공귀조 공귀조 그랬습니다. 군중들의 비난을 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를 아는 대로
② 설교 시간에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삭개오와 비교해 보고 나와 비교해 봅시다.
③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④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눅19:8)
⑤ 내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신다는 교훈에 대한 나의 생각을
⑥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교훈에 대한 나의 생각을
⑦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교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보고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⑧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즉시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

12월 3일 주일

❑ 성탄절 노래 : 소망의 노래 (사40:1~11 찬438, 104장)

❍ 시작하며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대림절(대강절)은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Advent(오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뜻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먼저는 2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성경에 나타난 특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노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때부터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초림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래들,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탄절과 관련된 한 작품을 살펴봅니다.

☛ Tip :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주인공 루시라는 소녀가 마법의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 그곳은 마법에 걸린 겨울이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는 그곳을 설명하는 톰누스라는 사람이 그 겨울인 나니아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나니아는 항상 겨울이다.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가 없는 곳이 어떤 곳인가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면 겨울은 끝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그림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가 없는 곳이 바로 저런 곳입니다.

저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렇게 겨울처럼 삭막하고 절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은 겨울의 삶이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삶입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부작용으로 또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이 망가졌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는 한마음으로 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싸우고 또 싸우며,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은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고, 관계가 망가지고 깨짐으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언제 이것이 끝나나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주전 700년경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인용함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소망스럽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위로하라(comfort)!

캄캄함 속에서 빛이 확 밝혀지면서 “위로하라”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잘 표현하는 헨델의 메시아라는 oratorio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가 포함된 성악 곡)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악기 전주가 끝난 후 테너가 외치는 소리가 “위로하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헨델은 하나님의 이 이사야 40장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 위로하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39장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때입니다.

유다는 앗수르가 공격해 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

야는 죽을병에 걸렸다 병이 나았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상황, 나라는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위문차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좀 손을 잡으면 앗수르로부터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벨론 사신에게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사신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지금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다음 먹이로 우리 이 유다를 선택할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난 후에 바벨론은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 나라로 가지고 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갈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 예언에 히스기야 왕은 어처구니없는 처신을 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요? 그럼 나는 괜찮다고요?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는 기쁘게 자고 먹고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비겁하기도 하고 정치도 어두워지고 나라도 어두워지고 39장이 끝나갈 때쯤 유다 백성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에 이르러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위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곳에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라.
이제 150년쯤 지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모든 보물들은 다 빼앗겼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40장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 본 론

1. 하나님의 완벽한 때 (Timing)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2.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갚아졌다.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생했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갚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곧 53장에 나타날 바로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노예의 때는 끝났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갚아졌다.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절망과 아픔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내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 헨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의 초연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1742년도에 공연을 하는데 그곳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감옥이라고 알려진 감옥이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 아니라 빚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으면 파산 신청을 하고 살 길이 있지만, 당시에는 빚진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감옥에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모든 빚은 갚아졌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이 이사야 40장을 이 헨델은 이 초연하면서 자선 공연을 했습니

MESSIAH.
AN
ORATORIO.
Compos'd by Mr. HANDEL.
MAJORA CANAMUS.
DUBLIN: Printed by GEORGE FAULKNER, 1743.
[Price a British Sixpence.]

다. 초연 때 많은 사람들이 자선금을 내고 그 표값으로 사람들이 성금을 내고 돈을 많이 냈어요.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감옥에 빚진 자들에게 줘서 그 빚을 갚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그런 초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 이사야 40장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절망 상태로 계속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3.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다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제 내가 정확한 때가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강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심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네 절망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가는 것,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무

엇입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잖아요.

유다 백성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고하신 대로 정확한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입니다.(키루스 2세 말함) 이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발표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네 나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그토록 원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을 너희들이 건축해라.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는 결코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정확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캄캄합니까? 겨울처럼 춥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동굴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터널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 끝에 빛이 있습니다.

네 인생 끝난 것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인생 소망이 없는 동굴이 아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정확한 때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하나님의 때 너에게 빛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이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 Tip : 이사야 주석 전문가 「라이트」의 본문에 관한 주석
기다림의 역사는 끝났다. 하나님의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더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지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언제 오십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또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모퉁이를 돌아, 이제 앞에 있는 어두운 코너 모퉁이를 돌아 빛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를 모퉁이를 돌게 하시고 도는 순간 빛을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Power)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는 모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바벨론의 문화와 정치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가장 아름다운 문화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 주는 유적이 있습니다.

☛ Tip : Ishtar Gate(이슈타르의 문)
이슈타르의 문은 바벨론 성곽의 성문 중 하나였으며 8개의 문 중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문(사진)인데 기원전 575년 느브가네살 왕이 세운 문이었습니다. .

유다를 멸망시킨 느브갓네살 왕이 건축한 저문을 독일 베르린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복원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조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1930년까지 약 10년간 그것을 조각조각 다 떼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조립해서 재료를 그대로 지금 베르린 박물관에 놔두고 있다고 한다. (높이 14m, 폭 30m)

당시 실물은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7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저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그 문을 봤을 때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다 부서지고 잔해들은 영국 독일 등의 박물관으로 옮겨져 와 있고 나머지 모든 그 영광스러웠던 것들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풀리요. 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위에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교회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 소식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econd chance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실 것이다.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고칠 것은 다 고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을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레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큰지 이 지구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싹 다 긁어서 태평양 바닷 속에 집어어도 바다 위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바다는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뼘으로 하늘을 쟀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끝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하가 우주에 2천억 내지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1956년 자신의 교회에서 새해 첫 설교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장 좋은 시작이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3.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Love)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11.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앉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부모의 엄마의 품에 안겨 심장 가까운데서 엄마의 심장 박동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잠을 자고 평안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내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목자가 700년 후에 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 개역개정)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마무리

성탄절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호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은 아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그만 전사했다는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부호인 이 아버지에게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성탄절날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청년이 아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직접 그린 아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찾아왔다. 아버지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들하고 너무너무 닮았다고 하면서 예술적 가치는 전혀 없었지만 아들과 너무너무 닮은 그 그림을 보면서 품에 안기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그 부호가 사망하고 그가 소장하고 있던 수많은 그림을 유언에 따라 경매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림들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참여했다.
그런데 첫 경매 작품은 놀랍게도 렘브란트 피카소의 그림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 아들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100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그 그림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매사가 아무도 없습니까? 하는데 구경하러 왔던 옆집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알았고, 이 아이와 친하게 지냈다고 말하면서 제가 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에게 10불밖에 없는데 혹시 10불에 팔 수 있습니까? 다른 응찰자가 없자 10%에 낙찰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자리도 고쳐 앉고 있을 때, 그 순간 경매사가 오늘 모든 경매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것은 오늘 이 경매에서 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라 이것이 유언입니다. 집도 주고 나머지 모든 그림들을 아들을 가진 자에게 다 주라는 것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들의 삶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봅시다”

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두 번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②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되는 39장까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해보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③ 이런 포로 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④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는 교훈이 항상 늦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풀이나 꽃처럼 지나간다는 사실을 바벨론의 예를 들어~
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40:12)
⑦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말해보고 이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12월 10일 주일

❑ 성탄절 노래 : 마리아의 노래 (눅1:46~56 찬570, 20장)

❍ 시작하며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쯤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이사야 40장을 살펴보면서 소망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위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 소망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마니피캇(Magnificat)라고 불립니다. 이 제목은 마리아의 노래는 라틴어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누스"라고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단어를 빌려서 마니피캇라고 부릅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Benedictus)라고 불립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Praise be to the LORD"입니다. "플래스" 그래서 라틴어 첫 단어를 따서 베네딕투스(Benedictus)라고 합니다.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이라고 라틴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노래는 눈크 디미티스(Nunc dimittis)라고 불립니다. 눈크 디미티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라는 라틴어 시므온의 노래의 첫 단어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글로리아(Gloria)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첫 단어 글로리아(Gloria)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의 특징은 마리아라는 여성으로 어머니로 정말 힘든 상황, 그리고 공경에 처하고 비천한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불렀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 2등 국민처럼 간주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던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다 뒤바꿀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이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성탄절이 많이 변질됐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가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물리치시고 개선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처럼 혁명적인 노래가 없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세계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노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감리교 신학자였고 작가였던 스테니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켄트베리 대주교가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선교사 윌리엄 템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의 노래를 들려주지 마세요. 마리아의 노래를 읽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마리아의 노래가 본래 의도하지 않는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읽어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혁명적인 노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배경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9. 이 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10.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쉬운 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며칠 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며칠 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일생일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바로 그날, 이후 며칠 후에 엘리자벳에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혼란스러웠던 날, 충격스러웠던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10대 중반쯤 되는 것으로 예상이 소녀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로 좋은 평판이 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 상태에 있습

니다.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진 :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 아기는 초자연적으로 너에게 잉태할 아기인데 그 아기는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이에 마리아는 메시아가 나에게서 태어난다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거나 마냥 대단한 일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이 스캔들은 그 마을에서 추방되거나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 속에 휩싸였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안정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엘리사벳을 향하여 바쁘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리아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가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세례요한입니다. 지금 이 아기를 가진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달려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39.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종해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니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마리아의 혼란스러움이 깨끗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 본 론

1. 하나님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먼저 생각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마리아가 무슨 선택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선택할 만한 무슨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골 한 마을에 한 이름이 없는 소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무언가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 10대 소녀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찬양을 쓸 수 있었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로부터 천 년쯤 전에 한나가 했던 노래, 그 노래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한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인데 세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1.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마리아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돌보셨음이라는 단어에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우리를 염두에 두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마인드풀(mindful) 이라고 돼 있습니다. mindful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늘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것이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신다. 네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 개역개정)
5.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우리들 생각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미소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NLT 성경은 “took notice”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 개역개정)
2. 주님께서 나를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나의 길과 눕는 것 또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돌보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48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나사렛의 이름이 없는 소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대가 나를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변화되면 나의 목적이 변합니다. 나의 목적이 변화되면 내가 가는 길이 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변화되면 내 삶의 내용이 다 변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믿어도 됩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혼란스러운 일 뚫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2.2.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시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독재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Power를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종적인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교만한 자들은 다 내려오게 할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높임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고 불의가 이 세상을 잡은 것처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속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내려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낮추실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정말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내려야 합니다. 내 속의 교만이 없어야 할 이유는 교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 개역개정)
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패망이 옵니다. 교만이 오면 멸망이 옵니다. 교만이 오면 비참함이 오고, 교만이 오면 부끄러움이 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Pride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Pride는 건전한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리더십 전문가,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은 “교만은 남을 비난하게 만든다.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 다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따라서 교만은 관계를 깨뜨린다. 교만은 나에게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따라서 교만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교만이 관계에 있어서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관계를 죽이는 것이 나의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3.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 개역개정)
2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지금까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선택하셨음을 깨닫고 이제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확대시키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들을 말씀 속으로, 그 노래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compassion(동정심)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동정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자비의 특징은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풍부하다는 사실,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다가 끝나고 그 자비가 또 다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슬픔의 민족 힘든 백성들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노래인데 슬픔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한 줄기 빛처럼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50절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포베오(φοβέω), 영어로 fear라는 단어가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미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은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경외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앞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또 다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은데 그 자비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주린 자에게는 배불리셨으며,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도우사"와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시제가 좀 특별합니다. 당시에 마리아를 도우시고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지만,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을 확신하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보장하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셨고, 마리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우시고 기억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이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믿지 않는 때와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의 노래에서 전 인류의 역사를 다 통찰하고 전 인류의 역사를 다 그 노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하면서 2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호출해 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마리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2천년 후에 오늘 세광교회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큰 일들,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혼란스러움과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위대한 메시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봅시다"

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빨리 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②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③ 마리아의 노래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④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눅1:51~52)
⑥ 내 안의 교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⑦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애3:22~23)
⑧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12월 17일 주일

❑ 성탄절 노래 : 사가랴의 노래 (눅1:68~79 찬126, 120장)

❍ 시작하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을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아마도 선물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유대 백성 중에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계속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 중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베네딕투스 '축복합니다.' 또는 '찬양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가랴의 노래를 마치 연극처럼 3막으로 꾸며봤고,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를 살펴볼 것입니다.

❍ 본 론

1. 제1막 : 기다림 (누가복음 1:5~7), 기다리는 사람들

제1막은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5.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는 아비야 제사장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 엘리사벳은 최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 남편도 아내도 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가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가 끊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가문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주님을 봉사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 개역개정)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2천년이 지났지만, 복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의 삶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한 천년쯤 후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천년쯤 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 개역개정)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왕과 그리고 왕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포함 영광스러웠던 적은 경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라는 분열했고 악한 왕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절망과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수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4장 / 개역개정)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해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고치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시대 직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60년쯤 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고, 로마의 장군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군인들이 군화를 신은 채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것 그것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토록 영광스럽게 두려워하던 바로 그 지성소 그곳에서 잘못하면 죽는데 이들은 진흙 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곳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며 해결책을 찾아 나셨습니다.
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②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로 절대로 로마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로마를 전복하자 혁명을 일으키자들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③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말라기가 예언한 그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처럼 칠흑같이 암울한 시대 상황이 1막의 끝입니다.

2. 제2막 : 하나님의 응답 (누가복음 1:8~25)

제2막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캄캄한 밤 그 밤이 1막을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제2막이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8.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9. 제사장의 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당시에 몇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순서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전에서 분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일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올 정말 특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비 뽑혀서 하나님께 분향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면서 분향하고 나온 이 제사장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11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 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벌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쳐다보는 그런 모습,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13절)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절할 수 있어서 기절하기 전에 나타나자마자 무서워하지 마라.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이어지는 말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천사 입에서 위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17절) 어디에서 들었던 얘기죠? 이 천사는 400년 전에 닫았던 말라기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네 삶에 네 인생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삶, 엘리사벳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 일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그의 아들(세례요함)을 동참시키시고 그 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삶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

니다.” 해야 하는데 사가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리이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이 왔는데 사가랴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사가라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 내 마음에 오시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겠어요.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사가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19. 천사가 대답하되 ~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제 조금 이따 마리아에게 갈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 나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네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더해집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약속의 성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건 우리의 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

니다. 사가랴는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사촌지간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입니다.
마리아 : 엘리사벳 나 임신했어요.(처녀가 임신했다는 기절초풍한 말입니다.)
엘리사벳 : 마리아 나도 임신했다. 난 6개월째야.
마리아 : 내 아기는 성령님께서 메시아래요
엘리사벳 : 그래 알고 있다. 내 아기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6개월 먼저 보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2막이 끝납니다.
2막은 말 못하는 스가랴와 함께 또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3. 제3막 : 환희에 찬 성탄절 노래 (눅1:57~79) =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제3막은 환희에 찬 성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3막의 배경을 먼저 살펴 봅니다. (59~63절)
8일째 되는 날 이 요한에게 규례에 따라 할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지만 어머니는 천사가 요한이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말을 못하는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모두들 놀라며 요한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68절부터 79절까지의 찬송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John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름까지 같이 주셔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이 요한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이 이름을 요한이라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그의 마음이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 말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풀렸다는 마음이 풀렸다는 말인데 tongue set fre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사가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 요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사가랴의 얼굴,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 가득 찼고 어쩌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얼굴들, 이제 무언가 그 입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9개월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입에서 무엇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터져 나오는 그 소리가 오늘 이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의 소리, 그 탄성의 소리 바로 그 순간, 그 아하의 순간을 깨닫고 부른 그 사가랴의 노래는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3.1.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68절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방법은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속량입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뿔, 야생동물에 있어서 가장 그 힘의 절정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뿔처럼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71절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열망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민족적인 구원, 도덕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는 죄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곳에서의 구원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3.2.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 소식입니다.

70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었습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3.3. 우리에게 목적을 주심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대하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는 섬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성결과 의로 살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요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결과 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가랴가 깨닫고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터져 나온 거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3.4. 요한을 통해서 준비됨

네 번째,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준비될 것이다.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77절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단강 강가에서 회개의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하며 죄의 길을 예배했던 바로 이 세례 요한 이것이 사가랴의 노래였습니다.
환희의 찬송가,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아하의 순간을 경험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송으로 사막이 끝납니다.

❍ 마무리 : 에필로그

‘돋는 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마치 이 돋는 해처럼 임할 것이다.
햇빛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햇빛은 그냥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림처럼 손 들고 그 햇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공로, 어떤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비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빛이 우리 속에 더 스며들고 더 스며들고 더 아멘 할 때까지 더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햇빛 앞에 있는 식물들은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더니 내 안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며 그 입에서 아하의 순간 터져나오는 노래.
그것이 사가랴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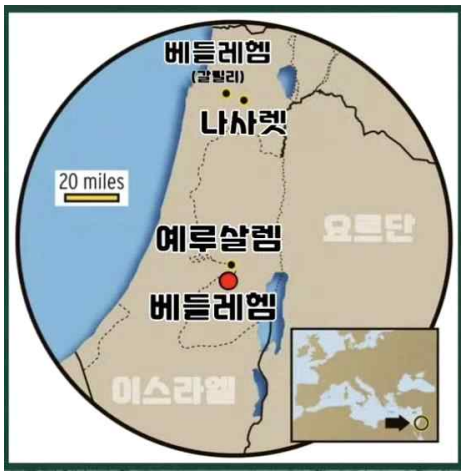
①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말해보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②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
③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과 관계를~
④ 천사의 말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깨닫게 되었을 때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 나온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⑥ 나에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히 깨닫게 되어 탄성을 질렀던 순간이 있었다면~
⑦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⑧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⑨ “돋는 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12월 24일 주일

❑ 성탄절 노래 : 시므온의 노래 (눅2:25~35 찬115, 105장)

❍ 시작하며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사실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율법에 따라서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시므온을 만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 거리는 10km가 채 되지 않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을 만나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특징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며 마음 다하여 기다렸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eagerly waiting이라는 단어로 많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열정적으로 절실하게 평생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84살이나 된 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이후에 계속 성전에서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38.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기다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성경적 소망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거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간절한 기대를 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 영어로는 eager expectation입니다.
간절한 기대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므온과 안나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의 상황은 B.C. 167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 시대적 배경

☛ Tip :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은 유다가 셀류쿠스 왕조시대에 B.C. 166년 하스몬 가문의 마티 디아스라는 제사장의 주도하에 일어난 혁명으로 그가 죽자 아들 마카베우스가 이어받아 23년간 계속되었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한 것은 마카베우스 이름을 따서 유래 된 것이라고 한다. 혁명은 성공하여 B.C. 142년 하스몬 왕가를 세운다.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유대를 점령했던 많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앗수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들의 전쟁터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신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상, 헬라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는 주피터 신상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유대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다. 혁명이 성공하여 마카비가 하스몬 왕조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회복된 듯 보였다. 이 마카비의 혁명의 성공을 기념하여 연례행사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마카비의 왕조는 100년을 못 채우고 멸망한다.♥

유다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 B.C. 65년경 유대인 내전으로 번졌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요충지란 이유 때문에 주변 강국들이 서로 점령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결국 B.C. 37년에 로마가 승리하여 그 예루살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악명 높은 헤롯 왕으로 그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매인입니다. 기원전 37년 로마에 의해 헤롯이 그곳의 통치자로 세워졌고, 피의 굶주린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만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왔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84세로, B.C. 65년경 유대인의 내전과 전쟁터가 되어 성전이 훼파되고 깨지고, 그리고 헤롯의 잔인한 행동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서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평생 경험했던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절실하게 바라는 그 기대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만큼 절망의 수치가 높아져 있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통계 가운데 이 시대처럼 사람들이 절망스럽다고 생각한 시대는 없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절망스러운 시대에 절망감을 사람들이 가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했는데, 절망감을 느낄 때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더욱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 분노에 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매일매일 보면서 어떻게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실 것이다.
절실한 기대를 가진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본 론

1. 매일의 경건 훈련

첫 번째 비결은 매일의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을 매일매일 훈련처럼 계속해서 하는 것, 규칙적인 영적 실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지속적인 소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하여”란 그냥 마음이 굉장히 경건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devout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무엇인가 경건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정기적인 경건의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영적 훈련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누카 명절을 지켰습니다. **(하누카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37.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그 예배 모임에 있었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찬양도 아마 했을 것이며 교사도 주방 일도 도왔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경건 훈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이블버스가 그중에 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계속 가꾸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계속 발전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아닌 한 과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실재가 될 것인가?』입니다. 타냐 로먼이라는 여성으로 신학자도 아니고 인류학자였습니다.
인류학자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해서 발전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자인 사람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는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로 그의 삶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년 더 길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 누구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정기

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정기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유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자가 말합니다. **믿음과 믿음에 대한 실천이 결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실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그대로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소망이 변치 않고 소망 가운데 절실한 그 기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 절실한 기대와 함께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 그것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매일매일 계속되는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기 위함**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실재가 내 삶의 실재가 되는 그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 성전에 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뿐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망이 점점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25. ~ 이 사람은 ~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할 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 Comfort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의 만지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약속,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결코 약해지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인생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째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일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에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시므온은 굉장한 통찰력으로 복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이 그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썼고, 교향곡과 오라토리오를 썼고, 예술 작품으로 많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시므온의 그림을 보면 그는 시므온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었구나 마치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동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마리아가 있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지금 그 그림에서 표현했습니다. 빛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비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그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고백, 이는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메시지를 그의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전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미술 평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이 그림이 아직도 이젤(easel,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마지막 터치를 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그림의 내용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너무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눈도 겨우 뜰 수 있는 모습, 팔은 뭐 관절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울퉁불퉁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은 이 렘브란트는 마치 시므온처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임을 느끼고, 그 순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놀라운 찬송, 이 놀라운 탄성의 소리를 내뱉었다. 그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탄성 이것이 시므온의 탄성이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좋은 말들이 계속 나열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시므온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인데 이 이방은 원수였습니다. 유대인을 괴롭힌 사람, 원수 중의 원수가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놀라운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원수들에게까지도 미칠 것이고, 땅끝까지 갈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시므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 바르트(1886~1968, 스위스 철학자, 신학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 교수님의 그 모든 학문적인 배경, 교수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오한 교수님의 그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겠죠.)
칼 바르트 : (교수가 잠시 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람, 그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문제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네 번째, 문제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 축복할 때는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축복한 후에 이 아이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야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야. 축복하고 끝내지 왜 이렇게 마치 저주처럼 이 아이는 이렇게 살 것이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술 작품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미켈란젤로의 그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몸을 이제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저 상을 우리는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33살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5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상에 마리아의 얼굴은 10대 소녀의 얼굴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칼이 너를 찌르듯 하리라."라는 말을 듣던 그 순간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표정과 그 얼굴을 표현한 것이 미켈란젤로의 의도라고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이 마리아와 요셉 그에게 꼭 이렇게 비수를 꽂듯이 칼이 너를 찌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까?
이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돼요.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 마무리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거야. 이것은 긍정이지만 독이 되는 긍정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는 힘들 거야. 그러나 끝내 너는 이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합해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6장 / 쉬운 성경)
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은 회당에서 쫓겨날 거야. 너희들은 힘들 거야. 너희들은 곡 할 거야.

너희들은 애통할 거야. 너희들은 너무너무 힘들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을 기다렸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 개역개정)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림을 기다리던 마리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 "말해 봅시다."
① 내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면 ~
②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
③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본문에서 발견한 네 가지 이유를 ~
④ 네 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쉬운 것과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
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건 훈련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것이 있다면 ~
⑥ 문제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
⑦ 시므온의 찬송을 모델로 삼아 나의 찬송을 써 봅시다.
⑧ 만일 내가 예수님 당시로 가서 시므온과 안나 곁에 서 있다면 나는 아기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것인지 ~

12월 31일 주일

❑ 성탄절 노래 :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눅2:41~52 찬9, 90장)

❍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30세부터 시작한 공생애 전 유년기 예수님의 일을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 예수님의 12살 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많은 이야기 중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마 성경에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 하심이었습니다.
12살 때부터 30세 이전에 한 가지 사건만 성경에 기록한다면 무엇을 기록할까? 여러 문서를 보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알려져 있었고 퍼져 회자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외경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아주 뛰어난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먼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누가는 그냥 흘러 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인터뷰하고, 당연히 가장 핵심 인물 마리아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성공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교훈과 예수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후에 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네 아버지 you father'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my father'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네 아버지(옆에 있는 요셉)가 너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하나님)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 한글킹제임스>
49.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my father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my father business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재물로 들여지는 양들을 보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것이 내가 해야 할 아버지의 일이다. 또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20년 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저 제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본 론 : 예수님의 부모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

다음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오늘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 Tip : bat mitzvah(바트 미츠바, 유대인 성인식)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중요한 나이였다. 12살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바트 미치바' 즉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인식을 치른다.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된다고 여기며 치르는 의식이다. 이때부터 거룩한 절기나 예식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인 통곡의 벽 그 앞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그 의식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행사 그 모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냥 머물러 계셨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루 종일 걸어가 저녁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유대인의 당시의 관습을 좀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돌아가는데 강도의 위험 등으로 그룹을 지어 이동했습니다. 그 그룹은 일반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제일 앞 첫 번째 그룹은 엄마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이들 그룹입니다. 세 번째 제일 뒤에 그룹은 어른들입니다. 성인식을 했던 12살 이상의 남자아이들이 이 어른들의 그룹에서 함께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면서 뒤로 돌아보니 아이들 그룹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른들 그룹에서 아빠하고 같이 오나 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하고 같이 가나 보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들은 즉시 다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후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잃어버렸으면 즉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 관계는 잃어버리지 않아도 교제는 잃어버릴 수 있다.

첫째, 관계는 잃어버리지 않아도 교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인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막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나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지만 때때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과 맺는 그 관계는 마치 결혼과의 관계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맺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은 벌써 오래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함께 좋은 친밀한 시간을 보낸 것은 아주 오래돼 버렸다면 그래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지금보다 과거에 어떤 때가 더 주님과 가까웠다. 그럼, 지금은 그만큼 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 한때 주님과 가까웠어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두 번째, 한때 주님과 가까웠어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였으며,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교회에서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목사, 장로, 충성하는 교사, 찬양대원 등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드리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나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는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하거나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만남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 주님과 친밀감을 잃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

세 번째, 주님과 친밀감을 잃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는 사실, 그냥 한순간 하룻길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죄의 특성 중 하나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처음에 큰 죄, 누가 봐도 명백한 죄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점점 빠져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 Tip :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법』** (Paul Harvey)
① 면도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회칼 같은 양면의 날에 물개의 피를 묻힌다.
② 얼음에 얼린다.
③ 다시 물개의 피를 묻혀 얼리기를 반복한다.(칼이 언 피로 두툼해 진다)
④ 눈 위에 혹은 얼음 위에 꽂아놓기만 하면 된다.
⑤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 얼음을 핥다가 혀가 마비되고, 계속 핥고 나면 칼날에 혀가 잘려서 죽게 된다.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며 아기 걸음으로 우리 주님을 떠나고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아기 걸음은 어른 걸음이 되고 어느 순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삼손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지만,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삼손의 머리를 깎는 들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삼손은 머리를 다 깎여버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 / 개역개정>
20. ~ 삼손이 ~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우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한때는 가까웠지만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까웠다는 것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에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네 삶의 어느 영역은 나로부터 좀 멀어져 있구나.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네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나와 멀어져 있는 그런 네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라. 다시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다시 찾았어요.

2.1. 주님을 떠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을 떠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의학적

으로 어떤 중독을 치료할 때 공통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치료법의 기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분위기를 본다면 어쩌면 서로를 탓하며 서로 싸웠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세광의 모든 가정들은 싸우지 않는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Tip : 오스왈드 챔버스의 메시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증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수년 전에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나 빛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감상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서 과거만 기억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것이 현재 동행하지 않은 것을 대신할 수 없고 그것을 커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려야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2.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야 한다.

<누가복음 2장 / 개역개정>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두 번째,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야 한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 사흘인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출발한 때부터 사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찾고 보니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

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는 그 순간 즉시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고 또 떠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고 그 길을 다시 가야 한다는 사실, 끈질기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떠났다면 다시 돌아와서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시간 될 수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다시 바이블 버스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시간 규칙적으로 가지십시오.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구절구절 자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회로 삼으십시오.

2.3. 떠났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세 번째,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렸던 바로 우리 주님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섬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쉬겠어요?
내가 금년에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쉬면 좀 더 쉬어야 되고, 은퇴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 함께 돕고, 서로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구역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마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추측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아주 나쁜 불효자(탕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받아 멀리 떠나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며 나쁜 일에 다 써 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돼지 먹는 걸 좀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어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자, 내가 멀리 떠나왔어.
이제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가야 해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리고 아빠에게 돌아갑니다. 돼지우리에서 금방 나왔으니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참한 몰골이었겠습니까? 그 얼굴로 한 발짝씩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었을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아버지에게로 오는 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 개역개정>
20. ~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전보를 받거나 카카오톡 받아서 알고 있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더럽고 정말 비참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도 이처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만지시면서 왔느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떠나 있고 주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가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고, 2024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그런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①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후 30세 이전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으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② 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세 가지를~
③ 그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④ 우리가 언제 또는 어떻게 할 때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⑤ 그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⑥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 새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나의 결단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